

'22~'23

# 金井山脈

2년간 연맹인의 활동과 도전!



BUSAN STUDENT ALPINE ASSOCIATION

# 산악인의 백자 선서

산악인은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열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없다.

산악인은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아무런 속임도 꾸밈도 없이

다만

자유, 평화, 사랑의 참 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름이다.

# 목 차

발간사 .....	4
축 사 .....	6
특별기고 I .....	7
특별기고 II .....	9
해외원정 크라비 .....	16
영호남 합동 산행 참가기 .....	23
히말라야 피케피크 트레킹 .....	25
B.F.C 22 등산학교 보고서 .....	32
B.F.C 23 등산학교 보고서 .....	98
산악부 탐방-경성대학교 .....	145
행사 사진 .....	148
단체별 활동 소개 .....	166
이사회 및 후기 .....	228



표지설명.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 Kilimanjaro Mt. 5,895M )  
 원정중인 동아대학교  
 성기진(85), 조벽래(88) 약우.

## 발간사



회장 박민호(경남정보대83)

2022년 2023년 금정산맥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재학생들과 O.B 회원들의 도움으로 2년여 동안 무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산악인의 정신으로 항상 학생산악연맹에 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조금씩 회복되어 등반과 산행, 연맹행사들을 잘 치뤘고, 대외 행사들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B.F.C 등산학교는 큰 성과로 재학생들의 의지와 선배들의 지원으로 학생산악연맹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선배와 후배들의 노고와 희생이 없이는 가능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은 불굴의 정신으로 값진 성과를 얻었으며 이는 서로의 진심과 산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기적의 시작은 힘차게 내디딘 첫걸음에서 시작되고, 기적의 마지막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딛는 마지막 걸음에서 완성된다.” 고 했습니다. 산과 같은 마음으로 산과 같은 진리로 우리 학생산악연맹이 이어갔으면 합니다. 올해 금정산맥은 부족하나마 2년여 동안의 기록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년여 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와중에도 금정산맥 발간에 힘써주시고 도움 주신 하태웅 편집위원장, 박준범 편집위원, 박건우 재학생 회장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원분들과 가족분들께 감시하며 더더욱 행복한 삶과 소중한 일상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발간사



재학생회장 박 건 우(경성대19)

안녕하세요! 부산학생산악연맹 재학생 회장을 마무리하게 된 박건우입니다.

재밌게 활동하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 금정산맥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박민호 회장님, 하태웅 부회장님, 박준범 선배님, 그리고 연맹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시고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아쉬웠던 행사들이 점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뜨거웠던 2년을 보내었습니다. 멈춰있던 이사회 개시와 연맹 임원진 선배님들, 인수, 성준이의 노력과 함께 다시 활성화가 되어 매달 각 단대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었으나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청춘,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열심히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였습니다. 그중에 기억이 남는 행사는 각 Y.B 단대 부장님들이 힘을 합쳐 단대 구분 없이 재학생끼리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2023 추계 합동 산행’을 기획한 행사였고, 단대간 벽을 허물고 연맹 선배님의 도움 및 지원과 단대 부장님들의 아이디어, 후배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루어진 값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5년 전, 20살 신입생 시절 연맹제에서 맛있는 오리고기 먹고 신나게 족구했던 첫 활동부터 경성대 단대 부장과 연맹 회장을 하기까지 수많은 경험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고, 그 순간들이 문득 떠오를 때면 스마트폰 속 갤러리에 들어가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땐 그랬지~’라며 아직도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곤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부원을 만났고 많은 부원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돈으로는 사지 못할 관계들을 만들었습니다. 연맹 재학생 회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된 것에 저는 자랑스럽고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자부하며, 앞으로도 학산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앞으로도 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좋은 일, 재밌는 일, 행복한 일, 기쁜 일을 계속 해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4년도 연맹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금정산맥’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 학산 파이팅!

## 축 사



부산광역시산악연맹 회장 최 재 우

봄을 재촉하는 비가 금정산 자락을 적시고 있습니다. 곳곳에 봄꽃들이 꽃망울을 피우고 있는 이때 우리 부산광역시산악연맹의 젊은 피인 부산학생산악연맹 2년간의 활동상을 기록한 ‘금정산맥’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정산맥은 대학산악부의 생기발랄한 내용으로 가득하여 언제나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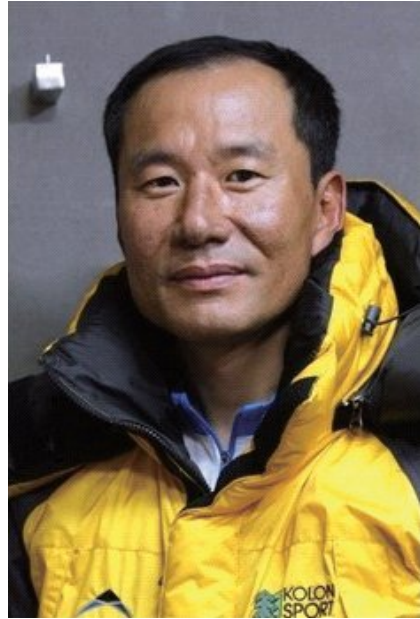
작년 한 해 우리 연맹에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네팔 히말라야 골뎀피크에 원정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아쉽게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하였지만, 세계 초등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코로나로 묶여있던 흰 산으로 도전을 우리 부산산악연맹이 선봉에 섰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하나, 우리 연맹 소속이자 부산학생산악연맹의 큰 축인 동아대학교 산악회에서 산악회로서는 한국에서 다섯 번째로 세계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였고, 소속 조벽래 회원은 개인으로 국내 11번째로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을 하여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도 부산광역시산악연맹은 국제규격 인공암장 건립, 금정산 야영장 확보 등 부산 산악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과 함께하면 더욱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2년간 고생하신 박민호 회장님과 금정산맥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산학생산악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특별기고 I



김재수  
8000m 14좌 완등자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원님께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산악운동과 후배 양성에 힘쓰시는 선배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부산에서 1993년까지 산악활동을 하다 주소지 이전과 해외 원정의 이유로 지금은 경남 산악연맹의 회장직을 거쳐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970년 중반부터 산업화의 역동적 성장에 생산 집약적 노동 집약적 산업체의 창업으로 각 산업현장에 타인의 근로자가 밀집화 되었고 그로 인해 기업마다 가장 손쉽게 단체를 결성 할 수 있었던 것이 산악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등산 활동 단체와 좀 더 일찍 해외 등반 방식에 관심과 경험을 한 특정한 인원들이 암벽등반과 빙벽 등반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 저는 등산을 알게 되었고 금정산 북문에서 동문으로 친구와 함께 하산하던 중 잘 차려입은 등산복과 노란 끈의 가죽 비브람을 신은 산악인을 만났고, 그분의 조언과 등반 리더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의 장비를 이용해 무명암 릿지등반을 하게 되면서 암벽등반을 접했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다올라기리 원정대의 일원임을 알았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등산은 캠핑이라는 낭만에 취해 자유분방하게 산속의 계곡에서 지냈던 게 전

부였지만 조금씩 등산과 산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급기야 생각과 행위의 과감함으로 등반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면서 높은 산 겨울 산 장거리 종주 산행 만년설의 히말라야를 경험했던 선구자의 이야기와 경험담을 경청하면서 조금씩 산악인으로서의 꿈을 꾸기 시작하여 열정적으로 암벽등반과 빙벽 등반에 매진하여 기회를 얻으며 노력하였고, 1990년 가을 일본 오사카와 부산 합동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히말라야를 경험함으로 급격하게 고산등반의 길로 방향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0회 이상 해외 원정 등반을 하였으며 등반 중 대원과 동료 후배를 잃기도 했고, 좌절과 실망으로 괴로운 적도 있었으며 심한 동상과 부상으로 고통스러운 때도 많았고, 그로 인해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는 게 맞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멈출 수 없는 게 습관이라 다시금 장비를 챙기며 설렘으로 들뜬 기분으로 나의 길인 것 같으면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에 최선의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나에게 베풀어 준 선배님들의 관심과 물질적 도움에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산행했음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아직 그 깊은 감사의 뜻을 모두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보답의 길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스며든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하산의 묘미도 느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산을 찾아 먼 길을 걸어갈 각오도 되어있습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의 학술적, 문학적, 도덕적, 환경적 산악운동의 실천가들이 더 많이 배출되고 발전을 거듭하는 자랑스러운 선구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특별기고 II



조 벽 래(동아대학교 88)  
7대륙 최고봉 완등자

원정 등반을 다녀온 후 사람들이 내게 던진 물음에 대한 답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 1. 7대륙 최고봉 완등에 대한 소감은?

일단 기쁘다. 산을 오르는 일은 나에게 즐겁고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 산악회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여서 기쁘다. 그래서 우리 팀은 새로운 곳에서 부담 없고 맘 편히 등산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7대륙 최고봉 완등자'라는 작은 타이틀이 생긴 것도 기분 좋은 일이다. 제일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은 우리 산악회의 7대륙 최고봉 완등에 총 55명이 대원으로 참여하였는데 큰 사고가 없었고, 지금도 웃으며 추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 2. 7대륙 최고봉은 어떤 곳인가?

7대륙 최고봉은 최소 4,800m 이상의 고산이다. 바닷가에 사는 우리는 고소증을 걱정하며 올라야 한다. 각각의 산들은 한 대륙의 최고봉다운 위용을 가졌다.



에베레스트(8,848m)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크기와 높이로 일단 주눅 들게 한다. 엄청난 크기의 아이스폴 앞에 처음 서면 위축되어 걸음을 옮기기도 힘이 든다. 가쁜 숨과 어지러움을 이겨내고 마지막 캠프를 떠나 정상으로 오르다 보면 저 멀리 티베트평원 위로 여명이 밝아오고 마른하늘에 번개가 수를 놓는다. 정상에 서면 잠시나마 세상을 발아래 둘 수

있지만 자만과 방심은 금물... 내려가는 길에서 생과 사가 갈린다.

아콩카과(6,962m)는 7,000미터에 가까운 고봉이지만 노말루트로 간다면 등반 루트의 난이도는 히말라야의 비슷한 높이의 산들보다 약하다. 눈사태나 크레바스도 없고 현지 가이드나 포터들이 많이 다녀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 덜 위험하다. 그렇다고 만만히 볼 수는 없다. 고산증이 내내 따라다니고 남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피할 수도 없다. 거칠고 메마른 땅이지만 캠프2에서의 석양은 잇기 힘든 장면이다. 아르헨티나의 와인과 스테이크는 아무리 먹고 마셔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과 맛을 자랑한다. 7대륙 최고봉 등반의 첫 등반지로 좋을듯하다.

데날리(6,194m)는 높이에 비해 등반 난도가 있다. 깊은 눈과 크레바스 그리고 가파른 설벽과 암릉, 강풍과 낮은 기온. 고산등반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북극권에 있어서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아 늦은 시간까지 등반할 수 있지만 공기층이 얇아서 상대적으로 고소증을



많이 느낀다. 텐트 주위로 눈 블록을 쌓을 땐 눈싸움을 하듯 재미가 있다. 스키를 잘 탄다면 산악스키를 배워서 가면 조금 더 편하고 즐거운 등반이 될 것이다.

킬리만자로(5,896m)는 아주 놀라운 외관을 하고 있다. 대평원 위에 고봉이 우뚝 솟아 있고, 밑에는 녹색 중간은 적갈색 정상부에는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다. 우리에게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로 이미지가 각인되어 생각보다는 친근감이 있었다. 사회산이라 정상부의 거대한 분화구를 볼 수 있으며, 우거진 정글을 지나면 고산 양치식물과 고산 사막 등 이질적 풍광을 한곳에서 볼 수 있다.

엘부르즈(5,642m)는 소비에트연방이 존재하였을 때는 몽블랑에 눌러 유럽 최고봉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 유럽 최고봉으로 인정되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흑해로부터 멀지 않아서 날씨의 변화가 심하다. 주변의 아름다운 산에서 고소적응을 하면서 여유로운 산행을 할 수 있다. 4,500m까지는 스키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접근성도 용이하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날씨가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으며 날씨가 나빠지면 위험한 산으로 변한다.

빈슨(4,892m)은 7대륙 최고봉 중 접근성이 가장 안 좋다. 그래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남극 대륙은 지구 온난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천 미터의 얼음으로 덮여 있다. 그래서 높은 산들만 두꺼운 빙원 위로 솟아 있고 산 주위로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다.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아서 두꺼운 안대를 착용해야 잠을 잘 수 있었다.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추웠던 것 같다. 동계 등반에 대한 훈련과 등강기 활용 훈련을 충분히 하고 가는 것이 좋으며, 등반 중 장갑을 벗거나 추위에 노출되면 매우 위험하다. 함께 등반했던 6명 중 2명이 손가락 동상으로 고생하였다. 등반 난이도는 보통 이상이며, 정상에서 둘러보면 주위 산들을 제외하면 사방이 얼음과 눈으로 된 대평원이다. 날씨가 나빠서 대기하던 유니언 캠프에서는 훌륭한 식사와 함께 다양한 강연과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식당 청소를 하던 사람이 남극 탐험사에 대한 강연을 하고 창고에서 짐을 나르던 사람이 환경에 대한 세미나를 주도 했다. 그들은 관련분야 박사라고...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수준이 매우 높았고 들인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남극에서는 물을 제외하고는 음식 부스러기조차 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등반하고 캠프를 오갔지만, 순백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칼츠텐츠(4,884m)는 파푸아섬에 있는 오세아니아주 최고봉이다. 인도네시아령이라는 이유로 호주에 있는 코지어스코를 오세아니아 최고봉이라 하는 이들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호주 근처에 있는 프랑스령 섬들을 유럽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는가? 베이스캠프까지 가는 방법은 차로 산 주변에 있는 광산(우라늄 광산이라 알려져 있음. 허가받기 어려움)을 통과하거나 고소적응이 되었다면 헬리콥터를 타고 갈 수도 있다. 일반적인 방법은 걸어서 가는 것이다. 열대우림지역의 밀림을 3일 정도 걷고 고산 양치식물이 자라는 곳을 이를 걸으면 탁 트인 고원지대와 마주하게 된다. 그 지역의 건기라고 하는 7월 말에 갔는데도 하루 2차례 이상 엄청난 물 폭탄을 맞아야 했고 등산화 대신 긴 장화를 신었는데도 무용지물이었다. 비가 그리

면 진흙이 온몸에 말라붙어 차라리 비가 오길 바랐다. 4,000m 미터 이상은 독립된 암봉이다. 기존에 설치된 로프와 신규 로프를 설치하면서 올라야 한다. 석회암질로 표면이 매우 날카로우며 부상을 입거나 로프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정상 부근에는 열대지방임에도 만년 설이 일부 남아있고 내려다보이는 초록의 정글은 한가롭게 아름답다.

### 3. 정상에 올랐을 때의 감상은?

정상에 올라서면 바람과 추위와 함께 '흰 고독'이 있다. 그리고 생사를 같이하는 내 등반 파트너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힘들게 올라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힘들어하는 서로를 껴안으면 기쁘면서도 서럽고 감동스러우면서도 울분에 차는 통제하기 힘든 감정에 빠진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

★ 재학생들에게 라인 홀트 메스 너의 '검은 고독 흰 고독'을 읽어 보시라 추천한다.



### 4. 제일 힘든 일은 무엇이었나?

에베레스트 원정 출발 전날,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못다 쓴 짐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전화하셨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근처에 사시는 형님께 연락해서 늦은 밤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밤새워 고민하였다. 지병으로 오랫동안 아프신 몸이라 이 원정이 끝날 때까지 이겨내실지 걱정이 되었고 원정을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다. 그때 아내가 "당신이 여기 있어도 어머니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원정대는 등반대장인 당신이 없으면 힘들지 않느냐. 여기 일은 나와 형제들에게 맡기고 가서 후배들 무사히 데리고 와라."라고 말해주었다. 아침 김해 공항 가는 길에 휴대전화를 끄고 내내 울었다. 상행 카라반 중 페리체라는 곳에서 아내에게 위성 전화를 하니 어머니가 위독하니 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였다. 시가 식구들에게 많이 시달린 것 같았다. 그 뒤로 원정이 끝날 때까지 연락하지 않았다

후배들과 함께 무사히 원정을 마치는 것에 전념했다. 어머니는 내가 귀국하고 며칠 뒤 돌아 가셨다. 막내아들 얼굴 한번 보시려고 그 아픈 몸을 이겨내고 계셨을 텐데...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했다. 그 뒤로 한동안은 원정을 가지 못했다. 차마 죄스러운 짐을 쌀 수 없었다. 지금도 산에 가면 가슴이 먹먹하다.

### 5. 산에 왜 가느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산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명쾌하게 답하지 못하는 명제이리라. 조지 말로리의 “산이 거기 있어 간다”라는 유명한 명언도 ‘산에 왜 가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니었다. 때로는 좋아서, 때로는 심심해서, 때로는 설레어서, 가끔은 의무감으로, 또 가끔은 마지못해...

갈 때마다 산에 가는 이유는 참 다양하지만 ‘왜’라는 물음에 대한 근원적인 대답에는 항상 자신이 없고 머뭇거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산악회 후배인 장재용의 ‘알피니스트’라는 책을 읽어 보길 권한다. 왜’라는 물음에 대한 유명 산악인들의 고차원적인 대답과 함께 장재용 작가만의 대답을 단순 무식하게 풀어 놓았다. 그 대답에 나도 고개를 끄덕이는 중이고...

### 6. 7대륙 최고봉 중 가장 좋았던 산은?

킬리만자로. 이유는 일곱 개의 산중에서 내게는 제일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었다. 높이와 난이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트레킹 회사(해초여행사)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여행을 가듯 부담 없고 편안했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온전히 나와 함께 간 성기진 회장 두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다. 행정적 준비와 등반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산의 경치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고 킬리만자로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색다른 경험이라 기억에 남는다.



### 7. 원정 대상지로 추천하고 싶은 산과 이유는?

데날리. 대학산악부의 원정 대상지로 데날리 만 한 곳이 있을까 싶다. 앞서 언급했지만, 긴 빙하와 설벽, 암릉, 바람, 추위 등등 고산등반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 모든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해서 가야 하는 곳이다.

상업대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대원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원정대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존 대학산악부의 등반이념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 생각한다. 충분한 훈련으로 탄탄한 조직력과 팀워크를 만들어서 간다면 데날리는 힘들지만 즐거운 곳일 것이고 원정이 끝난 후에도 더욱 탄탄한 관계를 만들어 줄 것이다.

## 8. 원정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생각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를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이 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서로에게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9. 원정을 준비하는 대학산악부에 해주고 싶은 조언은?

첫째.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는 팀에게 계속하라. 세상일이 그렇듯이 원정에서도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 대상 산을 정하고 대원을 선발하고 장비와 식량 계획을 세우는 등등 원정의 모든 결정에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힘든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둘째. 조급해하지 말라. 원정 출발 날짜가 다가올 때, 베이스캠프에서 산과 처음 대면할 때, 고소증으로 힘들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만치 앞서갈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등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조급해진다. 마음이 급해지면 실수하게 되고 놓치는 것이 많아진다. 그리고 평소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원정을 출발하였다면 그때부터는 나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보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더 많다. 고소증이 그렇고 떨어진 체력도 그렇다. 안 좋은 날씨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좋아진다.

셋째 원정대에서 ‘누구 덕분에’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하지 마라. 우리 산악회 원정대에서 ‘누구 덕분에, 누구 때문에’는 ‘금지어’이다. 길면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좁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므로 온갖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많은 일들에 ‘누구 덕분에, 누구 때문에’라는 명찰을 붙이면 팀워크를 유지할 수 없다. 그냥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할 뿐이고, 내가 하지 못하거나 안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뿐이다. 누군가의 실수조차 원정대의 일이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을 때 원정을 떠나자.

## 10. 직장과의 허락은 어떻게 받았나?

직장을 다니면서 원정을 갈 때는 사직서와 휴직계를 같이 들고 상사들을 찾아다녔다. 학교 총장님과 동문회장님의 추천서도 받아서 꼭 가야 한다고 설득했었다. 회사와 상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직원을 교육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원정을 갔다 와서 일하는 것이 이익이다 싶으면 보내줄 것이다. 원정을 가고 싶으면 평소에 열심히 일하자. 우리 산악회에서도 많은 대원이 직장 생활 중에 원정을 다녀왔지만, 퇴직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사업을 하면서는 부재중의 금전적 손실이 너무 커서 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 모든 것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가족의 허락은 이해보다는 용서를 선택하였다. 힘들고 위험한 곳임을 아는 가족 입장에서는 머리로 이해하기도 힘든데 가슴으로 이해하기는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는 쪽을 선택했다. 원정을 자주 가니 점점 무뎠는지 요즘은 반대의 강도가 많이 약해졌다.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



## 11. 앞으로의 계획은?

나는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등산 이외에 특별한 취미도 없거니와 등산 자체가 마음 편하고 좋다. 다녀온 해외 원정 중에 고산등반이 많기는 하지만 암벽등반을 위해 외국에 간 적도 몇 번 있다. 봄이 되면 금정산의 암벽들을 오르고 가을이면 설악산의 어느 능선을 걷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겨울에는 빙벽에 매달려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내 친구이자 등반 파트너들과 웃으며 산에 있을 것이다. 원정 등반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세운 계획은 없다. 하지만 내년(2025년)에는 우리 산악회에서 요세미티 지역의 거벽 등반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끼워준다면 참석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마티호른을 오르고 싶다. 북벽으로 !**

## 해외원정

### 부산교대 크라비 원정 - “ 원정이 걱정되는 청춘들에게 ”

류 희 준(부산교대21)

기간: 2023/1/7~1/19(13일)

#### #1 가기 전, “고민할 시간에 뭐든 해라.”

사실, 처음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원정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2주의 시간, 돈, 고된 훈련 등 어느 하나 쉬워 보이지 않았죠. 제가 누리고 있는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이 고민을 산악부 O.B 선배님이신 김석수 선배님께서 단숨에 깨주셨습니다. “일단 하라. 가만히 있기엔 청춘이 아깝지 않느냐”. 팔공산 정상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무엇인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주저하느라 지나가 버린 시간과 기회들이 떠오르며, 이번 원정마저 놓치면 제 삶에서 큰 후회를 만들 것이라 느꼈습니다. 크라비에 가서 고생했고 힘들었지만, 행복했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삶이 행복하다고 그것에 안주하여 도전하

지 않는다면 우물 속의 개구리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이 글을 쓰는 이유 역시 이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기엔 이 청춘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라이온킹(5.11c) 앞에서 등반 준비하는 대원들

#### #2 출국,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우린 버티며 나아간다.

새벽 3시 40분에 집을 나와 6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저가 항공을 택한 탓에 비좁은 좌석에서 5시간을 버티야 했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경유해야만 크라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잠을 청해도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몇 번이나 뒤척여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던 선배님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무사히 하노이에 도착, 경유하여 방콕공항에 온 그 순간 전광판에 우리가 타야 할 크라비행 비행기가 이륙한다는 문구가 떠있었습니다. 연이은 연착과 항공사와 에이전시 간의 문제로 우리는 그날의 마지막 크라비행 비행기를 놓친 채 방콕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는 선배님들을 보며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영어에 유창한 정유라 대원의 활약으로 무상으로 다음 날 오전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었고, 얼떨결에 생긴 방콕에서의 밤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먹었던 치킨. 크라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3 크라비-Tyrolean Wall, 세상은 넓디넓고 나는 작디작다.

한국의 암벽만 보았던 저에게 크라비의 암벽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제 시야의 배경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올라가야 한다니. 마치 카페의 벽을 타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과 같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웅장한 모습과 짜릿한 높이를 보고 느낀 경외심은 곧 설렘과 기대로 변했고, 이는 곧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크라비의 벽은 강했고, 저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부산에 비해 너무 미끄러운 이곳의 암질은 제게 5.10b 루트도 후등으로 겨우 올라갈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첫날에 간 곳은 웬만하면 5.11대가 넘어가는 루트들이 즐비한 곳이라 이제 막 5.11a를 선등한 저에게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국에서 훈련하면서 자신감이 오를 대로 올랐던 만큼 좌절은 컸고, 첫날 일정이 다 끝나고 든 생각은 “앞으로 남은 2주 일을 어떻게 버티지” 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찌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우린 버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을. 저는 이내 마음을 고쳐 잡았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최대한 즐기자.” 등급을 올리려는 생각을 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고 2주밖에 없는 짧은 시간 동안 이곳을 최대한 즐기고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마음가짐 덕분인지 저는 돌아갈 때 5.11c 선등에 성공하고 후회 없이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Fire Wall에서 본 크라비 해변 전경

#### #4 크라비-Fire Wall, 암벽의 50가지 매력

크라비에 도착한 지 이틀째부터 물갈이 때문에 숙소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원정 4일 차 오후 부터 다시 등반에 도전했습니다. 이날은 O.B 최민수 선배님께서 저를 위해 Fire Wall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이곳은 선착장에서 가장 가까운 벽으로 지대가 높아서 탑에서 섬 전체가 다 보이는 절경을 자랑합니다. 암벽 중간에 커다란 동굴이 있는데, 굴에 거꾸로 매달렸다가 빠져나오는 이색적인 루트가 인상적이었지만 5.13b의 등급을 자랑하기에 저는 감히 쳐다만 봤습니다. 이곳은 5.10대의 루트도 제법 있어 행복하게 등반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첫 선등으로 “BoO.B tube” 루트를 올랐습니다. 구멍을 통과하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침니를 사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루트입니다. 제가 암벽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야입니다. 암벽 위에 올라서서 뒤를 돌아보면 일상에서 마주하는 풍경을 색다른 시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날 제 시야에 들어온 건 진한 주황빛의 석양과 넓게 펼쳐진 동남아의 바다였습니다.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은 이 아름다움을 글로 다 전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때 핸드폰을 들고 가지 못한 점입니다.

#### #5 크라비-Phranang Beach, 하루 만에 5.11a에서 5.11c까지

크라비 원정 10일 차, 그동안 ‘오전 등반-아침-오전 등반(2)-점심-오후 등반-휴식-오후 등반(2)-저녁’의 루틴으로 열심히 등반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정유라 대원은 조금씩 크라비의 암벽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휴식 겸 새로운 암벽등반을 위해 프랑낭 비치로 이동했습니다

다. 이곳에서 저는 5.11b 'Little shit'과 5.11c 'Princess Eyes'를 등반했습니다. 두 루트 다 오버행에 맨틀링 동작이 섞인 루트였습니다. 대신 루트가 짧았고 맨틀링만 성공하면 될 것 같아 보였기에 지구력이 부족한 대신 파워가 있는 저에게 최적의 루트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처음 올라갈 때는 아직 등급을 올리기에 부족한 실력이라 생각하고 경험을 쌓고자 했는데, 막상 올라가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도전 의식이 강하게 불타올랐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Princess Eyes'루트를 완등하기 위해 발 위치와 손가락의 위치, 킥 거는 타이밍을 모조리 외웠습니다. 그만큼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꽤 위험한 루트입니다. 크릭스 구간의 킥과 킥 사이에 테라스가 있어서 크릭스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대로 스윙해서 벽에 부딪히기 쉬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높이도 낮아서 다이내믹 빌레이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루트를 할 땐 꼭 벽에 부딪히는 대비를 하고 오르길 바랍니다.

## #6 마치며

크라비 원정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이기가 부끄러울 만큼 이곳에서의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의식주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제가 좋아하는 등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초심자들이 해외로 첫발을 내딛기 좋다는 뜻이겠지요. 해외 원정이 두렵고, 내가 가진 삶을 내려놓기 부담되는 청춘들에게 자신 있게 한마디 던져봅니다. “일단 하라. 가만히 있기엔 청춘이 아깝지 않느냐.”

## 크라비의 노을 - 크라비 원정을 위한 Tip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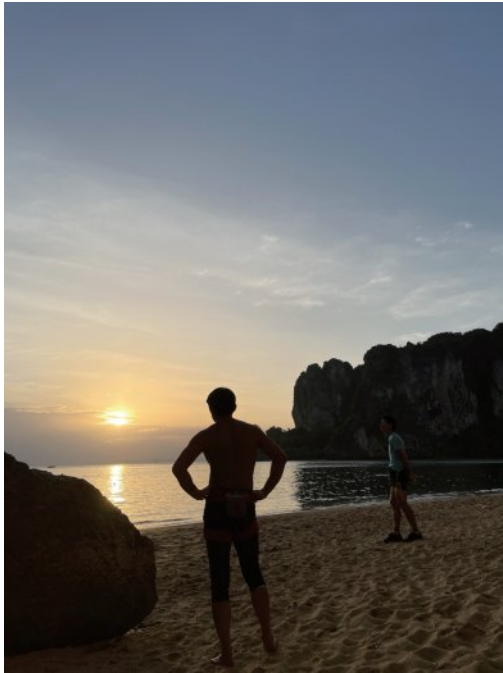
### 정 유 라(부산교대21)

저는 크라비로 등반을 갈 때 준비하면 좋은 물건과, 준비하면 좋은 마음가짐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 준비하면 좋은 물건

##### 1) 아쿠아슈즈

크라비에서 주로 밟는 것들은 모래와 흙입니다. 크록스는 흙이 들어가면 잘 빠지지 않고, 슬리퍼는 발에 힘을 주고 걸어야 해서 피로도가 높습니다. 특히 저희는 툰사이와 라일레이 사이를 이동할 때 밑발 시간에 바닷길을 통해 갔는데, 슬리퍼를 신으니, 발에 피로도 쌓이고 바위가 미끄러워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슈즈를 신으니 어느 정도 접지력이 있어서 좋았고, 발안으로 모래가 잘 들어가지 않아 좋았습니다. 샌들을 추천하는 사람도 많으니, 본인에게 맞는 걸 하나 구매하셔서 갖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 2) 구둣솔

모래시장에서 빌레이를 보다가 등반 준비를 할 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바로 발에 묻은 모래였습니다. 처음엔 모래를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암벽화를 신었는데, 짝 조이는 암벽화를 신고 발을 던자마자 느껴지는 뽀족한 모래의 고통에 바로 하강하고 암벽화를 벗어 모래를 털었습니다. 바다의 습기를 머금은 모래 때문에 맨손으로는 털기가 힘들었고, 선배님의 구둣솔을 빌리니 쉽게 모래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구둣솔이 없다면 클라이밍 브러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 3) 빨랫줄

톤사이 곳곳에 빨래를 해주는 가게가 있지만, 별이 잘 들기 때문에 보통은 직접 손빨래해서 밖에 널어둡니다. 그런데 빨랫줄을 가져가지 않으니, 빨래를 그냥 난간에

에 널어둬야 해서 찢찢하기도 했고 원하는 위치에 빨래를 널 수 없었습니다. 빨랫줄과 함께 세탁소 옷걸이를 챙겨갔다면 좀 더 쾌적한 건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은 웬만하면 건조가 빨리 되는 기능성 옷으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 4) 베타스틱

정확한 용어를 찾지 못했습니다만 보통 “작대기”라고 불리는, 퀵드로우를 걸거나 제거할 때 쓰이는 장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트랑고에서 베타스틱에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네요) 적응하기 쉽지 않은 미끈거리는 암질에, 처음 오르는 루트라면 추락과 부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두 번째 퀵까지는 걸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임성이 좋다면 주변 사람에게 장대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며 친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준비하면 좋은 마음가짐

### 1) 겸손

겸손은 등반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지만, 특히나 해외 원정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라비로 가기 전에 5.11b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하고 갔기 때문에 크라비에서 11c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했는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크라비의 석회암 암질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던 저는 5.10b,c 루트도 겨우 올랐습니다. 게다가 아킬레

스건에 문제가 있어서 한쪽은 초급화를 신었더니 접지력이 좋지 않아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신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자신감도 점점 떨어졌고, 그로 인해 초반에 등반을 전혀 즐기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11c라는 높은 목표를 잡은 오만함 때문에 기대가 커지니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엔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위 자체를 즐기겠다는 태도로 다시 툄사이에 가고 싶습니다.

Princess Eyes(5.11c)를 선등하는 류희준 대원2.



## 2) 포기할 수 있는 용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가서 11대의 루트를 선 등해 보고 싶다는 조급함에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킱을 지나 두 번째 킱으로 가는 길에 맨틀링 동작이 있었고, 킱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위험한 루트였으나 조급하게 밀어붙이다가 추락했습니다. 추락 과정에서 벽에 발을 세게 부딪치는 바람에 나머지 기간 등반을 하지 못해서 정말 속상했고, 성취보다는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3) 불임성

툄사이에 있는 외국인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만약 불임성이 좋고 영어 울렁증이 없었다면 많은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왔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가 오를 루트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물어보고, 필요한 장비를 빌리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올 기회였는데 말이지요. 그래도 다행히 원정의 마지막쯤엔 용기를 내서 일본인들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어서 친해질 수 있었는데, 그 경험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자연 암벽은 무엇인지, 일본에서는 “가자”를 뭐라고 하는지, 일본의 등반 문화는 어떤지 등등...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혹시 해외 원정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불임성 있게 외국인들에게 말을 걸어보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크라비는 클라이머들에게 천국 같은 곳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좋은 사람들도, 멋진 풍경도

있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주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 보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만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등반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있으시다면, 몇 주 정도 시간을 내어 크라비 등반을 꼭 추천드립니다.



Tiger Queen(5.12b) 선등 중인 최민수 대원

## 영호남 합동산행 참가기

김민주(경성대21)

6월 4일 영호남 학생산악연맹 합동 산행으로 부산, 광주, 대구 연맹 소속 학생들과 함께 팔공산을 등산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사람들과의 산행이 아닌 다른 지역 학생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집 근처 동네 뒷산을 걸었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든 산을 등산하게 된다는 생각에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다양한 지역의 학생분들과 어울려 산을 오른다는 것이 생각보다 힘이 되었고 덕분에 더 힘차게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0명 정도 되는 학생분들과 줄을 지어 올라가는 산을 오르는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은 영호남 합동 산행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산행을 잘하지 않았던 저는 실수로 신발을 러닝화를 신고 오게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팔공산과 같이 바위가 많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하는 곳에는 등산화는 신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러닝화를 신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은 러닝화는 올라가는 길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도 길이 미끄러워 여러 번 넘어질 뻔한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산을 오르던 다른 지역의 학생분들이 괜찮냐는 말과 함께 혹시나 많이 힘들지는 않은지를 물어보아 주며 조심하라고 챙겨주는 모습에 많은 감동하였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써주는 마음을 보며 저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 정상상을 향해 갈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학생분들뿐만 아니라라도 같은 부산지역의 학생분들도 가는 길에 혼자 쉬고 있는 학생이 있으며 스스럼없이 먼저 다가와 얘기하며 같이 정상상을 향해 올

라가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을 정도로 영호남 학생산악연맹의 화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챙겨주는 연맹분들 덕분에 그 힘든 팔공산의 동봉 정상을 즐겁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동봉 정상에 도착하고 난 뒤의 풍경은 푸르고 진한 나무들이 뺨뺨하게 있는 모습이 속이 시원해질 정도로 예쁜 풍경이었습니다. 경성대 학생과 정상 기념사진을 찍고 치킨마요 덮밥을 같이 올랐던 연맹 학생분들과 먹으면서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영호남 합동 산행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신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것이 힘이 되고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영호남 학생산악연맹 분들에게 감사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김 태 형(부경대23)

2023년 6월 4일에 영호남 합동 등반에 참여하였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산에 오른 것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산에 오른다는 생각에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산악부에 들어간 지도 일주일도 채 안 되어서 모두가 처음이었고 어색했다. 하지만 산엘 같이 오른 분들이 말도 걸어주시고 어색하지 않게 해주셔서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대구에 있는 팔공산까지 갈 수 있었다. 팔공산에 도착하여 버스에 내려서 출발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산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처음 오르기 시작하였을 때는 산을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되게 힘들다고 느껴졌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편하게 올라갔다. 오르는 길에 오소리도 처음으로 보았다. 그렇게 오르고 쉬고를 반복하면서 계속 가다 보니 정상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또다시 오르다 보니 정상에 도착하였다. 정상에 도착하니 탁 트인 경치가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았고 성취감도 느꼈다.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영호남 합동 등반에 참여하기를 잘했다.



## 히말라야 피케피크 트레킹

하 태 응(인제대88)

대한산악연맹 이사회가 끝나고 손중호 회장님이 임원들 히말라야 트레킹을 추진하자고 이기열 이사가 알려주길래. 솔깃하여 회장님께 여쭙보니 상근부회장인 이의재형님이 네팔에 거주할 때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멋진 코스가 있다고 알려줘서 가보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일도 고민 없이 신청하였다. 십여 년 전 랑탕히말 이후 다시 히말라야의 품 안으로 가기로 했다. 우리의 대상지는 트레커들에게 유명한 ABC나 EBC가 아니라 아직 덜 알려진 피케피크(Pikey, Peekye Peak)로 정했다.

회장님이 가시길래 임원들이 많이 참가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결정하니 여러 사정이 있어서 인지 회장님 지인들과 나, 이렇게 4명으로 단출하였다. 나를 제외하고는 대전 근교에 계셔서 출발 전에 대전역 근처에서 미리 인사를 드렸다. 티켓팅을 해준 이기열 이사의 고향 동생이자 여행사 대표인 서민호 사장과도 인사를 나눴다. 내가 제일 어려 총무를 맡게 되었다.



나는 인천 출발이라 부산에서 김포로 가 인천공항에서 대전에서 올라오는 일행들을 11시에 만나기로 해서 새벽에 집을 나섰다. 김포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카트만두행 비행기가 연착이란다. 괜히 새벽잠 설쳤다. 각자 불일을 보고 라운지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수화물 검사장으로 호출한다. 회장님 명의의 카고백에서 보조배터리가 나왔는데 회장님 지인분의 배터리였다. 배터리를 회수하고 연착된 비행기를 기다리다 탑승구로 향했다.

약 7시간의 비행 후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서민호 사장이 카트만두에 도착하면 현지 대

행사인 SORA ADVENTURE(<https://soraadventure.com/>)의 Ngawa Ngima Sherpa 사장이 우리를 안내할 거라 했는데 면세구역에서 보이지 않았다. 결국 우리 팀이 맨 마지막으로 앱으로 등록하고 비자를 발급받고 나오려는데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비자비로 계속 한국 돈을 요구한다. 나는 미리 알고 있어서 없다고 딱 잡아땀다. 하지만 발급할 때까지도 한국 돈타령이다. 환차손이 쓸쓸하다고 들었는데 공무원이 저러니 이 나라의 앞일도 걱정이다.

저녁을 먹기 위해 니마가 운영하는 서울집으로 갔다. 니마가 한국에 왔을 때 잠시 인사를 나눴는데 정말 대단한 친구다. 젊었을 때 한국과 일본에서 노동자로 돈을 벌어 고국으로 돌아와 번듯한 식당을 열고 트레킹회사를 차려 नेपाल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가로 우뚝 섰다. 둘째 날 지프로 카트만두에서 출발하여 트레킹 들머리인 자프레(2930m)까지 가야 한다. 11시간이나 걸리는 여정이다. 포장된 길을 가다가도 비포장이 나오고, 다리가 없어 강 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고난의 연속이다.



Mountain Sherpa Home 루트 직전의 강바닥으로 도로가 있다



Mountain Sherpa Home의 달빔

셋째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약간의 고소증세가 나타난다. 그래도 식사는 맛있게 잘 먹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하는 날이다. 오늘의 목적지는 불부레(3,360m)까지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임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간다. 중간중간 नेपाल의 국화인 랄리구라스가 지천이다. 트레

킹 코스에는 정말 드문드문 사람이 보일 뿐이다. 조용해서 너무 좋다.



불부레 롯지 앞에 텐트를 치고 막영을 하기로 했다. 오후 시간이 남아 불부레 롯지 뒷동산에 오르기로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5월에 오면 야생화가 지천이었는데 시기가 좀 빨라 아쉬웠다. 회장님과 언덕에 앉아 히말라야를 감상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불부레 롯지

넷째 날. 오늘은 피케피크 베이스캠프(3760m)까지 가는 일정이다. 고도도 많이 올라야 되고 거리상으로도 꽤 먼 거리이다. 오늘부터는 하루 일정이 아주 빡빡하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중간중간 셰르파들의 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멀리 보이는 능선을

바라보며 끝도 없이 펼쳐진 히말라야산맥을 바라보며 한참을 걷는다.



불부레 롯지 위 임도

오늘 목을 상그릴라 롯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반갑다. 롯지에 도착하니 새로 지은 건물처럼 깨끗하고 무엇보다 화장실이 룸 안에 있어서 너무 좋다.



베이스캠프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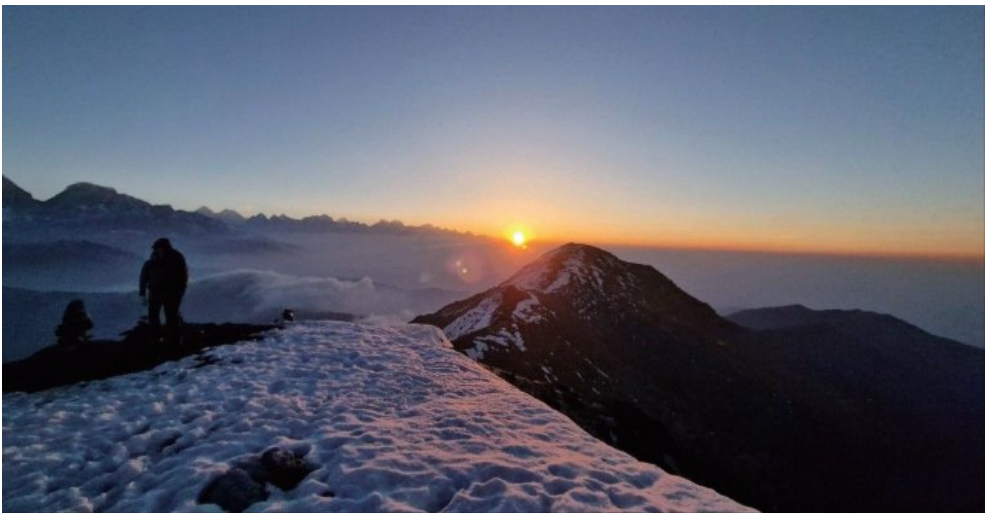
정상 공격 날이다. 새벽 4시 기상이다. 어젯밤은 정말 한숨도 못 잔 것 같다. 긴장을 많이 했나 조금 걱정이다. 회장님을 잘 모셔야 하는데 내가 약해지면 안 되니 정신줄을 잡았다. 잠을 못 잔 것 치고는 운행에 지장이 없다. 평소 페이스대로 잘 걸어진다. 아직 날이 어두워 랜턴 배터리가 조금 빨리 소진되는 느낌이다. 눈이 크러스트된 곳에서 등산로를 잃어버려 조금 헤맸지만 오른쪽 등산로에서 올라오는 랜턴 불빛을 보고 길을 잡았다. 오른쪽 능선에는 잘 닦인 길이 있었다.



피케피크 정상

한참 걸려 툽다가 걸린 정상에 도착하였는데 아직 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네팔인들이 신성시하는 산이라 그런지 정상에 꽤 넓은 제단같은 곳이 설치되어 있었다. 외국인들이 제단위로 올라가니 네팔인들이 만류한다.

정상은 바람도 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네팔 새해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리니 네팔 새해가 밝았다. 에베레스트 뒤로, 네팔 달력으로 2800년 새해가 밝았다. 나도 이번이 알았다. 네팔은 2800년이 시작되었단다. 모든 네팔인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정상의 일출-마칼루 쪽에서 솟아난다



피케피크에서 대한민국 산악계의 발전을 응원



장엄한 히말라야산맥

대학산악부를 하면서 항상 꿈꿔왔던 흰 산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기쁨이 배가되었다. 여담으로 정치 성향도 여당 야당 중도로 다양해 밤늦도록 토론한다고 재미도 있었다. 또 트레킹 중간중간 텐트 생활을 하였는데 손중호 회장님의 자세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지 않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얼마나 원정을 다니셨는지 아직도 몸에 배어 텐트 안 카고 정리가 칼 같으셨다. 배울 점이 정말 많았다.

귀국하고 나서도 한동안 히말라야의 능선이 눈앞에 아련했다. 또 한해 열심히 일해서 다시 배낭을 꾸려야 하겠다.



[ 히말라야 피케피크 트레킹 이동경로 ]

부산 - 김포 - 인천 - 카트만두

Kathmandu - Jhapre

Jhapre - Bhulbhule

Bhulbhule - Pikey base camp

Peekye Shangri la Lodge - Pikey Peak - Bhulbhule

Bhulbhule - Patle

Patle - Kathmandu

Kathmandu - 인천 - 부산

## B.F.C 22 B.S.A.A Fun Climbing School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하계반) 보고서



2022년 5월 1일 ~ 21일(매주 주말)



## 1. 개요

- 1) 명 칭: B.F.C 22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하계반)
- 2) 대상지: 금정산 일원 및 동래인공암장
- 3) 일 시: 2022년 5월 1일 ~ 21일(매주 주말)
- 4) 목 적
  - ① 단결·인내·안전을 통한 바람직한 대학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 ② 암벽등반에 대한 올바른 등반지식과 기술을 연마
  - ③ 대학 산악부원으로서의 자긍심 공유
  - ④ OB·YB 합동 등반을 통한 학산 선후배 간의 기술 교류

## 2. 참가명단

### 2-1. 임원 및 강사 명단

직위	이름	연락처
교장	박민호	010-9556-8038
학감	하태웅	010-9637-8848
책임 강사	김지성	010-3579-3392
강사	정경두	010-4858-2481
강사	임동한	010-9418-8848
강사	백광윤	010-7475-4414
기획	김병진	010-7227-2678

### 2-2. 보조강사

순번	학교	학번	이름	성별	혈액형	연락처
1	부산대	18	김재영	남	O	010-9047-2187
2	부산대	20	김도연	남	B	010-5537-6825
3	부산대	21	도민식	남	A	010-5213-1873
4	춘해보건대	19	정민욱	남	O	010-5112-4649
5	동아대	18	조현세	남	A	010-4242-5876
6	동아대	19	이호선	남	A	010-9896-6727
7	동아대	20	김민재	남	A	010-3558-4588
8	동아대	20	조현범	남	B	010-6652-3913
9	부산교대	21	김소중	남	O	010-6676-1683
10	부산교대	21	정유라	여	O	010-9039-8342
11	부산교대	21	권용하	남	A	010-6201-5054
12	부산교대	21	류희준	남	O	010-8423-8084
13	동의대	16	박준형	남	AB	010-4905-2957
14	동의대	18	김동현	남	B	010-3830-5643
15	동의대	19	조상희	여	B	010-4473-7554
16	동의대	19	최연정	여	B	010-4506-6244

### 2-3. 교육생 명단

순번	소속학교	학번	이름	성별	혈액형	연락처
1	동의대	21	윤성민	남	B	010-6399-8970
2	동의대	21	김도현	남	A	010-7641-0426
3	동의대	22	장강현	남	B	010-6806-9048
4	부산대	21	문정현	여	A	010-9931-2319
5	부산대	22	구재경	여	AB	010-5412-0117
6	부산대	22	권준원	남	O	010-5440-7638
7	부산대	22	박수완	여	O	010-3047-2048
8	부산대	22	전재현	남	B	010-9515-7124
9	부산대	22	정영호	남	O	010-9470-5809
10	부산대	21	제원석	남	B	010-9125-5830
11	동의과학대	21	정세윤	여	A	010-2395-5436
12	동의과학대	19	노형근	남	B	010-8652-8340
13	동의과학대	18	이주호	남	A	010-7541-6994
14	경성대	19	박건우	남	B	010-4576-4843
15	춘해보건대	22	김관욱	남	O	010-3951-3289
16	춘해보건대	22	박진솔	여	A	010-3956-4497
17	춘해보건대	22	원수웅	남	A	010-5847-6545
18	춘해보건대	22	이광훈	남	O	010-3027-0310
19	춘해보건대	22	최민기	남	A	010-4941-1837
20	춘해보건대	22	최성범	남	A	010-9856-0726
21	동아대	21	이수지	여	A	010-5356-7299
22	동아대	22	여정윤	여	A	010-2102-7971
23	동아대	22	김정현	남	O	010-5447-1403
24	부산교대	22	김성주	남	AB	010-4613-2169
25	부산교대	21	정현아	여	B	010-7579-3532
26	한국해양대	21	강혁준	남	AB	010-2899-0751
27	한국해양대	21	김나영	여	A	010-8725-1529
28	한국해양대	21	오지은	여	B	010-7159-4548
29	한국해양대	21	신우현	남	A	010-5801-5006
30	한국해양대	21	이선호	남	B	010-4335-3855
31	한국해양대	22	유호준	남	B	010-6531-5278
32	한국해양대	21	전현민	남	AB	010-6671-3675
33	한국해양대	21	박예찬	남	AB	010-5778-9401
34	동주대	22	정우현	여	B	010-6266-8348
35	동주대	22	김지한	남	O	010-7209-3710
36	동주대	22	조현준	남	A	010-4162-0165

### 3. 등산학교 입교식

- 개회사(사회-김병진)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생략)
  -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산악인에 대한 묵념
- 산악인의 백자 선서 - 학생장 이주호
- 내외빈 소개
- 교장선생님 인사말 - 박민호
- 축사
- 감사임명장 수여(박민호) - 정경두
- 감사 소개 - 하태웅
- 폐회



### 4. 운행 보고

#### 4-1. 1주차 교육

- 1)일 시: 2022년 5월 1일(일)
- 2)대 상 지: 준행암
- 3)참 석: 강사 18명, 교육생 35명
- 4)교육내용: ① 교육생 장비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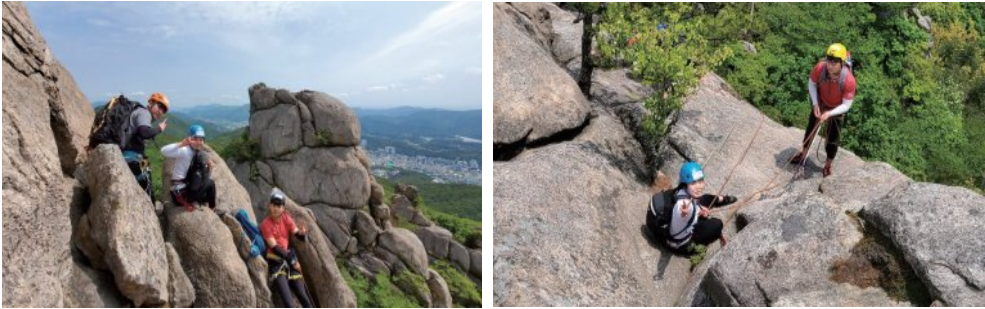
- ② 교육생 장비착용법
- ③ 각 대학 보유 장비 점검
- ④ 매듭법/ 캠 사용법/ 확보법/ 슬랩 등반/ 하강법



#### 4-2. 2주차 교육

- 1)일 시: 2022년 5월 8일(일)
- 2)대 상 지: 무명릿지
- 3)참 석: 강사 17명, 교육생 23명
- 4)교육내용: ① 후등자 빌레이  
② 캠 사용법  
③ 멀티피치 등반  
④ 런닝빌레이  
⑤ 점프





### 4-3. 3주차 교육

- 1)일 시: 2022년 5월 14일 ~ 15일(1박 2일)
- 2)대 상 지: 다목적 광장/ 나비암 일원
- 3)참 석: 강사 5명, 교육생 17명
- 4)교육내용: ① 독도법 교육 및 실전 경기  
 ② 비박 훈련  
 ③ 침니 등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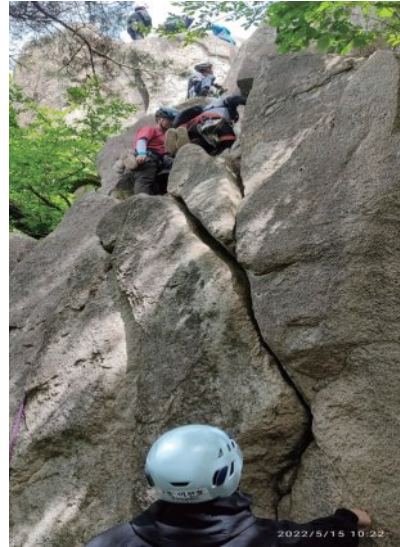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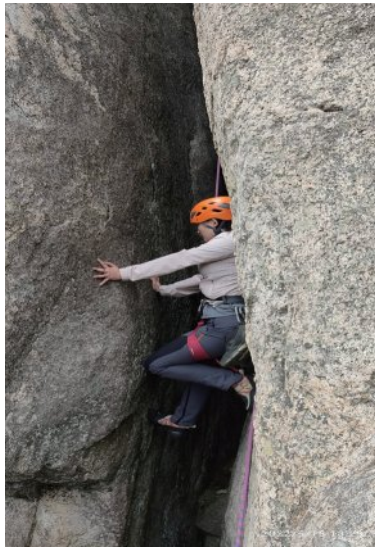
독도법훈련



비박훈련



나비암 등반훈련



4-4. 4주차 교육

- 1)일 시: 2022년 5월 21일(토)
- 2)대 상 지: 동래 인공암장
- 3)참 석: 강사 12명, 교육생 29명
- 4)교육내용: ① 인공암벽등반  
② 주마 훈련  
③ 선등 훈련  
④ 확보법  
⑤ 응급처치법(삼각건/ 테이핑)

응급처치



주마링





## 5. 수료식 - 5월 21일 토요일 오후4시 동래인공암장

- 개회사(사회-김병진)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생략)
  -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산악인에 대한 묵념

- 산악인의 백자 선서 - 구재경(부산대22)
- 내빈 소개(사회자)
- 감사패 증정(박민호->조광제)
- 장학증서 전달(포럼 회장->김소중 재학생회장)
- 등산학교 지원금 전달(서성호 기념사업회->박민호)
- 등산학교 지원금 전달(골프회->박민호)
- 교장 인사말 - 박민호
- 축사
- 시상식
  - OL 우수상(정경두 시상->권준원, 정영호, 이선호, 유호준, 권용하)
  - 참가상(임동한 시상->이주호(학생장 대표자 1명))
  - 개근상(박민호 시상->윤성민, 김도현, 장강현, 박수완, 전재현, 유호준, 정영호, 제원석, 박건우, 이광훈)
- 교육생 소감(남-박건우, 여-박수완) : 개근상 수상자
- 우수강사상(정경두 시상->조현범)
- 교육 총평(정경두)
- 폐회
- 기념 촬영





## 6. 회계보고

### 6-1. 수입 및 지출 총괄

계 정	내 용	수 입	지 출	비 고
교육생 참가비	등산학교 교육생 참가비 (₩30,000원 / 총 37명)	1,110,000		상세내역 참조
외부 지원금	(사) 서성호 기념사업회	1,000,000		
	(사) 부산산악포럼 특별 장학금	1,000,000		
	부산학생산악연맹 골프회	500,000		
찬조금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원단체 및 회원 찬조금	3,700,000		상세내역 참조
등산학교 운영비	현수막 제작 외 행사준비 지출		4,493,760	상세내역 참조
강사식대지원	강사 점심, 저녁식사 지원		625,850	상세내역 참조
장학금	(사) 부산산악포럼 특별 장학금 지급		1,000,000	부산교대 김소중
기 타	등산학교 보험 환급	3,300		2주차 보험 환급(2명)
합 계		7,313,300	6,119,610	

### 6-2. 상세내역

구분 월 일	계 정	적 요	수입	지출	비고	
						4 10
	11	교육생 참가비	박건우	30,000		
	13	교육생 참가비	구재경	30,000		
	17	교육생 참가비	권준원	30,000		
	17	교육생 참가비	최현정	30,000		
	17	교육생 참가비	여정윤	30,000		
	17	교육생 참가비	이수지	30,000		

17	교육생 참가비	김성주	30,000		
17	교육생 참가비	정현아	30,000		
19	교육생 참가비	윤성민,김도현,장강현	90,000		
19	교육생 참가비	전재현	30,000		
21	등산학교 운영비	등산학교 타차츠 잔금(60%)		455,500	13,000원×70장
25	찬조금	정지택 고문	500,000		
25	찬조금	동아대(82) 유영근	100,000		
25	외부지원금	(사)서성호기념사업회	1,000,000		
25	찬조금	동아대(85) 성기진	300,000		
26	찬조금	해양대 OB산악회	500,000		
27	찬조금	부산교대(75) 이동본	100,000		
27	찬조금	부산대 OB산악회	200,000		
28	찬조금	동아대(88) 조벽래	100,000		
28	등산학교 운영비	현수막제작대소 각 1개		65,500	
28	찬조금	경남정보대(77) 이상헌	100,000		
28	등산학교 운영비	등산학교 타차츠 잔금(60%)		455,500	
28	교육생 참가비	박진솔	30,000		
28	교육생 참가비	원수웅	30,000		
28	교육생 참가비	제원석	30,000		
28	교육생 참가비	유호준	30,000		
28	교육생 참가비	이선호	30,000		
28	교육생 참가비	전현민	30,000		
28	교육생 참가비	정세윤	30,000		
28	찬조금	동주대(88) 정인숙	100,000		
28	교육생 참가비	최성범	30,000		
29	교육생 참가비	박예찬	30,000		
29	찬조금	동주대 OB산악회	100,000		
29	교육생 참가비	정형호	30,000		
29	교육생 참가비	노형근	30,000		
30	교육생 참가비	김나영	30,000		
30	교육생 참가비	오지은	30,000		
30	교육생 참가비	이광훈	30,000		
30	교육생 참가비	강혁준	30,000		
30	교육생 참가비	신우현	30,000		
30	등산학교 운영비	강사임명장 준비		9,980	다이소, 협성문구



	30	교육생 참가비	이주호	30,000		
5	1	찬조금	정민규 고문	100,000		
	1	강사식대지원	김밥 (50줄)		100,000	강사 중식 지원
	1	등산학교 운영비	교육생 보험료		59,400	교육생만 가입
	1	강사식대지원	1주차 강사 저녁식사		191,000	장가계
	2	교육생 참가비	김관욱	30,000		
	2	교육생 참가비	김정현	30,000		
	2	교육생 참가비	박수완	30,000		
	2	교육생 참가비	최민기	30,000		
	2	교육생 참가비	정우현	30,000		동주대 지도교수
	2	교육생 참가비	김지한	30,000		김성주 교수
	2	교육생 참가비	조현준	30,000		대남
	4	등산학교 운영비	등산학교 2주차 강사보험		31,850	19명 가입
	4	등산학교 운영비	등산학교 2주차 교육생보험		61,050	37명 가입
	6	찬조금	동아대(85) 백진국	100,000		
	6	등산학교 운영비	등산학교 2주차 강사보험		2,150	1명 추가가입
	7	외부지원금	부산학생산악연맹 골프회	500,000		
	8	강사식대지원	김밥 (30줄)		60,000	강사 중식 지원
	8	강사식대지원	2주차 강사 저녁식사		134,000	행복돼지국밥
	8	등산학교 운영비	약기 제작		50,000	약기 2장 제작
5	11	기타	2주차 보험금 환급	3,300		보험금 2명분
5	13	등산학교 운영비	등산학교 2주차 보험 가입		43,400	강사, 교육생
	14	등산학교 운영비	교육생 강사 고기 구입		175,500	
	14	등산학교 운영비	교육생 강사 주류 구입		17,150	소주 7병
	14	등산학교 운영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3,300	3장
	14	강사식대지원	강사 간식 지원		27,850	코스트코
	14	등산학교 운영비	3주차 OL 강사료		200,500	
	15	강사식대지원	3주차 강사 저녁식사		113,000	동운반점
	16	등산학교 운영비	수료식 선물 구입		1,290,500	
	16	찬조금	부산대(92) 정영훈	200,000		
	16	찬조금	윤계욱	100,000		
	17	찬조금	경성대(92) 이정호	200,000		
	20	등산학교 운영비	감사패 제작		50,500	전임회장
	20	등산학교 운영비	우수강사 상품권 구입		100,000	우수강사 조현범
	21	찬조금	박민호 회장	500,000		

21	찬조금	부산대(82) 김규태	100,000		
21	등산학교 운영비	수료식 물음표 얇음 구입		55,080	신마트
21	등산학교 운영비	강사 중식 구입(김밥)		75,900	김밥일번지
21	등산학교 운영비	교육생 점심 지원(빵)		175,000	
21	등산학교 운영비	동래인공암장 사용료		58,000	동래구청
21	외부지원금	특별장학금	1,000,000		(사)부산산악포럼
21	장학금	특별장학금 지급		1,000,000	부산교대 김소중
23	등산학교 운영비	교육생 병원지급비 지원		45,000	동주대(22) 조현준
23	등산학교 운영비	수료식 뒷풀이		512,000	밀양삼대국밥
23	등산학교 운영비	강사비 지급(김지성)		100,000	
23	찬조금	부산대 김지성	100,000		
23	등산학교 운영비	강사비 지급(정경두)		100,000	
23	찬조금	동의과학대 정경두	100,000		
30	등산학교 운영비	강사비 지급(하태웅)		100,000	
30	찬조금	하태웅부회장	100,000		
30	등산학교 운영비	강사비 지급(임동한)		100,500	
30	등산학교 운영비	강사비 지급(최준백)		100,500	
합 계			7,313,300	6,119,610	

\*물품 참조

박민호 회장 - 생수 60병

## 7. 등산학교 참가기

### 동의과학대학교 21 정세윤

올해가 아니라면 앞으로 할 기회가 없을 거 같아 장비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였습니다. 등산학교 입교까지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OB 선배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다행히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 암벽이 처음이기도 했고, 기초 체력이 매우 부족한지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강사님과 보조 강사님들께서 옆에서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1주 차에 금정산을 오르면서 한참을 이게 맞을까? 진짜 쓰러질 거 같은 데 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가방 없이 맨몸으로 가도 벽찬 금정산을 장비 가득한 가방을 들고 오르는 건 저에게 꽤 큰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숨이 차서 죽을 거 같다 생각이 드는 시점에 암벽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옥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발은 자꾸 미끄러지고 손에는 힘이 안 들어가고, 삼십분가량을 암벽에 매달려 있었고 절대 끝까지

못 올라갈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아래 사람들의 응원과 조언에 도저히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끝을 찍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고 얼른 하강하고 싶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힘듦으로 공포를 잊었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은 거 같아 기분이 정말 좋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 하강 연습을 두 번 했는데 조장님인 제원석오빠가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사람들의 응원과 포기하지 말란 말이 없었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거 같습니다. 처음 장비를 챙길 땐 매칭도 못 시키고 용도도 몰랐는데 암벽을 타고 배우면서 자연스레 친해진 거 같습니다. 무명릿지 등반 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껴져서인지 아찔함과 짜릿함을 동시에 느꼈던 거 같습니다. 무명릿지를 타면서 자연 암벽이 재밌는 거구나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주차를 거듭할수록 동기가 생기는 것도 신기했고, 산에서 먹는 도시락도 참 맛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고 감사님, 보조감사님, 동기들, 조장님!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많이 배우고 즐기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

### 춘해보건대학교 22 원수웅

이번에 동아리에 가입하여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암벽등반을 해봤는데 솔직히 재밌는 거보다 힘들었고 암벽도 높이도 그렇고 생각한 거보다 너무 달라서 내가 할 수 있을 까란 생각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론 여러 학교의 학생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친해진 분도 있어서 힘든 만큼 얻은 것도 많은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기회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경성대학교 19 박건우

군대를 갔다 오니 장비와 산악에 대한 기초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등산학교를 통해 장비를 다루는 법 등반 기초 등등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행암, 무명릿지, 독도법, 비박 훈련, 나비암릿지, 동래 인공암벽까지 재밌고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단대로 돌아가면 후배들에게 댄 건 몰라도 등산학교만이라도 참여하라고 권유할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개교식부터 수료까지 다친 사람 없이 잘 마무리돼서 다행입니다. 등산학교에 힘을 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동의대학교 22 장강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의대학교 22학번 장강현입니다! 최근에 클라이밍을 접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번 배워보고 안전하게 즐겨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도중 동아리 선배님들이 등산학교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등산학교에 온 목적은 등산을 잘하는 것이 아닌 안전하고 확실하게 잘 배워서 다치지 않게 다음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등산학교에 가서 많은 학우와의 교류와 친목을 쌓을 수 있게 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다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세세하게 다 분위기를 맞춰 나가주시면서 밝은 분위기로 구성을 해나가 주셔서 지루함도 없이 다들 재밌게 할 수 있던 거에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내가 궁금한 것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고 가는 거 같아서 좋았고, 좋은 자리, 좋은 경험이 된 거 같습니다.

쉽게 접해보지 못한 경험들과 내가 살아가면서 언제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만이 아닌 다른 후배, 선배들에게도 권유를 하고 싶었던 자리였던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해양대학교 21 오지은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21학번 오지은 학생입니다. 벌써 등산학교가 마무리되고, 6월의 한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등산학교의 기운찬 분위기와 처음 암벽화를 신은 감각과 함께, 등반에 대한 열망이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는 나날입니다.

이번 BFC22 등산학교가 산악부 입부하고 첫 활동으로, 등산과 암벽등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새롭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무색하게도, 훌륭하신 부산학생산악연맹 강사님들, 보조 강사님들, 등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선배 학생분들 덕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체력이 많이 약해서 등산 대열이나 등반 중에서 뒤쳐질 때마다 이끌어 주신 강사님들과 응원해 주시는 학생분들이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달콤한 성취감을 맛보는 산악인의 자세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암벽등반이라는 등산에 비해서 훨씬 신선하고 특별한 관점으로 산을 대할 수 있어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치지 않고 사지가 멀쩡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음에 신경을 써주신 강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등산학교를 활동하기 이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장비와 활동비를 지원해 주심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한국해양대학교 산악부 OB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등산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등반역량을 가지고,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산악의 세계로 뻗어가는 하나의 자랑스러운 산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춘해보건대학교 22 박진솔

암벽을 배워보고 싶어서 이번에 동아리에 들어오면서 등산학교에 참가하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암벽등반에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겁도 많이 먹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다른 학교 분들과 선배님들이 도와주셔서 즐거웠고 소중한 추억이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높았던 암벽에 겁을 정말 많이 먹었지만, 조원들과 선배님들이 밑에서 응원도 해주며 용기를 주어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등산학교를 통해 뭐든지 시작 전 겁을 먹고 망설이는 것부터 하지 말고 일단은 도전해 보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고 암벽에 더욱 많은 관심이 생겨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등산학교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생겼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배님들과 동기들, 조원분들 모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 부산대학교 22 정영호

안녕하세요. 등산학교에 참가했던 부산대 22학번 정영호입니다. 저는 등반 경험이 많지 않아 기초부터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등산학교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1주 차에는 매듭법, 확보/하강/슬랩 등반을 3개 조로 나누어 교육받았습니다. 저희 조의 경우, 점심 먹을 때까지 매듭법과 빌레이 보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이때 중간 8자 매듭을 절대 까먹지 않을 정도로 연습했는데 바로 다음 주 무명에서 매듭을 만들면서 버벅거리는 저를 보면서 역시 기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교육 당시는 2시간 동안 같은 매듭만 매길래 지루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모든 교육이 우리의 목숨과 직결된 것들이었기에 매듭, 확보, 하강 같은 기초적인 것들을 확실히 해야겠다고 느낍니다. 또한 패킹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저의 경우, 작은 가방을 가져가서 자일이 들어가지 않아 어깨에 둘러메고 올라갔었는데, 그럴 때 장비를 떨어트리거나 니뭇가지나 가시에 걸려서 장비를 분실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으니 꼭 배낭에 패킹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2, 3주 차에는 무명릿지와 나비암 등반을 했습니다. 경험 많으신 강사님들과 보조강사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등반하면서 자기 확보, 본인의 안전에 대해 가장 많이 강조하신 만큼 앞으로 등반할 때도 안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차에는 비박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때 본인의 장비를 잘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분의 텐트까지 준비하신 강사님들과 달리,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침낭, 패딩, 고어텍스 자켓 등 장비 준비 상태가 전체적으로 부실했습니다. 실제로 비박 당시 예상과 달리 나비암에서의 밤은 매우 추웠습니다. 덕분에 산에서는 어떤 환경을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장비를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등산학교에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 단체 티를 입고, 서로의 등반 중 파이팅을 외쳐주고, 등반을 끝내고 막걸리를 마시던 기억은 분명 4월의 봄이었는데, 벌써 완연한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보며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등산학교에 입교하기로 한 것이 제 나름의 용기(?)였는데, 용기를 내서 오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등산학교가 아니었다면 절대 만날 일 없던 친구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좋은 기회를 선물해 주신 부산학생산악연맹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각 단대 OB 선배님들, 그리고 교육 내내 교육생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 학감님, 강사님, 보조강사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에 산에서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의대학교 21 윤성민

산악학교에 대하여 조금씩 관심이 있었지만, 좋은 기회가 생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운동과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고 이 기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만났으며 새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첫 주차 과정에는 낮을 가려 많은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였고 등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2주 차부터 본격적으로 자연 암벽을 타기 시작하여

활동도 재미있었지만, 많은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주제가 생겨서 점차 낯가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등산학교의 본격적인 재미가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2주 차에는 무명리지에 가서 많은 벽을 타고 자신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많은 생각을 가진 채 등반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3주 차에는 독도법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나침반인 것을 과학 실험 시간이 아닌 실전에서 써보았고 감흥이 새달랐습니다.

이후 비박을 하기 위해서 정상 근처에 올라가 비박 준비를 마치고 식사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식사 준비를 처음 해보는 것이기에 많은 실수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었고 제가 해준 밥을 다른 사람들이 먹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후 잠을 자기 위해 침낭에 들어가 하늘을 보니 흐릿하게 보이는 풍경들이 무섭기도 했지만, 신기한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상한 다음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하고 비몽사몽인 상태로 나비암리지를 갔는데 평상시에 하지 못한 동작해야 했기에 상처들도 여럿 생기고 멍도 조금씩 들었지만 생각하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하여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4주 차에는 동래 외벽을 가서 등산하는 것이 없어 매우 편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마는 생각보다 힘들었고 전혀 해보지 못했던 동작들이었기에 적응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후 삼각천?으로 응급처치하는 방법과 테이핑을 하는 방법 등 많은 응급처치 방법을 배웠기에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할 힘들을 조금이라도 길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래 인공암벽은 자연 암벽과 많이 달라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행사를 마치고 끝내면서 많은 생각 해봤다고 생각하고 이를 토대로 좀 더 안전하고 발전하며 등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동의대학교 21 김도현

안녕하세요! 저는 동의대학교 21학번 김도현입니다. 이번에 4주 동안 등산학교 과정을 수료 하면서 매 주차 배우지 못했던 등반법과 매듭법을 배우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암벽을 어떻게 탈지 두렵게 걱정됐지만 선배님들과 강사님들 덕분에 무사히 잘 배우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과 등반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석하고 싶은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 동의과학대학교 18 이주호

안녕하십니까. 동의과학대학교 18학번 이주호입니다. 올해 취미 생활로 클라이밍 해보고 싶어 동아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로 인하여 등산학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들어갔습니다. 1주 차 때에는 많은 어려움과 힘들었지만 극복하여 2주 차까지 진행하였지만 3주 차 때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4주 차 때는 참여하였지만 컨디션이 문제로 인해 많은 것들을 못 하여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암벽등반을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협력이었던 거 같습니다. 짧은 4주였지만 어디 가도 경험하지 못할 강력한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 춘해보건대 20 이광훈

평소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1주일에 한 번씩 금정산 고당봉까지 오르곤 했다.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를 개강한다기에 할까 말까, 고민하다 등록했다. 평소 모르고 지냈고 알아야 하는 상식들 장비 다루는 방법, 매듭법, 독도법, 캠핑훈련법, 자연 암벽등반, 인공암벽 등반훈련 등등 많은 유익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다. 교육을 받고 보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한 자신이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 장비를 챙기고 배웠던 지식을 활용해서 다녀야겠다.

4주간 교육해 주신 학감님, 강사님 그리고 부산산악연맹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열심히 배워서 부산산악연맹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부산대학교 22 구재경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22학번 구재경입니다. 산악부에 들어온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3달 가까운 시간이 흘러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산학교 이전에도 단대 산행, 등반, 등반 교육 등 산악부 활동에 참여했었습니다만 연합으로 많은 학교가 모인 것은 처음인지라 교육 이전에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떨림까지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만 막상 와서 참여해 보니 이런저런 생각들을 왜 했는지 싶을 정도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2조의 단합과 친밀함은 어떤 조에도 뒤지지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첫날 등반 교육, 제가 참여하지 않은 두 번째 날 무명릿지, 독도교육과 나비릿지, 마지막 날의 수료식 모두 새롭고 낯설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되돌아볼 만한 추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등산학교의 활동을 거치면서 좀 더 용기 있고 활동적인 나로 거듭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늘 뒤처져 같이 올라가 주셨던 학감님께도 감사하고(수제자가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응원해 주고 도와준 우리 조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특히 나비릿지 때 정말 정말 정말 힘들었는데 조원들과 현범 보조강사님(...진짜 죄송하고 감사해요...) 학감님이 아니었다면 전 진즉에 나오자가 되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다 같이 밥 짓고 잠드는 1박2일도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등산학교 때는 더 발전한 저와 모두로 만나 민폐도 덜 끼치고 싶고 좀 더 수월한 등산학교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등산학교를 기대하며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대학교 21 문정현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21학번 문정현입니다. 산악부에 들어온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작년의 등산학교에 참가하지 못했던 게 아쉬워서 이번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작년보다는 기본적인 매듭법이나 확보 보는 법 등을 알고 등산학교에 들어온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등반이 처음이었더라면 이만큼 등산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등산학교에 즐겁게 참가했습니다. 항상 릿지를 가보고 싶었지만,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짐이 될까 항상 망설였었는데 이제 등산학교에서 한번 가보았기 때문에 다른 릿지등반도 잘 따라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항상 잘 챙겨주시고 재밌게 수업을 해주신 강사님,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 한국해양대학교 21 이선호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21학번 이선호입니다. 지금 늦게나마 교육 기간에 안전하고 즐거운 등반을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강사님들과 동기 교육생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사실 산악부에 가입하자마자 등산학교에 참가하게 되어 사실 등산이나 등반과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등산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갈 준비를 할 때까지도 걱정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1주 차 교육 중 후로 등반의 자세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입문자지만 그래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부터는 영도구 끝자락에서 주말 새벽 일찍 출발하는 등산학교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또 3주 차 비박 훈련 후에 등반까지 마친 후 무거운 짐을 지고 하산할 때는 정말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 역시 산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만큼 등산학교는 제게 평생 갈 취미를 얻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재참여하는 것은 물론 다른 학교 동기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 부산대학교 21 박수완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21학번 박수완입니다. 날이 상당히 더워진 6월에야 뒤늦게 참가기를 남깁니다. 저는 부산대 산악부에 올해 입부한 새내기 산악부원입니다. 흐흐. 학기 초 입부하자마자 손가락을 크게 다쳐 교내 산악부 일정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봉합 치료를 마치고 난 뒤 공지된 첫 일정이 <2022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였고, 이전 등산학교에 참가했던 산악부 선배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 준행암, 둘째 주 무명릿지, 셋째 주 독도법 교육과 야영, 넷째 주 동래암장 모두 참석하여 자랑스러운 개근을 거머쥐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이 낯선 타지 생인 데다 산행 경험 없이 순진했던 저는, 4주간의 등산학교를 통해 부산에서 말하는 학교 뒷산이란 어떤 지형인지...(힘난함)산악부는 뭐 하는 곳인지...(비장함) 몸소 피땀 흘려 체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비 이름도 전혀 몰라 틀린 그림 찾기 하듯 패킹했던 게 불과 몇 주 전인데, 교육을 마칠 때쯤엔 선배들 도움 없이 홀로 장비를 준비할 만큼은 성장하였습니다.ㅎㅎ 또 매주 진행된 교육에서 매듭, 확보, 하강, 독도법, 주마 등등 등반을 갈 때 필요한 기초들을 두루 배우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몇 번 해본 것들에 능숙하다고 자신하진 못하나, 앞으로 자주 접하고 이리 저리 겪어 보면 언젠가 저도 꽤 관찮은 아마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처음은 분명 '위험하고 어려운 건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왕 왔으니 이번 한 번만 해본다!' 하는 체면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2주 차 무명릿지에서는 '이 날 좋은 주말에...그냥 가만두면 평화로울 이 큰 바위를..자연 앞에 한낱 미물인 내가...도대체 굳이 왜 오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내내 맴돌았습니다.

아직 저는 처음 그 마음을 완전히 떨쳐내지도, 머릿속 의문에 대한 마땅한 답을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일회성일 것 같았던 발걸음이 의외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산이고 바위이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가는 길이기에 걸어가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앞으로 오래오래 걷다가, 훗날 지금의 모호한 마음들의 실체를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흡한 저를 다독여 이끌어 주신 강사, 보조강사, 그리고 여러 학교의 교육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니다. 덕분에 우당탕 요란했던 4주간 큰 사고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교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열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워갑니다. 잠깐의 인연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8. 등산학교 총평

### 학감 하태웅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3년이 된 느낌이다. 작년부터 등산학교를 맡아 학생연맹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임을 절실히 느꼈다. 작년보다 2배나 많은 재학생이 등산학교 교육을 신청했다. 임시방편으로 등산학교 경험이 있거나 예비역인 고학년들을 보조강사라는 직책을 주어 강사들을 보조하게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보조강사는 쉽게 접하는 실내 암장을 다녀 등반은 잘하는데 자연 암장에서의 시스템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작년 동계등산학교와 같은 예비트레이닝을 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등산학교 강사 수급 문제도 대두되었다. 한창 왕성한 활동을 할 젊은 OB들이 가정, 직장 문제로 강사로 합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강사들의 불만 사항도 제기되었다. 어렵게 시간을 내어 후배들을 위해 봉사를 하러 왔는데 연맹에서 신경을 많이 안 써준다는 내용 등 이었다. 솔직히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고민이 깊어진다. 학산이 빠듯한 재정 여건이라 강사들에게 만족할 만한 처우를 해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보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많은 강사가 기꺼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등산학교 재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부산포럼, 서성호 기념사업회, 학산 골프회 등 여러 단체에서 귀한 후원을 해주고 있지만 몇몇 뜻 있는 OB 선배님들의 지속적인 후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선배님들에게 치운 친 면이 있어 좀 더 많은 후원자분을 모시는데 속제로 남았다.

끝으로, 학생연맹 등산학교 교육생 중 의지가 있거나 모험심이 강한 교육생들은 전통적인 외부 등산학교 입교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받아 학산 등산학교 발전에 이바지해 주기를 꿈꾸어 본다.

감사합니다.

## B.F.C 22 B.S.A.A Fun Climbing School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 동계반 보고서



2023년 1월 13일 ~ 18일(5박 6일)/예비 트레이닝 2일간

## 1. 등반개요

- 1) 명 칭 : B.F.C 22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 동계반
- 2) 대상지 : 영남알프스 일원/ 학암폭
- 3) 일 시 : 2023년 1월 13일 ~ 18일(5박 6일)/ 예비 트레이닝 2일간
- 4) 목 적
  - ① 단결·인내·안전을 통한 바람직한 대학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 ② 빙벽 등반에 대한 올바른 등반지식과 기술을 연마
  - ③ 적설 등반을 통해 흰 산에 대한 열망 및 대학 산악부원으로서의 자긍심 공유
  - ④ OB·YB 합동 등반을 통한 학산 선후배 간의 기술 교류

## 2. 참가자 명단

### 2-1. 임원 및 강사 명단

직위	이름	연락처
교장	박민호	010-9556-8038
학감	하태웅	010-9637-8848
강사	김재연	010-2440-9126
기획이사	김병진	010-7227-2678
촬영	박준범	010-5123-6466

### 2-2. 교육생 명단

순번	학교	학번	이름	성별	혈액형	연락처	상의사이즈
1	경성대	19	박건우	남	B	010-4576-4843	100
2	경성대	21	이상화	남	B	010-4073-6673	105
3	경성대	22	박태은	남	A	010-7589-2882	100
4	경성대	21	박성준	남	O	010-3885-6246	100
5	경성대	20	양바다	남	O	010-9488-1719	95
6	부경대	18	김지윤	여	AB	010-3153-3373	95
7	부경대	19	이성환	남	O	010-6546-9912	105
8	부산대	21	싸리	여	B	010-2199-7347	90
9	부산대	22	백인수	남	B	010-2883-0435	100
10	부산대	18	김재영	남	O	010-9047-2187	105

### 3. 운행보고

순번	날짜 (요일)	대상지	주간 교육(0600 ~ 16:00)	야간 교육 (19:00 ~ 21:00)	막영지
1	1/5(목)	연맹회관	OT(장비 착용법, 빙벽 등반 장비, 조편성)		
2	1/11(수)	연맹회관	OT(장비 착용법, 빙벽 등반 장비, 패킹)		
3	1/13(금)	영남알프스	하중 훈련(통도사-영축산-신불산)	이론교육	영남알프스
4	1/14(토)	영남알프스	하중 훈련(간월산-배내봉-배내고개)	이론교육	영남알프스
5	1/15(일)	영남알프스	하중 훈련(배내고개-천황산-재약산-B.C)	이론교육	바람의 향기 펜션
6	1/16(월)	학암폭	기초교육(장비 설명, 장비 착용, 튜닝)	이론교육	바람의 향기 펜션
7	1/17(화)	학암폭	믹스클라이밍	이론교육	바람의 향기 펜션
8	1/18(수)	학암폭	믹스클라이밍	수료식	재약식당

### 4. 장비보고

공 동 장 비				개 인 장 비			
구분	품 명	수 량	비 고	구분	품 명	수 량	비 고
막영	텐트	4	5인용	막영	침낭	1	동계용
	그라운드시트	4			침낭커버	1	
	팩	다수			매트리스	1	
	텐트 실내등	4			배낭	1	70L이상
	눈삽	4			배낭커버	1	
	노끈	1롤			어택배낭	1	30L전후
취사	가스버너	10개	가스	등반 및 운행	이중화	1	
	코펠	4세트			크랩폰	1	빙벽용
	방풍판	10개			아이스엑스	2	바일
	프라이팬	2			일반 등산화	1	
	칼	5			헤드랜턴#3	1	여분건전지
	가위	2			수통 및 수통커버#2	1	1리터
	수낭	4	페트병 가능		스팩즈	1	
	가위	2			안전벨트 등 #1	1	
	가스	다수			헬멧	1	

	DUCK TAPE	다수			설상용 피켈	1	바이로 대체가능
등반구	자일	2동	90미터	의류	스틱	1	선택
	자일	3동	60미터		수저	1세트	
	슬링(테이프)	10개	120cm		자외선차단제	1	
	슬링(테이프)	10개	90cm		장갑	2	
	아이스스크류	20개			슬리퍼	1	
	퀵드로우	30개			컵	1	시에라
						세면도구	1세트
기타	의료구	다수			방수옷 상하	1	오버트라우저
	수선구	다수			오리털파카 상	1	우모복
	라이터	다수			파일 재킷	1	
	휴지	다수			긴팔티	2	
	물티슈	다수			긴바지	2	
	마대자루	다수	쓰레기처리		속옷	2	
	비닐봉투	다수			내의	1	히트텍
	단대부기	각1		양말	3		
	학산기	2		모자	1	비니	
	플랭카드	2	대1, 중1	바라클라바	1		
				고글	1	선글라스	
				이중화케이스	1		

#1. 안전벨트 등: 안전벨트, 하강기, 데이지체인, 카라비너(잠금 2개, 일반 2개).

라운드슬링 5mm 10미터, 피피1개

#2. 수통은 낱진 수통같이 주둥이가 넓은 것으로 하고 물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온 커버(기성품)를 구매해도 되고 일반 택배용 보온재를 대고 테이프로 감아서 보온해도 됨

#3. 헤드랜턴 건전지는 1회 교환할 수 있는 건전지 휴대 요망

총평 - 각 대학별로 종주 장비들은 동계 침낭이 모자란 것은 제외하고 거의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방벽화와 방벽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재학생들이 구매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커서 선배들에게 빌려서 사용하였다. 차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 5. 식량보고

식단표				
날짜	아침	점심	저녁	특식
13일	매식	행동식	미역국	삼겹살
14일	수제비	행동식	어묵, 파전	돼지불고기
15일	짜장, 카레	행동식	돼지국밥	치킨
16일	돼지국밥	라면, 수제비	미역국	돼지불고기
17일	짜장	라면, 수제비	된장찌개	돼지불고기
18일	떡라면	산채비빔밥		(수료식)

### 종주 3일간 (10명)

13일 저녁: 고기가 메인이라 미역국 2봉지만 먹었다.

14일 아침: 수제비, 물 부족으로 남은 미역국 2봉지에 수제비를 끓여 먹었다. 수제비는 두 코펠에 나눠 9 봉지를 해 먹었다.

14일 저녁: 가게에서 어묵, 전을 먹게 되어 고기와 밥으로 충분하여 된장찌개는 하지 않아 4 봉지가 남았다.

15일 아침: 3분 짜장, 카레 한 봉지의 양이 상당하여 쟁겨간 여분은 남았다. 미트볼 4 봉지는 양이 적당했다.

종주> 육포 2봉지, 행동식 충분, 국(1~2인분) 종류 2 봉지가 적당

### 숙소 3일간 (13명)

15일 저녁: 치킨, 돼지국밥 다 먹진 못했고 남았다.

16일 아침: 돼지국밥으로 해결

16일 점심: 삼겹살+신라면+수제비

16일 저녁: 양념불고기, 미역국, 반찬

17일 아침: 3분 짜장 카레, 김, 반찬

17일 점심: 신라면+수제비, 삼겹살

17일 저녁: 양념불고기, 된장찌개, 김, 반찬

18일 아침: 떡라면, 반찬

예정되었던 17명에서 13명으로 축소되어 진라면을 거의 다 남았다. 그리고 떡국은 남은 돼지고기밥과 떡 라면으로 대체되어 떡국용 떡 3 봉지 중 반 봉지만 썼다. 따라서 육수용 다시마 또한 새것이였다. 숙소에서 김치와 김 반찬이 무척 좋았다. 고기랑 먹기 위해 샀던 매운 쌈장은 종주 때 제외하고는 쓰지 않았다. 학암폭에서 고기를 라면에 넣거나 그냥 돌판 삼겹살을 해 먹었기 때문이다. 빙폭이 녹아 강사님들과 동아대 인원이 빠지면서 식량이 어느 정도 남게 되었다. (싸리)

\* 큰 변동 사항: 빙벽이 녹아 없어진 상태 -> 빙벽반 동아대 인원 불참

13일) 아침- 터미널 내 식당에서 김밥과 라면/인원에 따라 예약하거나, 좀 여유 있게 터미널에 도착할 필요 있을 것 같다. 이번 종주 때는 다행히 여유가 있었다.

점심- 핫앤룩/비가 왔음에도 간편하고 따뜻해서 좋았다. 사전 교육 시간이 주어진다면 행동식은 마지막 또는 위쪽에 패킹하라고 안내해 주는 게 꼭 필요할 것 같다.

저녁- 밥 고기 반찬/일단 고기가 맛있었고, 덕분에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었다. 예정되었던 인원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삼겹살은 생각보다 얇았고, 기름이 많아 처리가 조금 번거로웠다. 개인적으로 양념갈비가 더 맛있었다. 밑반찬은 생각보다 많이 먹지 않아 적게 준비해도 된다.



14일) 아침- 수제비 밀키트, 미역국 등 준비한 음식들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사건들로 물을 여러 번 쏟아서 식수가 부족해질 뻔했다. 물은 비상시를 생각해 좀 더 넉넉히 챙겨야 했다. 2일 차에 합류 예정이었던 재영이가 아니었다면 이후 식수 공급이 완전 비상이었을 것이다. 판매되는 밀키트가 보통 간이 강해서 물이 좀 더 필요하겠단 생각도 들었다.

점심- 핫앤룩/위와 동일

저녁- 밥 고기 반찬/우리가 준비한 메뉴는 같았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추가로 주문했다. (어묵탕, 파전, 막걸리, 반찬류)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이런 날도 종주 중에 하루 정도 있으면 좋겠다. 밥을 평소대로 지어서 조금 남았다.

15일) 아침- 밥 카레 짜장/어제저녁에 남았던 밥 덕분에 준비가 비교적 수월했다. 더 필요한

만큼만 밥을 짓고 간편 카레와 짜장을 데워 먹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 양이 많은 만큼 끓일 물의 양도 늘어나니 3분 제품류들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막 쓸 수 있는 물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겠다... 이번 동계는 식당과 화장실이 근처에 있어 수월했다.

점심- 핫앤쿱/위와 동일

저녁- 돼지국밥/회장님이 가져오신 식량이었다. 동계반 인원이 못 와서 양은 푸짐했다. 대신 인원이 줄어들어도 결과적으로 김치는 생각보다 많이 먹었다. 라면을 비롯한 거의 모든 식사에서 먹었고 산에서 훈련할 때도 챙겨가니 모두 잘 먹었다.

16~18일) 아침- 준비했던 식단/양은 부족함 없었고 라면류는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 (인원이슈) 그리고 다른 라면보다 신라면을 많이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떡국떡도 라면에 넣어 먹으면 생각보다 적게 먹는다. 짜장 카레도 남았지만 원래 인원이 정상적으로 왔더라면 알맞았을 것 같다.



점심- 산에서 훈련하며 라면, 고기, 김치 위주/베이스캠프에 두고 먹으려고 했던 커피와 차들을 산에도 넉넉히 들고 오는 게 좋겠다. 어차피 숙소에서 많이 안 마신다. 훈련하면서 몸 녹일 때 따뜻한 음료가 좋았다. 고기도 맛있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삼겹살이 좋았다. 라면도 2~3개씩 팀을 두고 끓여 먹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챙겨와도 충분히 다 먹을 것 같다.

저녁- 준비했던 식단/역시나 양은 충분했다. 빠진 인원들을 생각하면 정말 적당하게 잘 산 것 같다. 대신 이번처럼 아픈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대비해 죽, 누룽지류도 미리 조금 준비하면 좋겠다. 근처 마트에서 즉석 죽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 부피, 무게를 고려해서 유동적으로 추가하면 좋겠는 사항이다.

수료식- 산채비빔밥/개인적으로 원래 나물류를 잘 먹지 않아 아쉬운 메뉴였다. 묵과 파전에 동동주도 한잔했는데 다들 피곤했는지 술은 정말 조금만 마셨다. 다음에는 아예 백숙이나 오리 불고기처럼 하산하고 종종 먹는 메뉴도 좋을 것 같다.

그 외) 간식류의 종류는 적당했다. 대신 사탕과 젤리를 줄이고, 자유시간이나 에너지바가 더 많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빙벽훈련 3일 중 이틀 정도는 초코바가 부족했다. 종주 때 육포도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리고 베이스캠프에서 먹을 때는 과자류도 조금 있었다면 좋을 것 같다. 근처 마트에서 사비로 구매했었는데 양이 좀 부족했다.

## 6. 의료보고

구분	품명	수량	비고
해열진통제	아스피린	10정	
	타이레놀	20정	종합감기
소화기용	정로환	10정	소화제
	로이디펜	10정	지사제
기타	아쉬그로버	입술 포진 진정제	1개
	레모나	2팩	비타민
외상용	스프레이 소염진통제	1	
	후시딘	1	
	메디폼	1	
	소독거즈	다수	
	압박붕대	1	
	반창고	1	
	파스	3	
	일회용 밴드		
	핀셋	1	
	가위	1	
	동상연고	1	

## 7. 회계보고

수입			
구분	항목	금액	비고
회비	교육생 참가회비	950,000	9명*100,000 1명*50,000
찬조금	박민호회장	500,000	
	부산연맹지원금	500,000	예정
	성기진(동대85)	200,000	
	이상현(경남77)	100,000	
	정인숙(동주88)	100,000	
	최호승(경남91)	100,000	
	박명기(과기80)	100,000	
	정영훈(부대92)	200,000	
	이정호(경성92)	100,000	

유영근(동대82)	100,000	
서성호 기념 사업회	1,000,000	
최태식(과기80)	500,000	
차월준(부여대82)	200,000	
김정실고문	100,000	
정민규고문	100,000	
김규태(부대82)	100,000	
전상은(교대85)	100,000	
합 계	5,050,000	

\*찬조-돼지국밥 20인분(박민호회장), 돼지불고기 20인분(김재형)

지 출		
항목	금액	비고
숙소계약금	100,500	바람의 향기 펜션
교육생 용품	1,010,000	패딩, 비니
현수막	23,500	
의약품	17,000	
고기	250,500	
보험	42,000	종주+빙벽
보험	15,200	빙벽
시상품	274,200	락킹 카라비너
공동 물품	5,000	김장 비닐
식량	50,000	다이소
식량	363,800	트레이더스
식량	115,100	핫앤쿡 발열식
숙소 잔금	450,500	바람의 향기 펜션
강사비	200,000	하태웅, 김재연
현지 지출	576,550	수료식 외
식대	160,000	치킨 외
플랜카드	40,000	수료식
합 계	3,653,850	

## 8. 등산학교 참가기

### 부경대 18 김지윤

새로운 시작은 늘 걱정되면서도 설레기 마련이다. 하지만 떠나기 전의 나는 설렘만 가득했다. 우연한 계기로 시작해 재미를 느낀 클라이밍, 이 취미를 가지면서부터 가장 기대했던 것이 빙벽을 찍는 나였기 때문이다. 졸업을 앞두고 산악부에 들어온 가장 큰 계기 또한 동계반이었다. 그런 나에게 식량준비와 패키징은 어려웠지만 설레는 여정의 시작이기에 정말 즐거웠다. 등산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걱정은 크게 되지 않았다. 사실 등산을 걷고 달리는 것처럼 건강하기만 하다면 특별한 능력 없이도 해낼 수 있는, 소위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감상 내 몸무게의 절반은 거뜬히 넘길 것 같은 배낭을 짊어지고 폭우를 맞아가며 하는 종주라니...

생각보다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은 걱정에 첫날밤부터 깊게 잠들지 못했다. 여태껏 경험 못 했던 고됨에 먹고 싶다는 마음보다 누워서 쉬고 싶다는 마음만 커졌고, 식욕도 없어졌다. 귀찮으면 굶는 내가 직접 밥도, 국도, 다른 식사도 해 먹어야 하는 상황이 벅찼다. 솔직히 말하자면 혼자서는 절대 못 했을 것 같다. 걱정이 많은 내가 생각했던 최악은 면했지만 내 기대만큼 멋진 내가 아니었다. 어찌저찌 버티던 내가 와르르 무너졌던 건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던 때였다. 텐트 치기 시작할 때만 해도 분명 괜찮았는데 갑자기 컨디션이 바닥을 치더니 서 있을 힘도, 내 상태를 말할 힘도 순식간에 없어졌다. 돌아켜보면 이 또한 혼자였다면 절대 극복하지 못했을 것 같은 순간이다. 함께 했던 모든 사람 덕분에 다시 회복하고 으쌰으쌰하며 무사히 종주를 마칠 수 있었다.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종주를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행복하게 빙벽을 상상하며 하산하던 나는,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너무 풀려서 빙폭이 녹았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무너졌다. '너무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 상황이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남은 2박 3일이 재미없었냐고? 아니, 오히려 좋아! ^-^

따뜻한 곳에서 몸도 녹이고, 따뜻하게 샤워도 하고, 휴식하며 회복한 후에 많은 것을 배웠다. 하강 연습부터 주마링까지, 기본적인지만 제대로 훈련해 본 적은 없었던 것들을 체득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빙벽을 타기 위한 기본자세들도 오히려 탄탄히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 좋았다. 겨울은 돌아오니까, 빙벽은 내년에도 있으니까, 지금 배운 것들이 미래의 멋진 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힘이 났다. 그리고 역시 뭐든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다.



산에서의 훈련만큼 숙소에서의 스트레칭도 기억에 남는다. 내 몸이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평소에 신경을 쓰지 않아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다. 선배님과 스트레칭 시간을 통해 평소 자세와 내 몸에 대해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재미를 위해 시작한 6일간의 여정을 통해 재미뿐만 아니라 자신도 몰랐던 생활 습관과 걷는 습관, 자세 등 몸 전반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었다.

길고도 짧았던 동계반에 대해 한바탕 쓰고 나니 이다음으로 넘어갈 용기가 충전되는 느낌이다. 꿈꾸던 빙폭을 보지 못했던,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다가오는 봄에는,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시간 속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등반을 즐기고 있을지 기대되는 마음이 더 크다. 처음이기에 어쩔 수 없이 남는 후회와 아쉬움은 이 참가기에 내려놓고 후련히 떠나겠다. 지난 여정에 대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떠나야 돌아올 자리가 아늑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한 모든 분 덕분에 좋은 추억을 얻었다. 그래서 인지 상쾌한 겨울바람이 불어와 구석구석 깨끗해진 것 같은 마음이다. 내게 5박 6일간의 동계반은 그런 여정이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은 David McCullough Jr.의 멋진 구절입니다.  
Climb the mountain not to plant your flag,  
but to embrace the challenge, enjoy the air and behold the view.  
Climb it so you can see the world, not so the world can see you.

## 부산대 18 김재영

### 프롤로그

동계 훈련 출발 이틀 전 인수, 짜리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짜리의 젓가락질이 시원치 않다. “짜리 동계 가는 거 걱정되나 보네? “하니 그렇다고 한다. 아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배낭의 무게와 상상할 수도 없는 긴 코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 일 내내 비가 온다고 하였기에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거 같다. 선배로서 무슨 말을 해줘야 하나 싶어 이것저것 던져본다. “내가 판단했을 때 짜리의 체력으로는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여름에 같이 무등산 갔을 때 걷는 거 보고 진짜 잘 걷는다고 생각했어! 짜리 짱짱!! 너 자신을 믿어! ” 그래도 짜리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하다. 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을 쓴다. “짜리가 주저앉으면 내가 짜리 짐까지 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제야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졌는지 환하게 웃으며 고기를 먹는다. 그 옆에서 인수는 아무 말 없이 우직하게 고기를 먹는다. 마치 앞으로 벌여질 일들은 별것 아니라는 듯이.

### 1/14

훈련 이튿날 이른 새벽 언양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간 합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록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아끼는 부산대 후배들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산행할 생각에 마음은 들떠서 가벼웠다. 그렇게 버스에서 숙면을 한 후

언양 터미널에 내렸다. 웰컴 복합센터로 가는 버스를 찾는데 빠르게도 빌런이 등장했다. “거 산에 가려면 저 반대편에서 타야 해요. 절로 넘어가세요.” 반대편에 넘어가 봤지만 내가 찾는 버스는 없었다. 다시 돌아와 버스를 찾는데 계속해서 빌런 분께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라고 등을 떠민다. 나는 가볍게 무시하고 택시를 잡아 웰컴 복합센터로 이동했다. 찾아보니 그 시간대에는 버스가 아예 다니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웰컴 복합센터로 이동하는데 비가 보슬보슬 내린다. 전날 영남알프스의 악천후 속 선발대가 잘 생존했을까 생각이 든다. 일단 경성대 태은이라는 친구가 에어포스 운동화를 신고 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등산화를 추가로 챙겨가는 상황에서 크게 좋을 거 같진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후배들이 체득을 자처하는 모습을 볼 때면 관스레 1학년 때의 내 모습이 보여 살짝 우습고 감회가 남다르다.

웰컴 복합센터에 도착 후 간월재를 향해 걷기 시작했고 대략 두 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하였다. 조금 기다리니 저 멀리서 학감님을 필두로 하여 부산대, 부경대 선발대가 도착했다. 산에서 보니 참으로 반기웠다. 다들 나를 발견하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데 비 오는 날 마주한 유기견과 같은 느낌을 아무래도 잊을 수 없다. 모두 축 젖어서 아장아장 걸어오는 모습이 살짝 찡했다. 그래도 상태는 괜찮았는지 만나자마자 인수, 사리의 ‘선배에 대한 사랑 표현’이 시작된다. “오는 길 흐리다 했더니 여기 태양이 떠 있어서였네요”라든지 “형 앞에 있으니 탈 거 같아요” 하면서 말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경성대 친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다들 예상보다 팔팔해서 다행이다 싶었다. 조금의 휴식 후 간월산으로 걸음을 옮겼다. 성준이가 같이 걷다가 갑자기 뛰어 올라간다. 나중에 보니 모두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나도 한때 다른 부원들 사진 찍어주는 재미에 산을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기에 성준이가 헌신하는 모습에서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이것이 경성대 차기 부장인가.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비가 오는 날이었음에도 일반 등산객들이 참 많았다. 인증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은 에베레스트 등정을 위한 대기 줄을 연상시킨다. 우리도 단체 인증 사진을 찍고 배내봉으로 이동한다. 내리막길이 비, 눈 그리고 진흙으로 인해 축축하고 미끄럽다. 이럴 때일수록 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지금까지 산행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한 걸음 디딜 때 힘을 실어 디디고 무릎 관절이 아닌 앞쪽 허벅지에 힘을 주는 느낌으로 걸어야 긴 시간 운행하는 데 지장

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무릎을 살짝 굽혀 몸을 낮추면 느낌이 온다. 그리고 내리막이 가파를수록 본능적으로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향하게 하여 앉아 내려오기 마련인데 상체의 무게중심을 살짝 앞으로 향하게 하면 안정적으로 걸어 내려올 수 있다. 자기 능력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산행으로 인해 무릎이 아플 때는 옆으로 또는 뒤로 내려오는 방법을 사용하면 그나마 조금 덜 아프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런 이론적인 지식보다 체득으로 얻는 몸의 감각 경험인 듯하다. 처음엔 애들이 푹푹 넘어졌지만, 어느 정도 지나자 다들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잘 내려갔다. 지윤 누나 같은 경우 무릎이 정말 아팠는지 나중에 무릎을 구부린 채 옆으로 내려갔다. 두 가지 스킬을 동시에 사용한 건 분명 본인만의 생존법이었을 것이다.

배내봉에서 배내고개는 거리가 가까워 금방 도착했다. 텐트를 설치하고 주변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 따뜻한 전과 어묵을 먹으며 몸을 녹였다. 추운 산행 속 몸에 쌓인 냉기가 싹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 거기다가 태웅 행님의 넓은 아량으로 훈련기간이었음에도 가지산 막걸리를 맛볼 수 있었는데 이게 또 별미였다. 어찌나 맛있었는지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사리가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대표로 나서서 한 병 더 마시고 싶다고 태웅 행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기도 하였다. 그 상황이 참 웃겼다. 나는 막걸리를 한 모금 하며 부산대 부장이자 막걸리 킬러인 민식이 생각이 났다.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 되었든 다음번 영알에 갈 때면 그때도 들러서 사 마실 거 같다.

### 1/15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해 먹고 남은 산행의 준비를 한다. 다들 비에 젖어서 그런지 몸이 조금씩 무거워 보인다. 그중에서도 건우와 태은이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먼저 내려간다고 한다. 건우는 무릎부상으로 이전부터 무릎이 성치 않았는데 아픈 걸 참고 걸었던 것이다. 반절 이상을 걸어왔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래도 바꿔 생각하면 아쉬움이 있어야 다시 찾는 법. 건우와 태은이에게는 다시 영남알프스를 찾아올 하나의 크고 확실한 이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흘러 무릎이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도전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다.



능동산을 찍고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태웅 행님께서 대원들의 상태를 보았을 때 임도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듯하다. 구불구불 지루한 길을 지나서 천황산을 향해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져 기온이 낮아진다. 중간중간 나뭇가지에 핀 얼음꽃이 보인다. 인제야 조금 겨울 산행 느낌이 난다. 비가 와서 조금은 아쉽게 되었지만, 여전히 얼음으로 뒤덮인 산의 풍경은 아름답다. 쉬는 틈을 타 모두 사진찍기 바쁜데 그 와중에 쓰리의 걸음은 누구보다도 먼저 천황산에 향한다. “쓰리아. 너무 오버페이스 하지 마래이. 쓰리 따라간다고 힘들어 죽겠다.” 태웅 행님께서 쓰리에게 말한다. “제가 제일 먼저 정상 찍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쓰리의 집념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정상에 먼저 가서 기다리면 바람이 많이 불어 추울 텐데...’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말하진 않았다.

천황산을 찍고 천황재로 내려와 중식 먹을 준비를 하는데 인수가 갑자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는다. “저 천황산 정상에 가방을 두고 온 거 같아요.” 충전 배터리가 들어있는 작은 파우치를 말하는 것 같다. 인수는 가방을 찾기 위해 다시 천황산으로 떠났다. 평소 꼼꼼하고 머리가 좋은 인수도 몸을 고생시킬 때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 식사가 끝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냉기가 스멀스멀 몸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오직 인수만 돌아오길 고대하며 추위 속 몸을 계속해서 움직인다. 드디어 저 멀리서 인수가 달려온다. “저 가방 찾았어요. 처음에 갔을 때 못 찾아서 그 너머까지 갔는데, 없어서 그냥 돌아오려 했거든요. 근데 누가 천황산 표지판에 걸어 두셨더라고요!”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인수는 말했다. 산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인수가 평소 덕을 많이 쌓았나 보다.

그다음부터는 그냥 우직하게 걷기만 했다. 재약산을 지나 표충사 방면으로 걸었다. 학암폭 근처를 지나는데 얼음이 보이질 않는다. 학감님께서 날 부르시더니 학암폭 정찰을 갔다 오라고 하신다. 올라가 보니 얼음이 다 녹아 학암폭이 정말 폭포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빙벽이 없어진 지금 어떤 대안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뽀족한 수가 떠오르진 않았다. 일단은 숙소를 향해 내려갔고 숙소에서 자, 부경대 김재연 행님께서 우릴 맞아주셨다. 빠르게 짐을 풀고 식사를 마친 뒤 대책 회의를 열었다. 얼음이 없다는 소식에 동아대 친구들은 오지 않았다. 우리도 할 게 마땅하지 않아 철수하지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재연행님이 태웅 형님께 제안 하나를 하신다. “행님. 그냥 옆에 줄 갈아서 애들 하강 연습하고 주마링 연습시키면 됩니다. 애들 그것도 시키면 못 합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참으로 좋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행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라고 말했고 행님께서



는 “좋은 생각은 무슨 좋은 생각. 옛날부터 이래왔다.”라고 하셨다. 그날 밤 숙소에서의 좀비 게임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인해 주마링 및 하강 연습 시간으로 바뀌었다. 다들 종주 후라 정말 피곤해 보였지만 재연 행님의 지휘 아래 꼭두각시같이 열심히 움직였다. 다들 체력이 꽤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 1/16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처음으로 인상적이었던 건 등이 따뜻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문명이구나 새삼 느끼게 된다. 침구류를 정리하고 아침을 먹은 뒤 등반 준비를 한다. 숙소에서 학암폭까지는 대략 한 시간 정도 걸려 이동하였고 도착한 후 행님은 죽 둘러보시더니 적당한 벽에 자리를 고정해 내리셨다. 그리고는 전날 열심히 연습했던 주마링을 차례차례 실시한다. 그 뒤에는 나, 성환이, 씨리가 붙어서 3대3 강습이 진행되었다. 주마링을 하지 않는 인원들은 재연 행님의 지시에 따라 식사 준비를 한다. 모든 것들이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던 와중 행님께서 나와 성환이에게 등반의 기회를 주셨다.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지만, 막상 벽에 붙으니 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름의 시도에도 완등하진 못했다. 얼음이 너무 얇아 내



실력으로 발로 완전히 지탱하고 오르는 게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암벽등반도 아닌 빙벽 등반도 아닌 믹스클라이밍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먹는다. “너네들 씻고 짐 정리 좀하고 여기 다시 모이러” 재연 행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바일, 크램폰의 변천사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행님들이 직접 겪은 시대의 변화인 만큼 그 이야기는 꽤 생생했다. 그와 더불어 장비를 착용 및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듣는다. 나는 직접 등반을 해서 야스리로 앞날을 열심히 갈았다. 옆에서 성준이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본다. 어제도 시스템 등반에 관해 설명해 주었는데 성실하게 설명을 들으며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성준이가 참 기특하다. 분명 멋진 선배가 될 게 분명하다.

### 1/17

건우가 밤새 구토와 설사를 여러 번 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제 춤을 너무 열심히 춘 탓인가 아니면 혹시 뭔가를 잘못 먹은 건가 싶은 생각들이 들었지만, 곧 답은 확실해졌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패킹하는데 성준이의 상태도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니 금방이라도 오버이트를 갈길 거 같다고 한다. 모두 무언가 잘못 먹고 탈이 난 것임이 분명하다. ‘근데 다른 애들은 왜 괜찮지? 참으로 희한하군.’ 생각하며 상태가 좋은





1/18

전날 밤 인수까지 아프기 시작했다. “형 저 전날 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요.” 나도 그 느낌을 알기에 인수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다. 일단 인수까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거로 보아 24시간 가까운 잠복기가 있었고, 구토, 설사, 발열 등의 증상과 더불어 탈수 증세, 근육통, 의식 장애가 함께 발생하였기 때문에 식중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Vibrio 균의 경우 최대 30시간까지 잠복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된 사실인데 최근 5년간 식중독의 50%가 겨울철에 발생했다고 한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 영하 20도에서도 그 감염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겨울철 산행이 덥고 습한 환경이 아니라고 방심해서 위생 및 보관 온도에 신경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원인은 고기일 확률이 높다. 일단 한번 상한 고기에는 세균의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긴 독소가 잔류하고 이는 열에 의해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식량으로 인해 팀 전체의 기량에 영향을 줄 만큼 그 비중은 크기에 앞으로 장기 산행을 할 때 신경을 잘 써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얇아누워 있는 인수를 뒤로하고 학암쪽으로 향한다. 점점 갈 때마다 얼음이 두꺼워지는 게 보인다. 오늘도 어김없이 벽에 붙는다.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 웨이브락 흰색 클라이머 상화가 톱로핑 빌레이를 봐주니 든든하다. 거기다가 재연 행님의 일대일 피드백 코칭까지 받으며 올라서 믹스클라이밍 기술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행님의 가르침을 조금 정리하자면 믹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바일을 사용할 때 스파이크 부위를 벽에 붙여야 한다. 얼음층이 비교적 얇기에 피크 부분을 거는 느낌으로 등반하는데 이때 스파이크를 붙이면 흔들림이 덜해서 안정적으



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바일이 힘을 받는 방향이 중력이 향하는 방향과 수평이어야 흔들기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한 목적도 있다. 얼음 등반은 암벽 등반과 그 원리가 같아서 손으로 당기는 것이 아닌 발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바일은 등반 중 내 몸이 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물론 얼음 등반에서 N바디 자세로 오르든지 오버행과 같이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팔 힘도 중요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발로 딛고 있어야 힘을 절약하며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발을 올리고 일어서는 동작을 할 때 바일을 파지하는 법은 자유롭다. 몸이 높아짐에 따라 바일의 윗부분을 잡으며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다. 바일은 얼음뿐 아니라 바위 크랙에 걸 수도 있고 이끼에 안정적으로 박을 수도 있다. 이끼는 얼음과 함께 섞여 단단한 복합체를 만들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

오후엔 수료식이 예정되어 있어서 짧게 훈련하고 하산했다. 이제 동계가 끝이라 생각하니 내려가는 길에 아쉬움이 컸다. 그만큼 모두와 함께 한 시간이 즐거웠고 소중해서 그런 게 아닐지 싶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아쉬움이 있어야 다시 찾는 법.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시금 찾아올 것 같다.

이렇게 연맹 동계 활동이 끝이 났다. 많은 일이 있었던 만큼 생각 또한 참 많이 들었다. 먼저 초반 워킹 일정이 대원들의 수준보다 높았고 거기에 악천후까지 겹쳐 꽤 고생했다. 산행 계획은 팀 내에서 가장 낮은 능력치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방한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고 hypothermia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등산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교육이 없었던 것도 아쉬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꽤 높은 기량을 보인 것이 감명 깊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후배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되었을 거 같아 오히려 좋았고 그래서 이번 산행을 계기로 다음 산행에서는 더 철저히 준비해서 즐겁고 쾌적한 산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면 난 꽤 최근까지도 고산등반에 흥미가 없었다. 단순히 추위를 싫어한다는 알팍한 핑계도 있었지만, 그냥 바위 등반만 해도 충분히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하계만 참여한다면 준회원, 동계까지 참여하면 정회원”이라는 말을 부산대 13학번 한진석 행님으로부터 간간히 들은 나는 ‘그래. 산악부에 발 담근 지가 언제인데 계속 준회원으로 남을 순 없지. 한 번쯤 해보고 결정해 보자!’ 싶은 생각에 이번 겨울 부산대 OB 행님들을 따라 학암폭에서 열심히 얼음 등반을 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생각보다 재밌다. 그저 바위를 타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이번 동계에서 그 기술을 내 것으로 익혀서 언젠가 한 번쯤은 고산등반을 시도해 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났다. 그래서 나는 비가 와서 얼음이 없어진 걸 보고 너무 허탈했다. 하지만 그러한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배울 점은 충분히 있었던 거 같다. 조금 남아있는 얼음 위에서 오포인팅 연습도 해볼 수 있었고 믹스클라이밍의 세계를 맛볼 수도 있었다.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태웅 행님과 김재연 행님께 감사하다. 그와 더불어 힘들고 고된 일정 속에서 열심히 훈련에 참여한 후배들이 참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다.

동계에 참여한 선후배님들 모두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앞으로도 산에서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다.

## 경성대22 박태은

사실 나는 동계 훈련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지 않았었다. 선배들이 동계 훈련에 갈 때 ~이럴 것이다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한다 얘기를 하셨지만 나는 그냥 "가벼운 등산이겠지... 비? 비 온다는데 비 조금 내리고 그치겠지? 빙벽 타는데 메인이겠지? 그래 빙벽 위주로 일단 챙겨가자"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반성한다.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나는 동계 하루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서 5시에 알람을 맞았으나 잠이 오질 않았다. 겨우겨우 노력해서 30분을 잤다. 그리고 5시 기상. 비가 쏟아지는 게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도 나중에 양산가면 그치겠지? 라고 생각하고 연맹회관에 패킹한 배낭을 챙기러 갔다. 연맹회관이 집이랑 가까워서 배낭을 거기 뒀다가 아 그러나 배낭이 무겁더라도 집에 가져갈걸 그랬다 거기서 패킹하는데 한 30분가량 잡아먹었다. 그래서 6시 20분쯤 택시를 타고 허겁지겁 노포동으로 갔다.

도착하니 7시 15분인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지각했다. 그리고 학감님과 모두와 인사를 했고 버스를 타려는 순간 내 신발을 보고 다들 괜찮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켈 중요한 운동화를 깜빡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른 것들을 챙기느라 신발을 못챙겼다 아오 바보도 아니고. ㅋㅋㅋ 그리고 패딩도 안 챙겨갔다. 나는 아웃트레져 인가하는 것이 패딩인 줄 알고 안 챙겨갔다. 내 잘못이다. 내가 검색해서 찾아보아야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여러 고생 중 하나 하나가 된다.



첫날 양산 통도사 도착, 라면과 김밥을 먹고 지산마을에서 출발하였다. 드디어 영축산을 오르는데 비가 그칠 생각을 않는다. 내 신발은 벌써 축축하다... 종주 시작! 배낭이 2~30kg인데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이걸 매고 경사진 산을 올랐다. 어깨가 부서질 거 같았다. 아 타면서 계속 후회했다 흰 신발 왜 신었을까...

이중 내가 켈 막내라 그런지 다들 산을 잘 타셨다. 속으로 다들 안 무거운가? 배낭 무게 때문에 가다가 자주 쉬겠지? 했는데 쉬기는 어렵도 없다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 인제야 난 "아... 가벼운 등산이 아니구나! 동계 괜히 왔다." 그땐 그렇게 생각했다.

무거운 배낭에 어려운 바위 숲길에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계속 오르는데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이제 좀 쉬겠지? 했는데 계속간다ㅋㅋ 친구들이랑 등산할 때랑 차원이 달랐다. 더 가서 드디어 쉬었다.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옷은 축축했다 배낭 무게를 줄이고자 물의 부피라도 줄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쉬다가 배낭에서 물을 꺼내야지 했는데 꺼내려니까 다들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배낭은 또 뽕뽕 싸매서 물을 꺼내기도 너무 힘들었다. 내가 행동을 지체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날 기다렸다. 특히 학감님과 건우형에게 민폐를 끼쳤다 그렇게 다시 산을 올랐고 건우형이 화난 게 느껴졌다. 지각에, 신발에, 불 꺼내는 것까지... 화날 만하다... 나는 군대에 가면 진짜 많이 맞겠구나 를 느끼며 죄송스러운 마음 하나로 조용히 올라갔다. 젤 뒤에서 뒤쳐지던 나는 열심히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올라갔다 그리하여 또 쉬는 구간 거기서 바로 물을 꺼내서 부피를 비우고 올라갔다 목마른 것 보단 무게를 줄이는 목적이었다.

학감님이 주신 포도당을 먹고 힘내서 오르막을 올라갔다. 아까보다 더 힘든 코스다 네발로 기어 올라가는 게 나왔다. 이제 좀 오르는 요령이 생겼다. 그리고 선두로 가는 성환이 형 바로 뒤에까지 따라잡아 열심히 올랐다 건우형 기분도 조금은 풀린듯했다. 그리고 아까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했고 건우형도 너그려이 받아줬다. 신발도 미끄럽고 몸은 춥고 암튼 길이 좀 길어지니 최대한 요약해서 적겠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영축산 정상에 올랐다. 태극기를 펼쳤고 이제야 힘든 고비는 넘겼구나! 안심했다 그러나 비박지로 가는 길도 미끄럽고 아주 멀었다. 어깨가 힘들고 지치고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었다. 소원이 있다면 베이스캠프 이불 속으로 가는 것이었다.



첫날 비박했고 텐트 안이 최고였다 내일도 비가 내린다는데 하 제발 조금만 내리길 바랐다. 텐트 치는 과정에서 단체생활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고 특히 내가 막내여서 뭐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추워죽는 줄 알았다. 햇빛이 없으니, 옷은 안 마르고, 몇 시간 전 물 꺼낼때 갈아입을 옷들이 그때 다 젖어 갈아입을 수도 없고, 다른 선배들도 춥고 힘들데 힘든 티도 못 내고 그땐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 건우형이 옷을 빌려주고 싸리 누님께서 패딩을 빌려줘서 저체온증이 안 걸렸다. 정말 감사했다 꼭 언젠가는 은혜를 갚을 거다. 밥을 먹고 전날 잠을 30분 자고 고생해서 그런지 밤 11시에 잠이 들었다. 잠은 잘 잤다. 그리고 다음 날은 민폐 끼치지 말고 더 잘해야지 다짐하고 잤다.

둘째 날, 일어나자마자 잘해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밥 먹을 때 도와드리러 갔다. 근데 시작부터 실수로 나무판자를 밟아서 텐트 안에서 밥 짓던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나는 속으로 엄청

화가 났다. 하... 어제 그렇게 다짐했는데 또 실수했구나. 애타든 수제비를 먹고 짐 챙기는 것까지 했다가 또 출발하려고 비가 내린다. 신발은 엄청 축축해서 발이 얼 것 같았고 오늘 등산화가 온다는 말을 듣고 참아가며 다시 산을 올랐다. 간월재까지 가는데 추워서 열을 내기 위해 안 쉬고 열심히 갔다. 또 우여곡절 끝에 간월산 도착. 도착하고 다시 휴게소까지 간다. 힘들었지만 첫날의 힘들보단 덜했다. 학감님께서 이제 거의 절반 왔다 하셔서 더 힘내서 갔고 휴게소에 도착하니 김재영 선배님을 만났고 드디어 등산화를 빌렸다. 신발을 갈아신었고 정말 감사했다 이제야 좀 살 거 같았다 내 흰 신발은 진흙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었고 아무튼 배내봉을 향해 갔다. 가는 길이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무릎이 너무 아팠다. 어깨도 아팠고 이젠 너무 아파서 등이 안 꺾였다. 중간에 전투식량을 먹는데 춤지만 행복했다.

우리가 벌써 양산에서 울산 지나 밀양 쪽으로 가고 있었다. 아 부산에 산은 산도 아니구나! 느꼈고 영남알프스를 종주한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생겼다. 건우형과 서로 도와주며 갔다. 그리고 마침내 배내봉 정상에 올랐다. 벌써 봉우리 3개를 종주했다 이제 배내고개로 내려오는데 내리막길이 겁나게 길었다. 결국 비박지에 도착하여 텐트를 치고 또 단체생활이니 춤지만, 열심히 하였고 옆에 고깃집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그냥 실내가 있다는 거 자체가 감사했다. 이제 오늘 하루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기를 굽고 긴장을 풀었다. 그 옆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있던 손 말리는 기계가 너무 따뜻했다 옷 말리기에 최고였다. 비가 계속 오니까 이제야 옷 좀 말려야지 하고 긴장의 정신줄을 놓고 화장실에 갔다. 곧 있으면 철수한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에이 설마 또 안 늦겠지. 안일하게 생각했다.



근데 예감이 불길한 게 옷 말리고 식당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다. 난 큰일났음을 감지했다. 뛰어가서 건우형 표정을 보는데 건우형이 화가 제대로 났다. 식당 안에 넣어놓은 내 옷들 다 형들이 챙겼다. 나는 그날 하루 잘해왔다가 한 순간에 큰 실수를 해버린 것이다. 또 단체생활에 민폐를 끼쳤다. 나는 혼나고 조용히 텐트 안에 들어가 반성했다. 나는 1시간가량 말하지 않았고

나 자신한테 너무너무 화가 났다. 잘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이정도 밖에 안되는 건가? 라는 생각하면서 반성했다. 건우형, 바다형한테 혼난 뒤 형들이 잘 달래줬다. 형들도 스무 살 때 그랬다고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고 그랬다 그때 쯤 울컥했고 훈훈하게 끝났다.

셋째 날 일어나자마자 짐 정리 잘했고 역시나 비는 계속 내린다. 이젠 익숙하다. 천황봉 오를 생각을 하니 막막했지만, 오늘만 잘하면 베이스캠프를 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학감님께서 바다형과 날 부르셨다. 건우형이 무릎이 안 좋아서 바로 베이스캠프 펜션에 가는데 너희들은 더 할 수 있겠느냐 여쭙보셨다. 나는 솔직히 베이스캠프 너무 가고 싶었

다. 근데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건우형과 나를 바로 베이스캠프로 가라고 하셨다. 나도 조금은 무릎이 아팠는데 어찌 보면 다행이었다. 속으로 너무 행복했다. 그 대신 우리가 모든 침낭 텐트 다 배낭에 짊어지고 가기로 합의 봤다. 그렇게 산타는멤버들과 갈라서고 우린 밀양 바람의 향기로 향했다. 건우형과 단둘이 가는 것도 웃겼는데 우린 그날 길을 겁나해맸다ㅋㅋ 학감님이 보여주신 방향으로 갔으면 1시간 40분 만에 도착했을 건데 건우형 따라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버려 길을 헤맸다. ㅋㅋㅋ

우린 원동역(학감님 지도 방향) 으로 안 가고 언양으로 가서 결국 울산역까지 가게 됐다. 가는 길에 언양 족구 회원들도 만나고 참 재밌긴 했다. 결국 상화 형이 우릴 구해주러 왔다. 울산역에서 상화형 차가 도착해 박태은! 부르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전투 중에 지원군이 상륙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상화형 부모님 차를 타고 펜션에 도착하니 딱 동시에 갈라섰던 멤버들과 만났다. 베이스캠프를 갔고 드디어 샤워하는데 너무 행복했다. 회장님도 계셨고 재형? 강사님과 드디어 만났다. 이후 강사님이 레펠 가르쳐주시는데 되게 성격이 쿨하고 시원시원해서 좋았다. 그렇게 셋째 날 종주를 끝내고 침대에서 잠을 잤다. 이제 사람처럼 잠을 잔다니 행복하다.

넷째 날 식사를 하고 학암폭을 가는데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햇빛이 보였다. 안개가 없어졌다!!! 아 햇빛!!! 천국이였다 모든 게 감사했다. 이제 종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도 없고 배낭도 없으니 그냥 그 자체가 행복이다. 빙벽훈련 주마 기술을 배우고 라면을 먹고 내려왔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전 생수가 없어서 수돗물을 마셨다. 그게 좀 아쉽긴 했다. 그날 밤에 노래를 불렀는데 먼지가 되어 를 부르려다가 바다형이 불렀고. ㅋㅋㅋ 나는 뭐 부르지 하다가 내가 마지막 차례가 되었다. 나는 냅다 버즈-가시를 불렀고 반응은 좋았다. 노래 투표로 2등이 되었고 초대 가수로 나, 바다형과 건우형 경성대 3인방이 붉은 노을과 버스안에서를 불렀다 재밌는 하루였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어나니 목이 아팠다 감기에 걸려서 하루 쉬었다. 약 먹고 아주 오랜 시간을 잤다. 역시 잠이 보약인지라 머리 아픈 것만 빼면 금방 회복됐다.

밤에 간만에 밖에 나가서 별을 보는데 그냥 종주 안 하고 학암폭 안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행복했다.

마지막 날. 아침에 학암폭에 올라가 바다형 한 테 아이젠 강강을 배웠다 피켈 쓰는 법도 배우고 내려왔다 동계 내내 라면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얼굴도 좀 부었다. 당분간은 라면 안 먹

어차지 생각했고 펜션으로 내려와서 짐 정리 다 하고 집에 갈 준비 했다. 아... 드디어 동계 훈련 다 끝났구나! 너무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적음이 돼서 아쉬웠고 동계를 수료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이후 식당가는 길에 건우형이 고생했다고 이제 태은이 군대에 가면 잘할 거라고 칭찬해 줬다. 나도 군대 예습했다 생각하니 뿌듯했다. 이후 밥을 먹고 회장님께서 오셨다. 수료식을 진행했고 나는 대상을 받았다. ㅋㅋㅋ 감사했다ㅋㅋㅋㅋ 카라비너를 선물을 받았는데 또 감사했고 회장님이 건우형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하셨는데 냅다 "저희 형제입니다."라고 농담했고 회장님은 진짜 믿으셨다... ㅋㅋㅋ 아무튼 다들 고생한 멤버들에게 다 감사했고 이제 다들 차를 타고 해산했다. 학감님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저물어 가는 석양을 보면서 가슴이 웅장했다. 아, 이게 동계구나! 이제 힘든 고생을 해봤으니,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학감님과 포옹 후 작별 인사를 했고 상화 형도 집 가고 건우형과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갔다. 건우형이랑 동계 훈련에 대한 느낀 점을 공유했고 형이랑 작별 인사하고 이제 나 홀로 우리 동네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배낭을 보고 다들 신기한 듯 쳐다봤다. 집에 오니 부모님이 고기를 구워주셨고 집이 최고구나 생각하고 잤다.

동계 후 다음 날 근육통이 있었고 그다음 날 동계 훈련의 진가가 나왔다. 일단 몸이 엄청나게 가벼워졌고 걷는데 종아리가 단단한 게 느껴진다. 일단 배낭을 안 메고 있으니 뭘 해도 가볍고 체력도 넘친다. 힘을 얻었구나. 바로 느꼈다. "아, 이거구나" 나는 동계 첫날 "내가 이 산을 다시는 오나 보라." 했었는데 다시 가고 싶다! 왜 산악인들이 산을 타는지 알겠다. 학감님이 말씀하셨지. "동계를 가야 진정한 산악인" 그래 난 산악인이 되었다.

이 외에도 단체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 앞가림 챙기는 거 등 여러 가지를 배웠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이 성장했다.

동계 훈련은 내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 경성대 20 양바다

### 1일 차

#### 동계인가, 하계인가.

처음으로 가보는 종주. 산악 동아리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도 금정산 같은 산을 당일치기 등산하고, 하산한 경험밖에 없어 긴 산행은 어떨지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이 있기도 했다. 워낙 든든한 부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큰일은 안 나겠다고 생각하며 종주를 시작했다.

첫날부터 당황스러웠다. 유튜브 등에서 본 겨울 산행은 눈과 함께했지만, 우리는 비와 함께 산행을 시작했다.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아 마치 장마 기간의 여름이 떠오르는 듯한 날씨였다. 비에 젖은 땅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미끄러웠고, 배낭도 비에 젖어 무게를 더했고, 등산화가 없어 신고 온 전투화는 얼마 못 가 비를 제대로 막지 못해 양말이 흠뻑 젖어 버렸다.

거기다 영축산은 왜 이렇게 높고, 오르막길이 많은지. 아무리 가도 가도 정상은 보이지 않았고, 오르막은 마치 산을 수직으로 오르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끝이 없었다. 옆에서 산을 같이 오르는 건우에게 '우리 하계 훈련 온 거 아니야?', '오르막이 끝이 없는데?'라며 계속 불평했

는데, 불만을 잘 받아주던 건우도 종반에 가서는 힘든지 묵묵히 산을 오르지만 했다. 겨우겨우 정상에 올라, 이제 아름다운 경치가 기다리고 있겠다 생각했지만, 안개에 가려 풍경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동네 뒷산을 오른 건지, 백두산을 오른 건지 모를 정도로 안개가 짙어 정말 흰색 배경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정상에 올랐다는 뿌듯함은 잠깐이었고,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곧바로 비박지로 이동해야 했다. 안개에 가려 앞사람은 열 발짝만 걸어 가도 잘 보이지 않았고, 하산 길은 더 미끄러워 내려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거기다 내 정신도 안개에 혼란해졌는지, 학감님이 내게 맡긴 플래카드는 영축산 정상 촬영을 끝으로 내가 잃어버리고 말았다.

### 첫 비박, 낭만?

텐트를 치고, 밖에서 자는 일은 중학교 이후로는 처음이라 낭만적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우중 산행에 지쳐 빨리 텐트를 치고, 안에 들어가서 쉬고 싶다는 마음만이 앞설 뿐이었다. 하지만 텐트를 제대로 쳐본 적도 없고, 우리가 가져온 텐트도 아닌지라, 부산대 학우들이 텐트 치는 걸 옆에서 우물쭈물하며 보조하기만 했고, 텐트 이외에도 요리 준비나 짐 정리 등에서도 무엇을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랐다. 경성대도 나중에 비박 훈련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척척 일을 진행해 준 다른 대학 학우들이 존경스러우면서도 참 고마웠다.

어두운 산 근처이기에 밤에는 별이나 구경해야지 싶었는데, 안개 때문에 별은커녕 달도 보이지 않았다. 성준이도 별을 기대하고 촬영 장비까지 가져왔지만, 무용지물이 되었다. 텐트에서 잘 때는 정말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싶은 정도로 주위가 고요했으나, 젖어 버린 침낭과 고요함을 깨는 태은이의 코골이 덕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는 못했다.

그래도 영축산에 오를 때 먹었던 점심 비빔밥과 초콜릿은 정말 맛있었고, 텐트에서 먹는 고기도 너무 맛있었다. 다 같이 사진을 찍고, 텐트에서 오순도순 모여 얘기를 하는 순간들도 평생에 남을 순간들이었다.

### 2일 차

####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그리고, 내리막은 힘들다.

지친 몸을 일으켜 아침인지 밤인지 모를 어두운 새벽에 아침 준비를 하고, 비에 젖어 무거운(플래카드를 잃어버려 어찌면 가벼워진) 배낭을 메고, 다음 장소로 향했다. 신기하게도 첫날만큼 힘들지 않았다. 하루 사이에 적응한 것도 있었고, 비도 많이 내리지 않았다. 거기다 불편하게 잠들었던 것 같은데 의외로 몸은 개운했다. 전날과 아침에 밥을 엄청나게 먹어서였는지 힘든다는 것 같았다. 여전히 안개 때문에 주위는 하얗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정신과 육체는 멀쩡해진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간월재 휴게소까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동했다. 거기다 간월재에서는 베테랑인 재영이와 합류하여 정신적으로도 힘이 났다.

이대로 수월하게 둘째 날이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역시 그러지 못했다. 간월재 휴게소까지는 점심도 먹지 않은 이른 오전 일정이었고, 우리는 4시까지 주야장천 걸어야 함을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 선두 그룹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간월산 정상까지 재영이의 뒤에 딱 달

라붙어 갔는데, 곧 후회했다. '애는 지치지도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영이는 오르막을 쭉 쭉 올라갔고, 뒤에서 따라오는 부산대 차기 부장 인수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나는 그 사이에 꺼서 뒤처지지도 앞서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간월산을 올랐다.



산을 오른 후에는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능선을 타고 가야 한다. 선두는 너무 힘들다 느낀 나는 이번에는 같은 경성대 부원들과 함께 가장 후미에서 하산을 시작했다. 선두 그룹은 저 멀리 가버리고, 경성대는 운동화를 신고 온 태은이와 함께 안전하게 운행했다. 그래도 큰 오르막도 없고, 큰 내리막도 없는 능선이라 비교적 점심까지 수월하게 산을 오르내렸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난 후에는 학감님이 경성대가 먼저 도착해 보자며 우리를 선두에 세웠고, 나머지 대학부원들이 뒤를 따르는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후미에서 느긋하게 가고 싶은 나의 바람은 사라졌다.

본격적인 내리막길 계단이 시작되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아픈 것 같았다. 무거운 짐을 메고 있으니 더 그랬다. 살이 찌면 무릎이 좋지 않다는 게 확 느껴졌다. 그리고 계단은 마치 첫날의 오르막처럼 끝없이 이어져 우리는 계속 내려가야 했다. 첫날과 달리 오전부터 산행을 계속해서 그런지 체력이 정말 다 빠진 것 같았다. 내려가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저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풍경은 여전히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나는 바다만 보며 다리를 옮겼다. 오른 만큼 내려가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참 가혹하다고 느껴졌다.

### 실내의 따뜻함과 실외의 차가움.

안개처럼 희미한 정신과 체력으로 겨우 산에서 내려와 텐트를 칠 주차장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보는 도로를 보니 참 반가웠다. 텐트를 치는 것도 재영이의 주도하에 잘 이루어져서 첫날보다 수월하게 처진 느낌이 들었다. 저녁 준비도 학감님이 가게를 섭외해 오셔서 실내에서 준비할 수 있었다. 가게에 있는 난로에 젖은 옷들을 말리고, 오랜만에 식탁과 의자에 앉으니, 천국이 따로 없었다. 따뜻한 어묵과 어묵 국물까지.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다. 거기다 막걸리를 한잔했는데, 정말 내가 먹어본 막걸리 중에 최고로 맛있었다. 술에서 정말 단 맛이 난

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거기에 파전과 우리가 힘겹게 가져온 고기까지 먹으니 정말 든든했다.

하지만, 잠자리는 아주 차가웠다. 텐트 내부에 습기가 들어차서 축축했고, 침낭은 더 젖어서 이젠 덮어서 자기도 힘들었다. 가장자리에서 자는 나는 첫날보다 더 잠을 못 잤다. 첫날엔 그래도 물은 들어오지 않아 나뭇 따듯했는데, 둘째 날은 바람과 비, 습기로 인해 정말 추웠다. 그래도 오늘날자면 실내에서 잘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어떻게든 잠자리에 들려 노력했다.



### 3일 차

#### 2명의 이탈과 2명의 완등.

내리막길의 여파로 건우의 무릎 부상이 재발했다. 원래도 무릎이 좋지 않아 주사를 맞고 참여한 건우였는데, 멀쩡한 내 무릎도 아팠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결국, 건우와 컨디션이 좋지 않은 태은이는 천황산 등산길에 함께하지 못하고, 둘은 곧바로 펜션에 가기로 했다. 나도 힘든 산행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끝까지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나까지 가게 되면 경성대는 성준이만 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그렇게 2명은 산 아래에서의 여정을 떠나고, 2명은 천황산을 향해 올라갔다.

정말 운이 좋았다. 펜션을 찾는 여정을 떠난 건우가 자기가 쓰던 등산 스틱을 나에게 건네주고 갔는데, 정말 이 스틱이 없었다면 완등 못 했을 것이다. 셋째 날이 정말 힘이 없었던 것 같다. 전날에 잠을 자지 못한 여파와 내리막길로 인한 무릎의 아픔이 강했다. 나는 등산스틱에 기대다시피 하며 천황산을 올랐다. 다행히 오르는 길에는 휴식이 많아서 겨우겨우 따라잡을 수 있었다.

천황산에서 드디어 동계를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상에 가까워지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줄곧 비와 함께한 산행에서 처음으로 눈을 보니 정말로 반기웠다. 거기다 눈이 내리는 천황산의 풍경은 비록 여전히 안개가 많았지만 제법 아름다웠다. 인기가 많은 산인지 정상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많았고, 중간중간에도 사진을 찍을만한 장소가 많아 사람이 가장 많은 산이었다. 비와 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산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눈의 로망도 잠시, 하산 중간지점에서 점심을 먹을 때 이번 동계 처음으로 강렬한 추위를 느꼈다. 땀에 젖은 옷에 바람이 닿자 정말 추워서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빨리 걷는 게 나를 정도로 추웠기 때문에 속으로 빨리 출발하자고 생각했다.

### 펜션으로 향하는 길과 재회.

천황산에서 재약산까지는 거리가 가까웠다. 학감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도착했다. 뒤따라오는 성준이와 싸리가 길을 헤매서 약간의 기다림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수월한 구간이었다. 재약산에서 성준이와 둘이 태극기를 들고 사진도 찍어 경성대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 남은 것은 이제 펜션으로 향하는 길. 나는 산에서 내려가면 펜션이라는 말을 듣고, 곧 도착하겠다고 생각하며 희망차게 재약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산행 중 가장 힘든 구간이 바로 이 하산 길이었다. 체력은 체력대로 첫째, 둘째 날, 그리고 천황산에 다 써버렸고, 내리막길을 담당하는 무릎도 힘이 다한 게 느껴졌다. 종주 내내 활기찼던 성준이도 갈수록 말이 없어졌다. 이렇게 조용한 성준이는 본 적이 없었다. 첫날이 끝없는 오르막이었다면 마지막은 끝없는 내리막으로 우리를 괴롭혔다. 포장된 내리막길, 비포장 된 내리막길, 자갈로 된 내리막길, 진흙으로 된 내리막길 등 다양한 내리막길이 우리를 맞이했고, 나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으며 맨 뒤에서 걸어갔다.

하산 길에 학암폭을 지나갔는데, 얼음이 다 녹아있었다. 급히 통화하는 학감님의 얘기를 들어 보니 아무래도 빙벽훈련을 제대로 소화하기에는 힘들어 보였다.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나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 상태로는 정말 어떤 훈련도 못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펜션에 가까워지며 드디어 민가가 보였을 때는 정말 기뻐다. 고작 2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주차장에 주차된 차와 주택들을 보니 정말 반가웠다. 자연이 아닌 인류의 발명품들을 보니 마치 내가 그것들의 발명자가 된 것처럼 기뻐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해서 빙벽 장비를 나를 때 즈음하여 건우와 태은이도 상화 부모님의 차를 타고 도착했다. 빙벽 장비를 나르던 나는 정말 반나절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을 만난 기분이 들 정도로 그들이 반가워 소리를 질렀다.

펜션의 난방은 차가워진 내 몸을 녹이기에 충분했고, 연맹 회장님이 준비해 주신 돼지국밥과 음식들도 최고로 맛있었다. 이대로 쉬고 싶었지만, 우리는 내일 있을 훈련을 위해 하강 연습을 했고, 빙벽 장비를 확인한다고 정신없이 밤을 보냈다.

### 4일 차

#### 따스한 햇볕과 즐거움.

4일 차는 거짓말같이 날이 개어서 종주 처음으로 아침에 햇빛을 보았다. 주마링을 배우러 훈련하는 길에 태은이와 햇빛을 찬양하며 종주를 오지 않은 상화에게 그 소중함을 전파하였으나 상화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역시 종주를 갔다 와야 한다.

날씨도 맑고, 짐도 가벼워 다시 학암쪽으로 가는 길은 천국 그 자체였다. 등산이라기보다 산책에 가까웠고,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웠는지 처음 알았다. 훈련 장소에 도착해서도 종주가 아닌 등반 기술인 주마등을 배우니 힘들지 않고 정말 재미있었다. 더 할 사람은 남으라고 강사님이 말했을 때 내려가서 쉬지 않고 더 연습할 정도로 재미있었다. 종주에 비하면 모든 게 재밌고 행복했다. 역시 종주를 갔다 와야 한다.

저녁에는 스트레칭도 하며 몸을 풀었고, 막걸리도 마시고, 라면도 먹고, 성준이의 두부김치도 먹으며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 노래 한 곡씩 해보라는 강사님의 말에 노래 시간이 열려 처음에

는 당황스러웠지만, 다 같이 노래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다. 내 차례가 됐을 때는 그 즐거움이 너무 커져서 '먼지가 되어'를 열창했고, 베스트가수로 뽑혀 붉은 노을까지 부르며 흥겨운 밤을 보냈다. 건우와 태은이의 버스안에서를 마지막으로 즐거운 하루가 끝났다.



## 5일 차

### 최후의 5인과 아이젠 강강.

어제 너무 긴장을 풀어 버린 탓일까. 성준이, 태은이, 건우가 아파 5일 차 훈련에는 함께하지 못했다. 학암쪽으로 가서 어제 배운 주마링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일광욕으로 잠시 녹이는 시간도 가졌다. 다행히 기온이 많이 내려가 간단한 빙벽훈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얼음이 얼어 아이젠을 신고 훈련했다. 하지만 훈련 전에 몸 상태가 나빠진 2명이 펜션으로 내려가고, 결국 5명만 남아 훈련을 진행했다.

아이젠 강강을 외치며 어깨너비 11자를 유지하며 걷는 연습을 하고, 뼈에 마르시, 뼈에 당까 나르 등 걷는 방법도 배우며 즐겁게 얼음 위를 걸어 다녔다. 피켈도 얼음에 박아보고, 피켈에 매달려 벽에 아이젠을 박는 연습도 하며 동계다운 훈련을 계속했다. 종주를 끝내고 하산할 때는 힘들어서 빙폭이 없는 게 크게 아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훈련받으니 역시 빙폭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느꼈다. 피켓이나 아이젠을 더 활용하지 못한 게 참 아쉬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빙벽훈련을 받은 것이 참 좋았다. 간단한 훈련을 마치고 남은 시간에는 자연 암벽을 등반했다. 기존의 8자 매듭법이나 확보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피드백을 강사님에게 받

아 좋았고, 장갑과 전투화를 끼고 등반하는 게 처음이라 신기한 기분이 들면서도 재밌었다. 빙 폭은 없었지만 정말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어 좋았다.

내려와서는 학감님이 준비해 주신 고기와 밥을 먹었는데, 최후의 5명 모두 지쳐서 그런지 입을 모아 오늘 밤에 먹은 저녁이 가장 맛있다고 말했다. 아마 평생이 맛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닐까. 적어도 산에 간다면 계속 떠오를 것 같다.

## 6일 차

### 마지막과 집으로

6일 차에는 나도 녹초가 되었고, 오른쪽 무릎도 너무 아파서 올라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일정을 소화하고 싶어 힘을 내어 올라갔다. 다행히 강사님이 어제 오지 못한 성준이와 태은이의 기본 훈련을 알려주라고 하셔서 아이젠 깡깡으로 부서진 무릎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싸리와 함께 돌을 가르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고, 곧 하산하게 되었다. 마지막 하산 길에는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서 상화와 태은이와 함께 많이 뒤쳐져 내려갔다. 이것만 내려가면 집에 갈 수 있다는 희망과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는 뿌듯함에 아프지만 보람찬 하산 길이 되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있어 더 좋았다. 건우가 함께 하지 못한 게 참 아쉽기도 했다.

집에 갈 준비를 마치고, 식당으로 가 다 함께 만찬을 즐기고, 상으로 카라비너도 받고, 연맹 회장님과 사진도 찍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으니 정말 뿌듯하고, 끝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정말 고맙게도 부경대의 박준범 선배님이 사진도 찍어 주시고, 성준이와 나를 다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까지 데려다주셨다. 산악부의 끈끈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정말 이번 동계에서 학감님, 강사님, 박준범 선배님, 연맹 회장님, 다른 학교의 산악 선배들 등등 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지냈다는 게 느껴졌다. 이번 동계는 정말 내가 받은 어떤 훈련보다 힘들었지만, 끝나니 너무 뿌듯했고, 나도 내 후배 부원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대 22 백인수

## 1월 13일

노포역으로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약간의 희망을 품고 밖을 보았을 때 자기 전보다 비가 더 오는 걸 확인하고는 그럼 그렇지 하며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출발했다. 노포역 버스터미널에서 버스에 탑승하고 신 평 터미널에 도착 후 아침을 먹었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맛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터미널을 나가는 길에 우리 일행에게 한 아주머니가 우산을 주시면서 비가 오는 데 쓰고 가라고 엄청나게 걱정을 해주셨다. 아주머니도 우산이 한 계셨을 텐데 돌려받을 생각 없이 순수하게 걱정과 마음으로 선뜻 배려를 해주심이 감사했다.

오전 9시 30분에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되었다. 우산을 꺼내어 가방에 걸치며 손으로 잡으니, 생각보다 편해서 계속 우산을 쓰고 올라갔다. 쪽 등산하면서 유용하게 썼는데 바다형하고 성준



이가 “컨셉이다”라며 말하니 웃음이 나왔지만 약간은 억울했다. 등산하면서 쉬고 올라가고를 반복하니 다들 체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퍽 들었다. 싸리가 동계를 가기 전부터 배낭의 무게와 종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어느새 앞에서 척척 나가는 모습을 보니 ‘역시 싸리’라며 속으로 응원하면서 길으로도 많은 응원을 했다.

오후 2시 30분쯤 영축산에 도착했는데 싸리와 지윤누나가 엄청나게 행복해하며 기분이 좋아 보여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이후 길이 막 험하지도 않고 힘든 길이 없기에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다. 다들 힘들어하면서도 앞사람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오는데 대단했다.

정상에서 사진을 찍고 다시 출발해서 오후 4시쯤 신불재에 도착하고 맛있는 식사와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의 소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뜸 나의 칭찬을 해서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좋았고, 나도 싸리가 대단했던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훈훈한 분위기에 덩달아 밤하늘도 예뻐다.

### 1월 14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평소에 잠을 많이 자기도 하고 밤에 뒤척이며 잠을 설치니 피곤했지만 다들 피곤한 건 마찬가지기에 마음을 다잡고 아침과 출발을 위해 힘을 냈다. 아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슈와 짐을 다시 패킹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려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닥치니 스스로 많은 한계를 느꼈다. 더 잘하고 싶다는 아쉬움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신입 부원일 때 부장을 맡은 재영이 형이 빨리 보고 싶었는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싸리도 그렇다고 하니 싸리도 힘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산행을 이어가면서 신불산을 넘고 간월산을 넘고 배내고개에 도착해서 텐트를 쳤다. 바람이 계속 불고 비도 조금씩 내려서 텐트 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땅에 텐트를 치다 보니 많이 몰랐던 점도 많았고, 미숙한 점도 많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 옆 산장에서 저녁을 맛있게 했다. 가지산 막걸리가 참 맛이 좋았고 산장의 고양이도 귀여웠다. 밤에 각자 짐을 정리하고 텐트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잠에 들었다.

### 1월 15일

종주의 마지막 날이다. 태은이와 건우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숙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둘의 여정이 큰 고난이 없길 바라며 남은 자들의 여정을 떠났다. 처음 보는 길이라 많아 어색했는데 먼저 온 적이 있는 재영 형이 이것저것 길을 알려주셨다. 천왕산에 도착하고 천왕재에 내려서 점심을 꺼내려는 찰나에 작은 가방을 천왕산에 두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다시

올라가야 하나라는 고민과 걱정에 가방 안에 물건이 중요한 물건이기에 올라가기로 결심했고 학감님에게 말씀드리고 빠르게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바보 같은 실수를 한 나를 자책하며 올라가던 도중 주변 풍경이 예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마음은 급했지만, 하얀 산의 경치는 마음에 힘이 되었다. 천왕산에도 가방이 없어서 사진 찍었던 곳까지 갔다가 없는 걸 확인하고 터덜터덜 천왕재로 빠르게 이동했다. 그러나 천왕산에서 표지판에 가방이 걸려있는 걸 기적적으로 발견했다. 하늘에 감사하며 내려가던 도중 “아 학생 가방이었구나!”라는 말을 듣고 뒤돌아서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다시 내려갔다. 천왕재에서 나의 실수로 모두가 기다렸기에 모두에게 죄송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출발해서 재약산에 도착하고 이후는 쪽 하산해서 숙소에 도착했다. 하산하던 도중 바다형이 실성하며 뛰어가고 종이 인형처럼 걸어가는 걸 보고 아주 힘드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들었다.

숙소는 너무나 좋았다. 꼬질꼬질한 우리들은 짐을 정리하고 준비해 주신 밥을 먹었다. 국밥과 치킨이었는데 감동이었다. 이후에 못다 한 짐 정리를 하고 샤워했는데, 평소애 땀 냄새가 잘 나지 않는대도 심각한 냄새가 났고, 이를 다 씻어내니 너무나 상쾌했다. 인제 정리하고 이야기하면서 놀다가 자면 되겠다 ~ 라는 생각을 하던 중 재연 강사님이 오셔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시더니 주마링과 하강 연습을 시키셨다. 둘 다 잘하지 못했던 우리는 허를 찔린 느낌이었고, 이후 조를 나누어서 다음날 등반계획을 설명하셨는데, 사실 놀 생각이 싹 달아나고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경험과 실력이 출중하신 재영이 형이 이것저것 알려주시면서 우리 조의 계획을 설명하셨는데 너무나 안심이 되었고 다시 한번 존경심이 들었다. 그렇게 각자의 마음속에 걱정과 우려를 품고 잠에 들었다.

### 1월 16일

아침을 간단하게하고 학암쪽으로 이동했다. 종주할 때는 이야기도 못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배낭이 가벼워지고 길도 편안하고 즐거워 다들 이야기하며 어느새 학암쪽에 도착했다. 원래는 빙벽이 있어야 할 자리 오른쪽 암벽에 재연 강사님 제영 형 성환이 3명이 함께 올라가 자일을 고정하고 내렸다. 그 자일로 주마링을 하는데 영 힘들었다. 양손으로 주마링을 하는데 힘들었고 밑에서 짜리 하는 거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를 들어 옆에 오르는 짜리를 보았다. 짜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옆에서 봐줘서 좀 더 수월하게 주마리를 배울 수 있었다. 역시 짜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고마웠다. 이후 연습 더하면서 약간의 숙달이 된 거 같아 기분이 좋았다. 하산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노래자랑 시간이 열렸다. 알코올의 힘을 빌려 한 곡하고 경성대 콘서트를 보았다. 바다형의 콘서트는 너무나 재미있었고 큰 웃음을 주었다. 노래로 그렇게 분위기를 좋게 하는 모습이 참 멋있었다. 다들 즐기고 행복한 밤을 보내었다.

### 1월 17일

학암쪽으로 이동해서 오전 중에는 주마리를 연습하고 오후에는 빙벽을 연습했다. 빙벽연습은 상은 선배님이 이어서 하셨는데, 교육자의 경력이 있으셔서 우리들을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교육해 주셨다. 하산하면서 살아남은 독수리 오 형 제라며 농담했다. 도착하고 저녁을 먹는데 딱 짜한 느낌과 함께 속이 안 좋아졌다. 아니나 다를까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누워서 아무것도 못 했다. 대신 가방을 싸준 짜리와 제영 형에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

밤은 오한이 들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버텨서 내일 꼭 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참이 들었다.



### 1월 18일

아침에 상태가 좋아지면 학암쪽에 가서 마지막 일정을 같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상태가 아직 좋지 않아 숙소에 있었다. 모든 일정 중 특히나 마지막 교육에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학감님이 손도 따주시고 휴식을 취하니 몸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

사람들이 복귀하고 마지막으로 짐과 숙소를 정리하고 점심과 수료식을 하러 이동했다.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고 동동주도 맛있어 보였는데, 아직은 상태가 좋지 않아 자제해서 슬펐다. 수료식을 마치고 돌아가려니 아쉬웠다. 사실 끝이 다가올수록 아쉬움이 다가왔다. 일주일간 다들 같이 생활하고 즐겁게 고생하며 정이 들었는데, 이후에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 접점이 줄어들고 언젠가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 슬프기도 했다.

다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부산대로 돌아갔다. 물 맞은 장비와 텐트를 말리고 집으로 되 돌아갔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생각과 참 즐거웠다는 생각과 아쉬움이 들며 옷들을 손빨래하고 동계등산학교를 마무리했다.

### 느낀 점

동계를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에 질문받게 되었는데, 부장이 되기 전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참석했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목표도 달성했다. 하지만 훈련 당시 마음이 무거웠다. 작년도 상반기 부장을 했던 재영 형을 보면서, 이전 부장들을 생각하며 내가 그만큼의 실력과 리더십이 있는가를 많이 생각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 평소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대통령기 등 경험이 많은 짜리는 자신의 강점을 뚜렷하게 보였고, 믿고 따르던 재영이 형은 원래 보이던 모습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두 명 다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한다. 그에 비해서 나는 아주 부족하다고 느꼈다. 능동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어미 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아기새처럼 행동했다고 생각한다. 동계 훈련을 하며 부족했던 점을 알게 되었고, 책과 여러 가지 매체와 주변에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방법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매꾸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실천할 차례라고 생각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며 책도 찾아보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참여하고 많이 배우며 더욱 성장한 내가 되고 싶다는 동기와 원동력이 내가 동계에서 배운 가장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동계 후기를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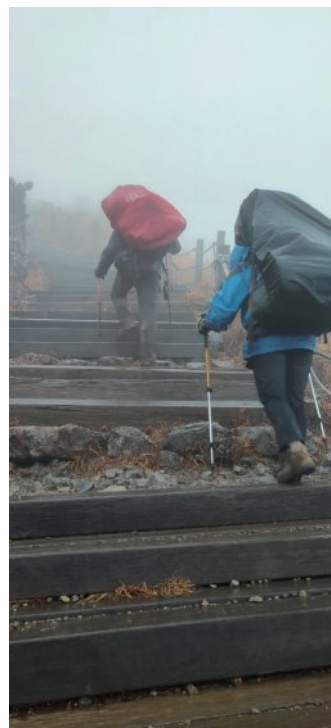
## 부산대 21 켓분르 분야닛(짜리)

### 시작하며...

작년에는 체력 부족과 첫 겨울을 동계에서 보낼 자신이 없어서 동계를 못 갔다. 1년이 지나 산행과 여러 대회를 통해 체력을 길러 나갔고 단대 오비 선배님들과 학암폭 예비 훈련하러 갔을 때 좋아진 체력과 힘을 느꼈다. 몸이 준비되어 있으면 동계를 완전히 즐기고 배워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일단 기뻐다. 동계는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다. 동계를 다녀오면 산악부 정회원으로 인정을 받는다. 많은 시간을 산악부에 투자한 만큼 나는 산악부에 대한 애정이 많고 준회원으로 머물러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번 동계에 재영 오빠와 인수가 함께 가니 정말 좋았다.

### 1/11 수요일 연맹회관

아아 시간을 빨리 지나갔고 어느새 출발 3일 전이 되었다. 연맹회관에 모여 공동장비, 식량을 분배했다. 다시 부실에 와서 다시 패킹을 해보았다. 아직 개인 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20kg을 넘었다. 걱정되었다. 난생처음 들어본 이 무게에 자신이 없었다. 일에서 돌아온 재영 오빠와 셋이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갔다. 맛있게 먹다가 무시무시한 무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다시 살아났다. 재영 오빠가 내 좋아진 체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라 하지만 무등산 때는 짐이 없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생각에 눈앞이 깜깜했다. 재영 오빠가 둘째 날에 짐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해서 조금은 걱정을 덜어냈다.



### 1/12 목요일

부실로 가서 재영 오빠의 말 따라 파랑이 고어텍스를 챙겼다. 집에서 출발할 생각으로 오후에 배낭을 짐으로 들고 왔다. 할 수 있을지도...? 벌써 내일이라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 1/13 금요일

인수랑 장전역에서 보기로 했다. 아침에 일어나 대통령기에서 배웠던 무릎 테이핑을 했다.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스틱과 무릎 테이핑, 내 다리를 믿으며 장전역으로 향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헤치며 고어텍스 성능에 놀라고 장전역에서 조금 늦은 인수를 기다려서 같이 노포로 향했다. 무게가 많이 나가서 버거웠는데 인수가 버스에 배낭 싣는 것을 도와주어 무척 고마웠다. 통도사에 금방 도착했다. 아침 먹고 마을버스를 타서 출발 지점에서 사진 몇 방 찍고 출발했다.

인수의 형광 우산이 신기했다. 재영 오빠도 산에 우산 잘 챙겨가곤 하는데 둘이 참 닮았다.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비는 그칠 기미가 없고 우리는 출발했다. 힘들었다. 하지만 이 무게를 누가 대신 들어줄 수 없다. 학감님이 산행을 중단시키는 망상을 한번 해봤다. 허황한 희망을 버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이 무게를 책임지고 천천히라도 가보자고... 몸무게가 비슷한 지윤 언니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고 힘을 내기로 했다. 내 허벅지는 마음만큼 힘을 못 냈지만, 끝에서 학감님이랑 열심히



걸어갔다. 끝에서 같이 가주고 중간중간에 챙겨준 성환이, 성준이, 인수에게 고마웠다. 산 가면 고마운 사람들이 한가득이다. 점심을 먹고 학감님께서 나를 앞세우기 시작했다. 체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동계에서 종주할 줄은... 20kg을 들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

산악부 활동은 나를 자주 극한으로 밀어낸다. 정상까지 400m가 남은 지점에서 잠시 쉬고 나는 학감님의 부름에 다시 맨 앞에서 걸어간다. 내 첫 영알은 요 지점에서 100m마다 쉬기를 반복했다. 많은 산행 경험에서 배운 게 있다면 오르막은 쉬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덜 힘들다는 것. 힘든 건 어차피 똑같다,, 계속 걸어가자. 이 종주를 마치고 한층 강해질 내 허벅지를 상상하며 악을 쓰고 올라갔다. 그렇게 마주친 영축산 정상은 내게 감동을 주었다. 눈물 날 뻔했다. 첫 영알이 떠오르며 내가 많이 성장했고 영축산까지 해냈다는 것에 마음이 벅찼다. 그제야 웃을 수 있었다. 단체 사진을 찍고 계속 걸어갔다. 비가 많이 온 탓에 진흙 길이 되어 발이 푹푹 빠졌다. 열심히 걷다 보니 어느새 비박지에 도착하고 텐트를 쳤다. 텐트를 칠 때 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었다. 날씨는 생각보다 춥지 않았다. 챙겨온 옷은 다 젖고 추워하는 태은이에 게 우모복을 빌려줬다. 태은이는 에어포스를 신고 왔는데 이것저것 챙기고 나와보니 가장 중요한 신발을 생각 못 했다는 말에 경험 부족이 이유였나 싶다. 저녁 먹고 나서 부경대와 성준이와 MBTI 맞추기 게임도 하고 내일 오실 김재영 오빠에 대해 말해주었다. 선배의 소중함을 느낀 하루였다.

### 1/14 토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두움 속에서 아침을 준비했다. 수제비를 하려고 물을 끓이는데 참 쉽지 않았다. 텐트에서 태은이가 수저 챙기러 나가다가 데크가 들려서 물이 었어져서 밖에서 또 끓이는데 침낭이 굴러 떨어져서 또 었어졌다. 물 3리터가 낭비됐다... 더 이상 물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스펀 하나에 어제 남은 미역국에 수제비를 했다. 다들 생각보다 잘 안 먹었다. 인수랑 나는 수제비를 마지막까지 해치웠다. '먹은 만큼 걷는다.' 그래서 든든히 채웠다. 배낭을 재패킹하고 예정되었던 7시보다 한 시간 늦게 출발했다. 오르막길은 속도를 낼 수가 없었다.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체력이 부럽다. 하산 길은 인수랑 얘기도 하고 속도도 낼 수 있었다. 곧 간월재에서 재영 오빠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힘이 났다. 인수랑 미리 멘트도 준비했다. 재영 오빠에 대한 인수의 멘트에 감탄하면서 내려오다 보니 하산 길은 짧았다. 재영 오빠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반가웠다. "태양이 여기 있었네요!" 간월재에서 경성대를 기다리는 중에 장일상 이사님을 우연히 뵈게 되었다. 산에서 보다니 정말 신기했다.

모두 도착하고 태은이는 등산화로 갈아신고 우리는 간월산으로 출발했다. 오르막길은 속도 내기가 어려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다. 간신히 간월산에 도착하자 재영 오빠가 정말 감사하게도 코펠과 쌀을 들어주었다. 줄어든 무게는 참 달달했다. 고마운 마음에 재영 오빠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달려가 챙겨드리려고 노력했다. 그랬더니 성환이가 너무 부러워서 웃겼다.

배내봉에서 배내고개까지 쪽 하산하고 재영 오빠의 지휘하에 텐트를 금방 설치했다. 재영 오빠가 삼으로 배수로를 파고 있을 때 처음 본 풍경이라 신기했다. 그래야 텐트 바닥이 축축하지 않는다고 한 것 같다. 근처 식당 아주머님의 배려로 우리는 따뜻한 가게 안에서 밥과 고기를 해 먹었다. 그리고 가지산 막걸리와 우동, 전을 먹었다. 가지산 막걸리는 먹어본 술에서 제일 맛있었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추가는 안 된다는 학감님 말씀에 터덜터덜 자리로 돌아왔다. 잔해 보였는지 재영 오빠가 병에 남은 막걸리를 줬다. 그 한 잔으로 아쉬움을 끝낼 수 있었다. 다시 텐트로 복귀하고 라이어 게임으로 재밌게 저녁 시간을 보냈다.

### 1/15 일요일

건우와 태은이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지 마지막 종주 날을 함께하지 못했다. 나는 배낭을 메고 곧 다가올 오르막을 생각하며 묵묵히 출발했다. 오르막은 항상 힘들었다. 차라리 내리막이 행복했다. 그렇게 학감님과 뒤에서 걷다가 쉬는 시간에 우리가 조금 먼저 출발했다. 이틀간 적응이 된 것인지 스틱이 내 다리인 것 같은 기분과 함께 리듬과 적절한 페이스를 찾았고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경사진 길에서도 멈추지 않고 곳곳이 걸어갔다. 흔치 않은 부스터 타임을 끊고

싶지 않아 계속 걷다 보니 온몸에 열이 올랐다. “오늘 짜리 컨디션 좋은 것 같네” 학감님 말씀에 이유를 찾던 중 가지산 막걸리가 먼저 떠올랐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산행 마지막 날이라 식량이 차지했던 무게가 없어진 게 이유였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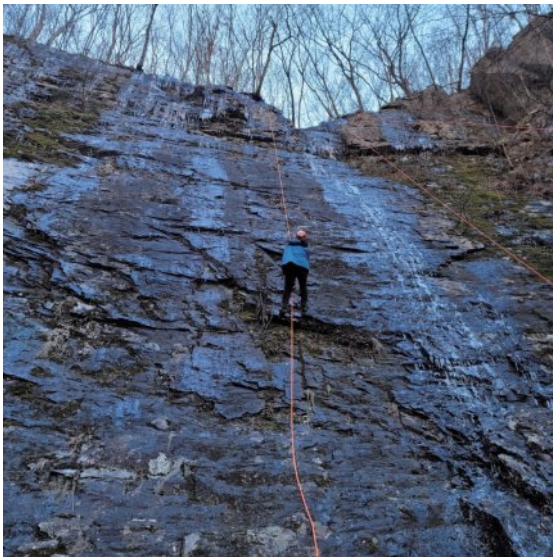
학감님께서 나를 다시 앞세우셨다. 나는 끝에서 항상 선두를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해 걸었다. 그래서 선두에 서게 되었을 때 이틀간 그랬던 것처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걸었다. 내가 제일 느리다는 생각에 뒤를 확인할 생각도 못 했다. 쉬는 타임에 이틀간 최선을 다해 걸었던 난 적절한 운행 속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걸었다는 것을 인수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운행에 대해 하나 배워갔다. 힘들어하는 나를 보시고 학감님께서 “짜리가 힘들어하니까 재영아 네가 앞장서라.” 나는 뭔가 억울할 것 같은 마음에 먼저 천왕산을 찍고 싶은 마음이 불타 올랐다. 그때의 나에게 조금은 여유로워져도 된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

그렇게 먼저 도착한 천황산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제 동계인가? 천황재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인수는 다시 천황산으로 가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왔다. 학감님, 바다 오빠, 나, 성준 이랑 먼저 출발했다. 또 오르막, 어느새 학감님과 바다 오빠는 보이지 않았고 길은 잃을 뻔했지만 마침 마주친 등산객분들 덕분에 제대로 재약산으로 찾아왔다. 분명 우리가 먼저 출발했는데 뒤 팀이 앞에 있자 약간의 씁쓸함이 느껴졌다. 물론 여러 갈림길 중에 우리가 비교적 멀었던 길을 택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결론은 달리기를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재약산을 찍고 표충사로 하산했다. 많은 산행을 한 덕분에 나는 하산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았다. 아직 한참은 더 걸어가야 했다.

학암쪽에 얼음이 다 녹았다는 소식에 지윤 언니는 망연자실했다. 지윤 언니는 얼음 찍고 싶어서 동계에 왔고 힘든 종주를 빙벽 등반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얼른 숙소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계단에서 무릎이 조금 아파져 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사흘간 잘 버텨주었다.

드디어 숙소 앞에 도착하자 부상 없이 무사히 종주를 마쳤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강사님이신 부경대 재연 선배님께 인사드리고 나는 벤치에 가만히 누웠다. 하지만 곧 치킨과 음식을 세팅하기 위해 다시 일어나야겠다. 내 달콤했던 잠깐의 휴식. 회장님과 저녁 식사를 했다. 그 후 뽕송뽕송해진 상태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모두가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재연 선배님께서 들어와 하강과 주마링 연습을 시키고 계셨다. 피곤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하



네스를 챙겼다. 그렇게 연습하고 갑자기 두 팀으로 나뉘 내일 등반할 거라는 말씀에 어리둥절했다. 내일 뭐 하는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혔다. 걱정되었지만 휴식을 위해 잠을 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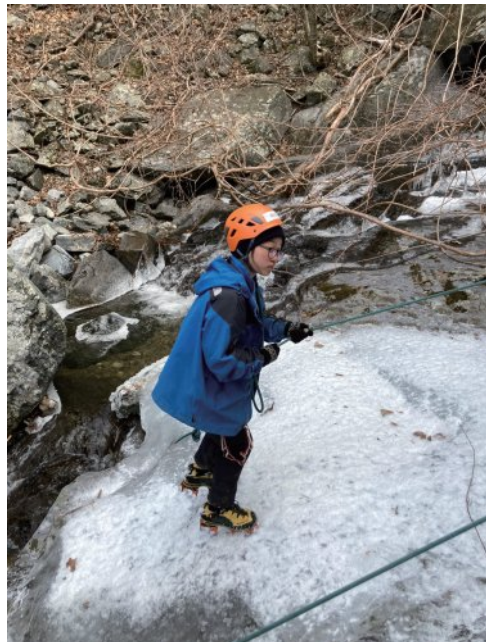
### 1/16 월요일

어제 남은 돼지국밥으로 아침을 해결했다. 소집 시간보다 늦었지만, 재연 선배님은 화를 내시지 않았다. 학암쪽으로 이동했다. 학암쪽의 폭포 모습은 신기했다. 모두가 주마링을 연습하고 있을 때 나는 물을 끓였다. 고기와 라면을 다 하고 나도 주마링 하러 하네스를 찾다.

주마링은 대통령기 대회 출전 경험으로 익숙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과 폭포는 아름다웠다. 재연 선배님께서 따봉을 날려주셨는데 그게 무척 인상적이었다. 강사를 해도 되겠다는 말씀에 기분이 좋아졌다. 대통령기 준비하면서 배웠던 테이핑과 주마링이 이번 동계에 도움이 되었다. 동계에서 제일 기분 좋았던 날이었다. 하산도 산책 같았다. 돌아오고 숙소에서 인수가 내게 말했다. “오늘이 동계에서 제일 기분 좋아 보여” 바일의 변천사에 대한 짧은 소개 후 우리는 크램폰과 빙벽화를 착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잠깐의 휴식 후 선배님께서 한 명씩 노래를 시키셨다. 추억도 쌓고 놀 수 있게 판을 깔아주시는 재연 선배님이 신기했다. 경성대 친구들의 끼가 장난 아니었다. 특히 바다 오빠와 태은이의 무대에 감명받았다. 재연 선배의 한 소절을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다음에 해주신다고 하니 일단 기다려야겠다.

### 1/17 화요일

무슨 일인지 상태가 안 좋아 몇몇은 숙소에서 쉬기로 했다. 아이젠 광광하러 하단 쪽으로 이동하기 전 갑자기 재연 선배님께서 햇볕 잘 드는 곳으로 데리고 가 낮잠 자는 시간을 주셨다.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종주 다녀온 뒤라 훈련보다 휴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모양이었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다들 피곤한 모양이었다. 명성까지 하고 아이젠 광광하러 갔다. 컨디션 이상이 생긴 재영 오빠와 성환이가 중간에 떠나고 남은 생존자들은 전상은 선배님께 교육받았다. 열성적으로 교육해주시고 교육 방식이 재밌었다. 빼에 마르쉬, 빼에 당 까나르 기차놀이하고 프론트 포인팅을 교육받았다. 빙벽 등반 못 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아쉬웠다.



다시 학암쪽으로 이동해 그냥 클라이밍을 시키셨다. 바일 하나 들고 클라이밍도 해보았는데 이끼에다 짝어도 이게 안정적인 건지 느낌을 모르겠기에 맛만 보고 내려왔다. 경성대 상화는 위까지 쪽쪽 잘 올라가 감탄했다. 우리 독수리 오남매는 빼에 마르쉬, 빼에 당 까나르를 복습하며 하산했다. 숙소에 도착하니 재영 오빠와 성환이가 자고 있었다. 재영 오빠가 뭔가 꼭 막혀있는 증상을 호소했다. 상태가 아직 나아지지 않아 걱정되었다. 우리는 일단 저녁을 먹으러

갔다. 학감님께서 저녁을 해주셨는데 양념불고기와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다. 훈련 다녀온 뒤라 많이 배고파 있었다. 생각보다 아이젠 광광에 에너지를 많이 썼다. 마트에 죽이 없다는 성준이의 전화에 인수는 직접 죽을 끓여주기로 했다.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해서 죽을 만들고 있는 인수가 대단했다.

재연 선배님께서 상태 좋은 사람들을 모아 마사지를 알려주셨다. 그렇게 근육과 긴장을 풀어주니 한결 가벼워졌다. 재영 오빠, 성환이, 건우, 성준이가 벽 보고 죽 먹고 있는 모습이 웃겼다. 인수의 죽이 맛있다고 다들 칭찬 일색이었다. 그리고 소감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인수가 자리에 없었다. 인수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 1/18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 떡라면을 먹고 스트레칭을 한 후에 학암쪽으로 출발했다. 인수는 숙소에서 쉬기로 했다. 가볍게 주마리를 하고 하단으로 내려가 바다 오빠와 같이 성준이와 태은이에게 아이젠 광광을 알려줬다. 위에서 믹스클라이밍을 하는 재영 오빠를 보니 따봉이 자동으로 올라왔다.

하산하고 숙소로 돌아와 모든 짐을 정리하고 빼는데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설마 산에 놓고 왔을까? 절대 그럴 리 없다며 침대를 뒤지고 숙소를 왔다 갔다 했다. 인수에게 전화를 부탁했다. 아차 무음으로 해봐서 소용이 없었다. 애가 타는 내게 재영 오빠가 태연하게 “분명히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 하산할 때도 안 보여서 숙소에 두고 온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수의 말대로 어택가방을 뒤지니 바로 찾았다. 휴 역시 기억은 100프로 믿을 수가 없다. 그 후론 무음을 잘 안 하게 되었다. 핸드폰을 찾고 잊고 있던 배고픔이 몰려와 산채비빔밥, 전, 도토리묵을 맛있게 해치웠다. 블랙다이아몬드 카라비너를 받고 단체 사진을 찍고 수료식을 마쳤다. 회장님의 차를 타고 서로 느낀 점과 기억에 남는 경험을 공유하다가 나는 동계가 끝났다는 것에 모든 긴장이 풀리고 조용히 잠을 잤다. 회장님께서 노포를 지나 부산대에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부실에서 언팩킹을 하고 재영 오빠와 인수가 텐트를 널러 가고 나는 설거지를 했다. 알바가 있는 재영 오빠는 먼저 가고 나랑 인수는 현대세탁에 가서 우모복과 침낭을 맡기고 각자 집으로 향했다.

지난 7월에 지리산 종주를 다녀온 뒤로 체력이 엄청나게 늘었던 경험이 있어 이번 종주에서도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본다. 종주는 웃을 힘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종주 셋째 날에 솔직히 내 마지막 종주라는 생각으로 걸었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걸어보자는 마음으로 임했다. 내 1인분도 벅찬데 다른 친구들을 챙기는 성환이와 인수가 대단할 뿐이다.

종주에서 지윤 언니의 존재가 힘이 되었다. 유일한 여자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재영 오빠는 말해 뭐해 태양이잖습니까? 나도 멋진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동계였다. 재연 선배님은 숙소에서 스트레칭, 마사지,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돌아해보면 우리에게 휴식 시간이 많지 않았고 학암쪽에서의 훈련, 명상과 숙소에서의 교육, 장기 자랑 등 빈틈없이 알차게 꽉꽉 채워 시간을 보낸 것 같다. 교육생들은 재연 선배님을 마음이 따뜻한 상남자라고 표현했다. 재연 선배님은 스타일이 남다르셨다. 그래서 신기했다. 선

배님의 따님은 수년간 다녀온 동계중에 올해 동계가 제일 재밌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이번 동계는 정말 재밌었다. 원래 시간이 지나면 힘든 기억은 흐릿해지고 재밌었던 기억만 가져가 또다시 고생을 자처하며 산을 오르고 있겠지...

## 경성대 21 이상화

안녕하십니까? 이번 동계 참가한 이상화입니다. 비록 이번에 종주를 참가하지 못하여서 매우 아쉬웠지만 종주를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과 장비를 다루는 방법 등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서 다음 동계 종주는 꼭 참여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일 차부터 동계에 참여하였는데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색했지만 다 함께 밥도 먹고 하강기, 주마링 다루는 방법을 함께 배우며 빠르게 친해져서 후에 동계 훈련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빙벽훈련을 매우 하고 싶었지만, 날씨의 관계로 빙벽이 녹아 빙벽훈련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지만, 믹스클라이밍을 하는 과정에서 빙벽화도 신어보고 크랩폰을 장착하여 빙벽에서 쉽게 올라가는 법, 아이스엑스를 이용하여 얼음 사이에 끼워 올라가는 법 등 훈련하는 과정에서 처음 접해보는 경험이라 생소했지만, 함께 동계에 참여한 사람들과 배워 더욱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믹스클라이밍이라는 색다른 클라이밍을 배워서 제 인생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여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벅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빙벽을 다녀오고 항상 저녁에는 스트레칭을 함께하고 한 명씩 노래하며 서로 더욱 사이가 돈독해져서 서로를 많이 알아갔습니다.

마지막 날에 빙벽을 가는 길은 뭔가 아쉬움이 강하게 생겨서 솔직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제 막 친해진 것 같았는데 헤어질 생각을 하니 정말 아쉬웠습니다. 동계 기간이 그리 많은 기간은 아니었지만, 과정에서 서로서로 협력하며 이해해 주어 이 짧은 시간에도 서로가 엄청나게 친해질 수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후에 후배에게 연맹에서의 많은 활동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 경성대 19 박건우

이번 등산학교 동계반에서 경성대가 제일 많이 참여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경험이 없어서 출발 전부터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각종 장비를 빌려주신 학감님,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산악부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경성대에선 처음으로 이런 비박을 하니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동계반을 계기로 패킹 텐트 치는 법, 밥하는 법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경성대 산악부에선 부산에 있는 산만 워킹을 해보았지 영남알프스를 워킹을 한다고 하니 많이 설렘했습니다. 확실히 부산에 있는 산과 영남알프스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첫날엔 폭우 두 번째 세 번째 날에도 비가 오니 더욱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들고 최악의 날씨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경성대와 타 대학들끼리 더욱더 끈끈해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산악부는 돈을 내고 고생해서 더욱더 돈독해진 사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인 것 같습니다

다. 그리고 동계를 가야지 진정한 산악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했던 산행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독 태은이한테 손이 많이 가서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작년 경성대 부장으로써 부원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한 제 책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잘하는 편이 아니라 저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동계를 갔다 와서 다음 번에는 더욱 더 잘할 것이고 부원들도 잘 챙길 것 같습니다.

첫날에는 힘들었지만 날씨가 따뜻해서 괜찮았지만, 둘째 날은 기온이 조금 떨어진 것 같고 베이스캠프에 텐트를 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학감님이 저녁은 따뜻하게 먹자고 실내식당을 예약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막걸리에 고기에 어묵에 어묵 국물까지 맛이 끝내줬습니다. 둘째 날은 비가 계속 와 텐트에 물이 조금 찼지만 그래도 꼭 잘 잤던 것 같습니다. 셋째 날 아침엔 무릎이 조금 아파서 이렇게 걷다간 대원들에게 민폐를 끼칠 것 같아 종주는 아쉽게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밀양 펜션까지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길을 잃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계기로 학감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마와 하강 훈련을 했습니다. 저도 하고 싶었지만, 하려는 사람이 많아 많이 못 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날 무릎의 통증은 더욱더 심해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걷지 못해 훈련받지 못한 저는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चु게 고생하다가 몸이 따뜻하기 편해지니 긴장이 풀려 몸살과 장염까지 걸리니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병벽도 타보고 싶었는데 얼음이 다 녹아서 못 타고, 그리고 다른 훈련은 몸이 아파서 못 받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년에는 종주는 후배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병벽반은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번 5박6일 동안 동계반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경험도 경험대로 하고 재미도 있었고 고생도 하면서 진짜 말로 표현 못 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계기로 부산대와 부경대 산악부는 더욱더 끈끈해질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교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성대는 지금 장비와 경험이 부족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서 연맹에서 받은 은혜를 갚

고 싶습니다. 이번 동계를 경험하게 해주신 학감님과, 지원을 해주신 연맹 선배님들, 같이 고생하고 장비를 빌려준 부산대 부경대에 다시 감사함을 표하며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 부경대 19 이성환

1/13

###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노포 터미널에서 7시에 모여서 7시 40분 버스를 타고 신평터미널로 출발해 김밥과 라면을 먹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산마을행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려서 사진을 찍고 출발했다. 생각보다 후배 지윤이가 잘 올라가서 경성대 애들을 챙기면서 가게 되었다. 천천히 선두도 섰다가 뒤에서 애들도 챙기고 하다가 보니 비가 그쳐서 적당한 곳에서 밥을 먹기로 했다. 나는 소화가 안 되었던 거 같아서 행동식을 하나 먹었다. 밥을 먹고 난 뒤 출발하려 하니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다. 영축산에 도착한 뒤 사진을 찍고 영남알프스 인증도 하고 다시 텐트 사이트로 출발했다. 도착했을 때 비가 잠잠해져서 텐트 구축 때는 그나마 수월했다. 저녁으로 삼겹살과 양념불고기를 먹고 자기 전에 애들과 생산성은 없지만 시간이 잘 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날을 위해 잤다.



1/14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움직였다.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텐트 사이트 바닥이 좋지 않아서 한 명이 움직이다가 텐트가 들러 코펠이 뒤집어졌다. 밥소사,,, 뜨거운 물이 튀었는데 살짝 데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화상은 아니었다. 매트리스가 다 젖어서 텐트에서 꺼낸 뒤 밖에서 조리를 다시 하기로 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서 침낭이 굴러와 한 번 더 버너를 습격했고 이번에도 코펠이 뒤집어졌다. 지윤이가 두 번 데였다. 발목인가 데였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러나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걱정하다 미역국 팩을 사용하자는 짜리의 아이디어로 겨우 해결하고 출발했다. 간월산을 넘어가 휴게소에서 부산대 18학번 김재영 선배가 합류했다. 경성대 애들 상태가 좋지 않아서 능동산을 가지 않고 임도로 돌아가기로 했다. 중간에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했다.

배내봉을 넘어 배내고개에 도착해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바람이 무슨 다 쓸어버릴 듯한 바람이 불어서 텐트를 치는 데 힘이 들었는데 설상가상 돌발이라 팩도 잘 박히지 않았다. 그래서 무거운 돌을 이용해 텐트를 고정했다, 저녁에는 근처 식당을 빌려서 안에서 춥지 않

게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가지산 막걸리를 한 병 먹었는데 나중에 펜션에서 생탁을 먹었을 때는 그 느낌이 나지 않았다. 몸이 힘들어서라기보다 그 막걸리가 맛있었던 거 같다. 그리고 돌아와 텐트에서 이런저런 게임도 하고 이야기하다가 잠들었다.

1/15

**여전히 5시 기상은 쉽지 않았다.**

취사병 출신 재영 선배가 있으니 확실히 뭔가 다르긴 다른 아침이었다. 아침을 맛있게 먹고 패킹하다 경성대 건우와 태은이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베이스캠프에 따로 먼저 간다고 해서 텐트와 짐들을 넘기기로 했다. 가벼운 산행이 되나 싶었는데 나는 어제 짐 그대로였다.

대체 와이,,,,

아무튼 먼저 보내고 우리도 출발했다. 남은 산은 천황산과 재약산. 처음 길이 참 좋았다. 길이 평탄하고 경사가 약해서 쉬엄쉬엄 가기 좋았다. 그런데 비가 왔던 터라 전날도 그렇고 바닥이 너무 빨밭이었다. 평소보다 더 금방 지치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올라가다 어느 순간 상고대가 엄청 예쁘게 있는 곳에 도착했다. 감탄이 나왔다. 이런 산행은 처음이라 더 좋았다. 그렇게 올라가다 천황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는데 사람이 참 많았다.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추워서 금방 찍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내려와서 적당한 벤치도 있는 곳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인수가 작은 백을 두고 와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다가 출발했다, 거기서 눈발이 날렸는데 좀 추웠던 거 같다. 그렇게 재약산으로 간 뒤 사진을 찍고 빠르게 내려왔다. 나는 내리막길이 너무 싫다. 그러나 내려올 때 풍경이 너무 예뻐다. 그렇게 한참 내려오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김재연 선배님이 계셨는데 괜히 반가웠다. 연영이와 친해지기를 시도했는데 뭔가 실패한 기분이었다.

그렇게 짐을 풀고 쉬려고 하는데 재연 선배님이 들어오셔서 내일은 피치 등반 형식의 등반을 조를 짜서 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웬걸 내가 2팀 중 한 팀의 조장이 되어버렸다. 나는 피치 등반의 경험이 적어서 엄청나게 걱정했다. 다른 아이들과 주마와 하강 연습도 하고 했지만, 나는 밤에 혼자 걱정하며 공부한다고 애들끼리 제대로 떠들지도 못하고 잠에 들었다.

1/16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축축하지 않았다. 숙소 안이었다. 그리고 나는 소파 위에서 자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도 먹고 스트레칭도 하고 학암쪽으로 출발했다. 나는 긴장한 상태로 갔지만 어젯밤 말씀하신 피치 등반이 아닌 주마 연습을 한다고 하셨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배님이 따라오라고 하셔서 재영이 형과 나는 우회로로 올라가 위에서 줄을 내리러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내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위에서 여러바리하게 있어서 선배님이 먼저 줄 하나를 내리고 나를 하강시키셨다. 뭔가 선배님에게 죄송스러웠다.

그렇게 내려와서 주마도 하고 선배님이 해주신 수육라면도 먹고 놀다가 갑자기 믹스클라이밍을 시키셔서 해봤는데 진짜 너무 어려워서 거의 올라가지 못했다. 그렇게 하다가 지윤, 재영, 성준, 연영이와 함께 먼저 내려가서 연영이와 놀러도 가고 수료식 장소도 확인할 겸 숙소로 내려왔다. 조금 쉬다가 내려갔는데 생각보다 놀이터가 너무 좋았다. 놀이터 근처에서 아이스크림



이랑 커피도 사 마시기도 하는데 성준이가 뭐를 바리바리 사왔는데,,, 성준아 왜 이러니,,, 다시 돌려보내서 환불을 시켜왔다. 그렇게 놀다가 올라가니 애들도 금방 내려왔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쉴 사람은 쉬었다.

저녁과 함께 막걸리를 먹고 설거지 내기 병뚜껑 날리기는 하는데 뭔가 긴장감도 넘치고 재미 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노래도 불렀는데 이때 경성대가 너무 잘 놀아서 재미있게 놀았었다. 술에 안 취했다면 이 텐션 감당이 안 되었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놀다가 치우고 정리하고 잠에 들었다.

## 1/17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아팠다. 아침도 적게 먹었다. 나 말고도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 몇 명은 올라가지 않기로 했다. 화장실에 가도 속이 안 좋길래 위에서도 화장실을 갈 것 같아 휴지를 챙겨서 올라갔다. 올라가니 부산대 선배님들도 오셨다. 그런데 등반하기에는 내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일단 속도 안 좋고 너무 추웠다. 살면서 이렇게 추웠던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았다. 패딩을 빌려 입어도 춥고 몸이 힘들었다. 그렇게 뭐를 했는지도 모르게 시간

을 보내다가 재영이 형과 함께 내려가라고 선배님이 말씀하셔서 내려갔다. 어제와 다르게 내려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내려가서 저녁 준비를 하기로 했었는데 둘 다 약을 먹고 뺏어버렸다. 소리가 들려 일어나니 위에 계시던 부산대 선배님들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보시더니 손을 따야겠다고 하셔서 손을 따 주셨는데 바늘보다 누르는 게 더 아팠다. 그렇게 쉬고 있으니, 애들도 내려왔는데 우리 상태를 보더니 위에서보다 안 좋아 보였는지 걱정을 해주었다. 몸이 계속 추워지길래 전날에는 뜨겁게 느껴지던 바다에 그냥 누워버렸다.

애들이 챙겨주고 하던 것들이 정말 고마웠다. 시간이 지나고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 아직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인수가 우리를 위해 죽을 끊어줬다(고마워 인수~~~~~). 근데 그 죽이 진짜 맛있었다. 죽을 먹으면서 서로 마사지하는 것도 구경했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짐을 대충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텐트 플라이가 보이지 않아 한참을 찾았다. 한참 찾아도 나오지 않아 계속 물어보니 범인은 태은이었다. 역시나 경성대 애들에게 구박받고는 짐 정리를 얼추 끝내고 잠들었다.

### 1/18

컨디션이 막 좋아지지는 않았다. 어제 남은 죽을 먹고 위에서 그냥 보조라도 하려고 올라갔다. 올라가서 상화랑 재영이 형이 등반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감탄했다. 잘하네,,, 나머지 경성대 애들은 숙련된 조교 인수, 싸리, 지윤에게 전날 못했던 것들을 교육받으러 갔다. 적당히 하다가 내려오니 준범 선배님도 계셨다. 그렇게 전날 배치받은 차량에 짐을 마저 챙기기 시작했다. 지윤이와 나는 재연 선배님이 짐을 실어서 학교로 데려다주기로 하셔서 좋았다. 가서 종홍이 형이 밥과 술도 사준다고 하니 더욱 신났다. 그렇게 짐을 챙기고 수료식 겸 식사를 하러 근처로 가서 수료식을 진행했다. 카라비너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지윤, 싸리의 카라비너 색이 더 예뻐다. 그렇게 수료식을 마치고 각자 헤어졌다.

### 소 감

이렇게 다른 학교와 함께 장기 산행을 해본 것이 처음이었는데 다른 학교 사람들과 교류도 하며 친해지고 산행이 끝나더라도 친해져서 활동을 같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했다. 몸이 힘든 것은 잠깐이지만 나중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산행이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았다.

## B.F.C 23 B.S.A.A Fun Climbing School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하계반) 보고서



2023년 3월 19일 ~ 4월 1일



## 1. 개요

- 1) 명 칭 : B.F.C 23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하계반)
- 2) 대상지: 금정산 일원 및 동래 인공암장
- 3) 일 시: 2023년 3월 19일 ~ 4월 1일
- 4) 목 적
  - ① 단결 인내 안전을 통한 바람직한 대학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 ② 암벽 등반에 대한 올바른 등반지식과 기술을 연마
  - ③ 대학 산악부원으로서의 자긍심 공유
  - ④ OB YB 합동 등반을 통한 학산 선후배 간의 기술 교류

## 2. 참가명단

### 2-2. 임원 및 강사 명단

직위	이름	연락처
교장	박민호	010-9556-8038
학감	하태웅	010-9637-8848
강사	김지성	010-3579-3392
강사	최준백	010-8193-3679
강사	김민정	010-8540-0212
강사	조현세	010-4242-5876
기획	김병진	010-7227-2678
촬영	박준범	010-5123-6466

### 2-1. 교육생 명단

순번	소속학교	학번	이름	성별	혈액형	연락처
1	춘해보건대	21	정지연	여	A	010-2832-3146
2	경성대	22	박성준	남	O	010-3885-6246
3	경성대	19	박건우	남	B	010-4576-4843
4	경성대	22	오채영	여	A	010-3090-3275
5	경성대	22	양바다	남	O	010-9488-1719
6	동의대	21	윤성민	남	B	010-6399-8970
7	동의대	21	김도현	남	A	010-7641-0426
8	동의대	16	박준형	남	AB	010-4905-2057
9	동의대	18	전우영	남	B	010-4650-1787
10	동아대	16	조현범	남	A	010-6652-3913
11	동아대	23	고영탁	남	O	010-2959-0427

12	동아대	20	박은경	여	A	010-5619-4490
13	부산대	22	백인수	남	B	010-2883-0435
14	부산대	22	Timm Mareike Joleen	여		010-7721-1298
15	부산대	21	KATEBOONLUE BOONYANUCH	여	B	010-2199-7347
16	부산대	22	구재경	여	AB	010-5412-0117
17	부산대	23	고유진	여	O	010-8228-9586
18	부산대	23	장연우	여	O	010-3335-2462
19	부산대	23	나형준	남	A	010-2569-6361
20	부산대	23	김태우	남	O	010-5574-8012
21	부산대	23	이현탁	남	B	010-2159-6361
22	부산대	23	윤종빈	남	O	010-5002-0232
23	부산대	23	이지혜	여	B	010-9584-5036
24	부경대	19	이성환	남	O	010-6546-9912
25	부경대	23	나유진	여	A	010-7101-3329
26	부경대	23	최지한	남	A	010-9918-4666
27	부경대	23	유정현	남	A	010-8684-8073
28	부산대	23	전정수	남	AB	010-5485-6891
29	부산대	23	이하경	여	O	010-8276-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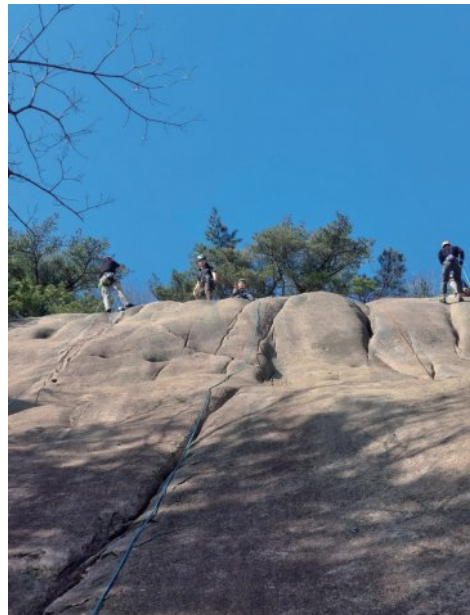
### 3. 등산학교 입교식

- 개회사(사회-박건우)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생략)
  -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산악인에 대한 묵념
- 산악인의 백자 선서 - 재학생회 부회장(짜리)
- 내외빈 소개
- 교장 선생님 인사말 - 박민호
- 축사
- 강사 임명장 수여(박민호) - 조현세
- 강사소개 - 하태웅
- 폐회

### 4. 운행보고

#### 4-1. 1주차 교육

- 1) 일 시: 2023년 3월 19일(日)
- 2) 대상지: 준행암
- 3) 참 석: 강사 2명, 교육생 29명
- 4) 교육내용
  - ①장비 체크
  - ②장비 착용법
  - ③매듭법/캠 사용법/확보법
  - ④슬랩 등반/하강법





#### 4-2. 2주차 교육

- 1) 일 시: 2023년 3월 25일~26일(1박 2일)
- 2) 대상지: 금정산 다랑리 및 무명릿지
- 3) 참 석: 강사 3명, 교육생 19명
- 4) 교육내용
  - ①선등자 후등자 빌레이
  - ②멀티 피치 등반
  - ③종주 훈련
  - ④비박 훈련





#### 4-3. 3주차 교육

- 1) 일 시: 2023년 4월 1일(土)
- 2) 대상지: 동래 인공암장
- 3) 참 석: 강사 4명, 교육생 26명
- 4) 교육내용
  - ①인공암벽등반
  - ②주마 훈련
  - ③선등 훈련
  - ④응급처치법(삼각건/테이핑)





## 5. 수료식

- 개회사(사회-박건우)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생략)
  -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산악인에 대한 묵념
- 산악인의 백자 선서 - 조린
- 내빈 소개(사회자)
- 등산학교 지원금(서성호 기념사업회, 학산 골프회 등)
- 교장 인사말 - 박민호
- 축사
- 시상식
  - 참가상(하태웅 시상)
  - 개근상(박민호 시상)
- 교육생 소감(남-전정수, 여-정지연)
- 교육 총평(하태웅)
- 폐회
- 기념 촬영





## 6. 회계보고

### 6-1. 수입 및 지출 총괄

구분	내용	금액	비고
수입	교육생회비	960,000	32명
	외부 지원금 & 회원 찬조	4,400,000	학산 골프회 50만 원 포함
수입 소계		5,360,000	
지출	현수막 제작	23,500	
	1주 차	566,600	
	2주 차	496,750	
	3주 차	2,263,500	
지출 소계		3,354,350	
수입-지출		2,005,650	

### 6-2. 수입 내역

항목	내용	금액	비고
재학생 회비	정지연 외 29명	960,000	
외부 지원금	서성호기념사업회	1,000,000	
찬조	백진국	100,000	
찬조	조광제	300,000	
찬조	이상헌	100,000	
찬조	김치근	100,000	
찬조	성기진	300,000	
찬조	정지택	500,000	
찬조	부산대산악회	100,000	
찬조	정민규	100,000	
찬조	최태식	500,000	
찬조	이상헌	100,000	
찬조	유영근	100,000	
찬조	김규태	100,000	
찬조	차월준	100,000	
찬조	박민호	300,000	
찬조	하태웅	100,000	
찬조	학골회	500,000	
소 계		5,360,000	

### 6-3. 지출 상세 내역

항목	내용	금액	비고	
경비	현수막 제작	23,500	~ 3월19일 (1주차)	
상품	단체티셔블	559,600		
경비	태극기구입	5,000		
경비	상장용지 외	2,000		
식비	돼지고기	57,600	3월 25일~26일 (2주차)	
식비	1박2일 식량비	1조		72,000
식비		2조		48,000
식비		3조		48,000
식비		4조		36,000
식비		5조		36,000
식비	치킨, 주류	151,300		



경비	보험료	47,850	4월1일 (3주차)
경비	수료증 용지	4,000	
경비	보험료	47,850	
상품	단체티환불	-209,850	
상품	시상품	900,000	
경비	테이핑 테이프	99,000	
경비	강사비(하태웅, 조현세)	200,000	
경비	강사비(김지성, 최준백, 김민정)	150,000	
식비	김밥 40줄	100,000	
식비	생수 40개	30,000	
식비	도시락	192,000	
경비	종량제봉투외	10,000	
식비	등산학교 식대	684,000	
회비	동아대 교육생 회비 환불	60,500	
소 계		3,354,350	

## 7. 등산학교 참가기

부산대 23 이하경

3/19, 3/25~3/26, 4/1

준행암 등반, 금정산 일대 종주 및 무명릿지 등반, 동래 외벽

부산대학교 산악부 신입 부원으로 가입한 후 첫 활동으로 등산학교에 참가하였다. 이에 위 활동을 개근하며 수료한 것이 개인적으로 의미가 크다. 등산학교라는 조직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졌는지, 이 활동을 통해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가 궁금했고 또 비박이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값진 경험이었다.

등반에서 생명줄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매듭 묶기를 배운 것부터, 하강기 사용법, 빌레이 테크닉, 배낭 패킹법, 응급처치법, 장비 릿지 기초교육 등 등반에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기술들을 배웠다. 등산은 많이 해봤어도 야외 암벽을 등반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색다르고 정말 재밌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더 활발히 야외 암벽을 타러 나가게 될 듯하다.

부산학생산악연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산 내의 다른 학교들과 연합 활동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은 것은 물론이요, 그 과정에서 끈끈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 등반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활동이기에, 서로 끌어주고 안전을 담보하고 응원하며 기운을 북돋던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신입으로 들어온 동기들과는 의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 좋았고, 선배들은 탄탄한 실력으로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며 매 순간이 든든했다. 또, 귀찮은 내색 없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강사님과 선배들의 모습에 감동했다. 산악인의 정신이 이런 것일까. 그 모습이 귀감이 되어 나 또한 잘 배워 이후 들어올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겠다 자연스럽게 다짐하게 되었다. 활동 내내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고 교육해 주신 학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던 바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힘들고 숨 차는 순간도 영원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반복하면 어느덧 정상에 오를 수 있더라.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몸소 체험하고 나니 그 감상이 살포시 달라진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정진하는 산악인이 되겠다. 많이 배우고 느낄 기회를 준 이번 산악 학교에 감사한다.

## 동아대 20 박은경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정치사회학부 사회학전공 20학번 박은경입니다. 동아대학교 산악부 23기입니다.

등산학교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등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레는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을 가지고 첫 등산 학교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1조였는데 처음 뵈음에도 조원들이 다들 챙겨줘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처음 본 사람들과 대화하며 즐겁게 올라갔습니다. 다양한 매듭법과 하강하는 방법 등을 배우며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직접 암벽을 등반하게 되었는데 저는 왼쪽 벽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틈 사이에 발을 넣으며 한 칸씩 올라가다가 직벽을 마주하였을 때의 심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잡을 곳 하나 없고 밟을 곳 하나 없는 곳에서 나를 믿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을 믿고 한 발짝씩 발을 떼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던 순간이었습니다. 벽을 걷다 보니 잡을 곳과 밟을 곳이 나타나고 그 순간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때 등반의 매력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등산학교 일정이 걱정됐었는데 한 번 경험하고 나니 걱정이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등산학교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일정이 있어 종주는 참여하지 못하고 1박2일 비박하는 날 저녁에 합류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였었는데 다른 조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였습니다. 함께 고기도 굽고 밥도 지으며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의 비박은 저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날씨가 많아 춥지 않았고 눈을 뗐을 때 제가 좋아하는 우거진 나무들이 한눈에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일어나 무명릿지를 갈 준비를 하였고 저는 인원이 적은 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학교였던 현범이 오빠가 조장으로 있었던 조였습니다. 현범이 오빠뿐만 아니라 짜리 언니랑 신입이었던 우영이 오빠가 잘 챙겨주었습니다. 1피치를 오를 당시의 새벽에 비가 왔기에 암벽 윗부분이 비에 젖어 올라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위아래로 선배들의 격려와 도움을 통해 무사히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막상 위에 도착했을 때는 겁만 났던 것 같습니다. 비너 하나에 내 몸을 맡기기엔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팀원이 올라오고 2피치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겁나고 두려웠지만 내가 선택

할 수 있는 건 직진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분명 봤을 때는 잡을 곳도, 밟을 곳도 없었지만 직접 만져보고 밟을 대보니 존재하였습니다. 작은 흠과 나 자신, 선배들을 믿고 계속하여 전진하였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몹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실망을 반복하였고 결국 해냈을 때의 감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뽀바위는 듣던 것보다 직접 봤을 때, 조금은 더 쉬워 보였지만 발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분을 소요하고 힘껏 뛸 수 있었습니다. 하강할 때는 첫째 날에 배웠던 것을 사용하여 하강하였습니다. 하강하고 나서는 마음이 풀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미소를 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동래 외벽에서 주마를 배운다고 해서 기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에 운동하다가 손을 다쳐서 정형외과에 가서 약을 타고 물리치료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당일일이 되었고 외벽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빌레이 보는 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파트를 나눠서 주마와 응급치료 등을 배웠습니다. 주마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직접 해보니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등산학교가 마무리되고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고 저 스스로 성장하였음을 느꼈습니다.

끝나고 각 대학교 산악부가 모여 뒤풀이를 진행하였고 등산학교에서 만난 모든 인연에서 감사했습니다. 선배들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신입끼리 으쌰으쌰하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음 기수 중에서 등산학교에 대해 고민하는 신입이 있다면 저는 저의 경험과 함께 무조건 참여하기를 권유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등산학교를 구성하고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춘해보건대 21 정지연

동아리에 가입한 지는 2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코로나와 바쁘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 같아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저만 참가하였는데 많이 외롭다는 이야기가 들려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주에 등산학교에 참가하니 대학별이 아닌 여러 학교가 섞여 하나의 조를 이루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걱정보다는 새로운 친구들과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지 기대가 더 컸습니다. 모두 모여 입교식을 마치고 준비한 가방을 메고 산행을 시작하면서 같은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등산이라는 관심사로 여러 학교, 여러 과가 모여 진행되는 연맹이다 보니 새로운 이야기들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학교 등산 동아리의 경우 활발하게 활동이 진행되지도 않고 타 대학과 교류가 적어 다 우리 학교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부산의 산악 동아리들은 대학마다 워킹, 암벽 등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기도 하고 우리 학교도 같이 할 기회가 많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산행하면서 산이 주는 소리와 분위기가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산행의 끝에는 초보자들이 타는 자연 암벽장이 있었습니다. 암벽은 태어나 처음이었고 생소했는데 강사님께서 기본 원리부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암벽의 가장 기본이 8자

매듭을 시작으로 올매듭, 하강기 사용법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바로 암벽을 타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부터가 고비였지만 옆에서 많이 알려주시고 계속 도전해 볼 수 있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목표치였던 부분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첫째 주는 사람들을 비롯한 장비와 그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해주는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등산학교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둘째 주에는 비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날이라 기대했습니다. 사전 준비 시 침낭, 침낭 커버, 코펠을 비롯해 조원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나눠 담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가방 무게에 압도당했지만

둘째 주 등산학교가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 주 만에 보는 친구들은 다 반갑고 편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해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수백, 수천 번 들었습니다. 일반 산행도 힘들 거 같은데 그 길을 무거운 가방을 메고 가다니 앞이 깜깜했습니다.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학감님께서 앞쪽에서 뒤따라오라고 해주셔서 이 악물고 학감님만 보면서 따라갔습니다. 정말 체력이 안 돼서 뒤로 빠질 때면 다른 부원들이 '파이팅' 응원도 해주시고 같이 기다렸다가 올라가 주시기도 했습니다. 모두의 도움 덕분에 끝이 안 보이던 종주의 마지막인 정상에서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베이스캠프로 이동 후 근처에 있는 암벽으로 가서 저번 주 배웠던 부분을 복습하고 자기 확보줄 사용법과 클로브 히치 매듭 등을 배웠습니다.

해가 넘어갈 때쯤 베이스캠프로 돌아와 다른 조와 같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코펠에 밥을 하고 작은 프라이팬에 고기를 굽고 하는 모든 상황은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체력 소모가 많았다 보니 다들 폭풍 흡입을 했고 그날 저녁은 모든 것을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들 배를 조금 채웠을 무렵부터는 이야기꽃이 피고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친해지지 못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눠 보고 즐겁게 지낸 후 취침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비박은 생각보다 춥지 않았고 꿀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둘째 날은 암벽을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무명릿지를 갔습니다. 다른 조들은 모두 출발했고 저희 조는 제일 마지막으로 학감님과 함께 배웠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고 암벽을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암벽을 타시는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3~4개의 자일이 생기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혼란 속 제 차례가 되었고 두 번째다 보니 훨씬 오르기가 편했고 올라가는 데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곳이 없어 안전부절못할 때는 먼저 올라가시던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조원들이 선등 빌레이와 후등을 봐주면서 올라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 저희 조가 많이 늦어지게 돼서 학감님을 따라 셋길을 통해 마지막 코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셋길은 길이 미끄러웠고 암벽을 올랐다 내렸다 하는 또 다른 난코스였습니다. 조원들 모두 무사히 뿔바위를 건너 하강 지점에 도착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모르고 도착 지점에서 잠깐의 성취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베이스캠프로 돌아가려면 왔던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서둘러 장비를 챙겨왔던 셋길을 다시 가야 했습니다. 올라가는 건 쉬웠어도 그 길을 다시 내려가려고 하니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학감님과 저희 조원들을 믿고 열심히 따라갔고 처음 시작했던 암벽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강을 앞두고 저희 조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몸컨디션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조는 하지 못했던 것을 했고 실전으로 배웠다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함께 동화되어 그날의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저희 조원들과 더 끈끈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베이스캠프로 돌아가 자리를 정리하고 하산 후 귀가를 하였습니다.

등산학교의 마지막 셋째 주는 인공암벽이었습니다. 인공암벽에서는 등반, 응급처치, 주마 등 여러 파트로 나뉘서 조별로 진행했고 많은 것을 알차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인공암벽을 보았을 때는 잡는 곳이 있으니 자연 암벽보다는 조금 더 쉽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출발했는데 쉬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간 이상까지는 올라갔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완등하지 못했고 다음을 기약하며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후 했던 주마와 응급처치 모두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를 마무리로 3주간의 등산학교를 수료했습니다.

학감님께서 항상 “노는 사람 없어야 하고 항상 줄을 사려 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고 ‘왜?’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일을 사릴 때 정리된 자일처럼 보이지만 막상 다시 사리게 되면 살짝 엉켜있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암벽 등반 후 조원의 빌레이를 봐주면서 내가 잘못 보면 그 친구가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운 마음이 덜컥 들었고 다른 조원이 탈 때면 혹여나 줄이 꼬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 학감님의 말씀은 더 와닿았고 실천하려 했습니다. 암벽은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한 명이 탈 때 다 같이 긴장하고 봐줘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주간 정이 들어 매주 보던 사람들과 못 본다고 생각하니 아쉽고 훈련을 잘 마무리해서 후련하기도 합니다. 등산학교는 너무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보람도 있고 재미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위험해 보이던 암벽을 직접 타보니 매력적이었고 그 후유증으로 학교 내에 있던 큰 바위를 보고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스스로를 보며 당황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등산학교가 진행되는 매 순간 완등을 못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해봤다는 것 자체에 성취감이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고비였던 종주 중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같이 해준 조원들을 비롯해 다른 부원들 덕분에 힘을 얻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등산학교를 통해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 이었고 우리 학교 부원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부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얻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 모두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대 23 장연우

등산학교에 가면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다른 학교 사람들 볼 기회도 생기니 한 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등산학교 첫날 부실에서 짐을 챙기고 택시를 타고 갔다. 집합 장소에서 입교식을 했다. 우리 학교 빼고는 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과 한 조가 되어 서로 인사하고 같이 등산을 시작했다. 등산할 때 조원분들이 늦어지는 나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걸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준행암 앞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현세 강사님께 여러 가지 매듭 방법과 자기 확보법을 배웠다. 그렇게나 많은 매듭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매듭법을 많이 배워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 배가 고팠다. 머리를 많이 쓰고 먹는 김밥은 꿀맛이었다! 자기 확보법도 처음 배워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다. 이게 자신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정확하게 배워놔야 하는데 뭔가 카라비너도 많이 걸고 순서도 있고 해서 헷갈렸지만, 정확히 할 때까지 선배들이 옆에서 알려주시고 도와줘서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먼저 선등하시고 그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도 많고 시간도 없어서 세 번째 볼트까지만 올라가고 내려갔는데 올라가는 동안 발도 아프고 생각보다 힘들어서 오히려 좋아하는 생각이 들었다. 등반하고 하산하는데 풍경이 또 너무 이뻐서 사진을 엄청나게 찍었습니다.

그다음 주는 비박이었는데 못 가서 아쉬웠다. 동래 암벽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어땠냐고 물어보니 다들 재밌었다고 해서 다음에 1박 2일로 가게 되면 꼭 가서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등산학교 날 동래 인공암벽장에 갔다. 거기 가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퀄라이징, 주마, CPR까지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저는 진짜 주마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일어나면서 오른손을 올리라고 하는데 잘 안 올라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마링을 제거할 때도 잘 안 빠져서 내려오는 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그때 올라간 상태로 옆에서 계속 알려주시고 도와준 성환조장님... 정말 진짜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등반이랑 다 하고 마지막에 주마해서 힘이 다 빠져서 그렇게 힘들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등산학교를 하면서 여기 사람들 다들 등반에 진심이고 또 너무 잘하셔서 멋있었습니다. 학교 상관없이 친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학교랑 이렇게 친해져서 같이 등반하는 활동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학감님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력이 아주 부족한데 많이 가르쳐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 너무 다 감사합니다~~~!~~! 등산학교 너무 재밌었습니다!!

## 부산대23 윤종빈

### 준행암

날씨가 너무 좋았던 걸로 기억한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출발했고 범어사에서 모여 준행암으로 출발했다. 북문은 평소에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많이 가서 힘들지는 않았고 준행암에 무리 없이 도착하였다. 일단 처음 암벽을 타기 전 끝 8자, 중간 8자 매듭을 연습했고 오토블럭과 하강 연습도 하였다. 모르는 게 많았지만, 매듭이나 하강은 단대에서 인수형, 짜리 누나, 조린 누나 그 밖에 OB 선배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어려움 없이 하였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빨리 암벽을 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기다리기가 힘들었다ㅋㅋㅋㅋ.

등반했을 때 슬랙은 처음이라서 힘들었다. 전에도 볼더링할 때 발을 잘 쓰지 않아서 잘 쓰는데 발가락이 너무 아프고 어려웠다. 원래는 완등하려고 했지만, 막상 올라가니 세 번째 피치에서 힘들어서 돌아왔달ㅋㅋㅋㅋ 완등을 못 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머지않아 개인적으로도 가서 완등해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 종주, 비박 및 무명릿지

등산학교의 하이라이트가 불리는 1일 비박 그리고 무명릿지의 날이 밝았다. 전날 유튜브로 무명릿지 동영상을 봤는데 보는데도 다리가 떨렸다. 양산에서부터 출발하였고 가기 전에 정수형 이 빵 사줬다^^^ 맛있게 먹고 종주를 하였다. 원래 나는 어릴 때부터 산을 좋아하는 부모님을 따라 안 가본 산이 없었다. 그래서 등산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딱 능선 한 구간 오르고 하 산하고 싶었다. 가방 무게와 경사가 차원이 달랐다. 그래서 나보다 훨씬 무거운 짐 드는 형들과 학감님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몇 시간이 지나자 적응돼서 선두로 빠릿빠릿 갔다. 지연이 누나가 가방 때문에 펄럭펄럭 되는데 웃겼다. 고당봉에 도착했을 때 쾌감은 정말 좋았다. 그리고 배낭에서 해방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ㅋㅋㅋㅋ. 조린 누나가 사진 찍어줬다. 주변 사람들이 "와 배낭 봐봐라, 엄청 무거운 건데"라고 해줘서 신났달ㅋㅋㅋㅋ 뭔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베이스캠프에 도착해서 밥을 먹었다. 인수형 쌀밥을 실제로 먹어보니 너무 맛있었다. 건우 형이 구워준 삼겹살도 너무 맛있었고 능수능란한 선배들 덕에 아무것도 거의 안 하고 밥 먹었다. 밥을 다 먹고 술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등산학교 1조의 은경 누님과 건우 형님의 케미 덕분에 한시도 지루하지 않았다. 덕분에 21년 만에 내 MBTI도 알게 되었다. (어차피 INTP가 뭔지는 아직도 모름) 중간에 성민이 형님과 현세 형님이 배고픈 우리를 위해서 직접 하산해서 치킨과 술을 사 오셨다. 지금 생각해도 ㅋㅋㅋ 고마웠다. 나도 나중에 짬 좀 차면 저런 선배가 되고 싶다. 잠자리도 너무 따뜻했고 동계 침낭이라 그런지 다음 날 전혀 힘들 거나 배긴 데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형들이 끓여준 라면을 먹은 다음 드디어 무명릿지로 향하였다. 피치원은 그래도 완전히 슬랙인 부분으로 안 가고 잡을 데가 있는 것으로 가서 비교적 할 만했다. 그리고 운이 좋게 학감님이 기회 주셔서 평소에 못 한 킥 드로우 회수도 첨 해봤다. 캤도 있었지만 안 빠져서 스킵ㅋㅋㅋㅋ. 그렇게 피치원을 끝내고 피치 투로 넘어갔다. 처음 절벽이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떨렸고 근데 확실히 볼더링 홀드보다는 훨씬 마찰력이 좋아서 신기했다. 그리고 올라가서는 상단 확보를 봤는데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주변 분들과 학감님의 차분한 가르침으로 나름?! 확보를 보았다. 확보를 보면서 느낀 점은 부실에 돌아가서 완벽하게 확보해 내겠다는 다짐과 하경이 누나와 지연이 누나가 진짜 겁 없이 너무 잘 올라와서 놀랐다. 처음인 게 믿기지 않았다. 뽀바위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인수형과 건우 형은 뛰었는데 먼가 폴 짝 뛰는 것도 다리가 떨려서 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했다.

마지막 하강도 확보와 하강기 설치 등 다시 알게 되었고 오버행 하강도 OB 선배님들이 가르쳐주어 너무 좋았다. 하산할 때도 서로 도와주며 안전하게 하산해서 역시 고생을 함께 하여서 그런지 빨리 친해진 것 같다.

## 동래 외벽

벌써 등산학교의 마지막이다. 이제 막 친해지고 할 사람들이 좀 생겼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니 아쉬운 반 후련함 방으로 동래 외벽으로 갔다. 마지막 날은 비교적 프로그램이 알차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주마링과 선등, 후등 그리고 cpr마지막으로 이퀄라이징 꽤 난이도가 있는

것들도 배웠다. 다 재미있었고 주마랑은 역시 전날 인수형과 연습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하강 할 때 확보줄텐션으로 주마 뽑기 힘든 거 말고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수료식을 하였다. 뭔가 주말이 이렇게 알차도 되는 건가 싶었고 앞으로의 주말이 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 물론 답날도 암장 감 ㅋㅋ) 이렇게 수료식도 진행되었고 잠금 카라비너와 작은 가방도 선물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수료식 말씀 중에 학감님이 '이제 산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말에서 진짜 멋있으시다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3주간의 등산학교가 끝이 났다. 허전하기도 하지만 다음에도 볼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더욱 성장해서 봤으면 하였다. 이상 윤정빈 시점 등산학교 후기 끝!

### 경성대 19 박건우

작년에는 교육생 경성대 부장 신분으로 등산학교 참여를 했지만, 올해에는 재학생 회장 신분으로 연맹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를 하였다. 연맹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는 재학생대표가 입교식을 진행하면 교육생들도 더 집중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내가 한번 사회를 맡아봤다. 처음이라 많이 떨렸지만 내가 준비한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 첫날은 준행암에서 이퀄라이징 교육을 배웠다. 확실히 작년에 비해 올해 등산학교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좋은 기회였다. 이번에는 경성대나 혼자 참여한 것이 아닌 3명이 더 와서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배우면서 교육생들이 빨리 친해지기를 바랐고 재밌는 활동이 되기를 계속해서 생각했다.

슬랩 등반을 해보았는데 역시 발 밟고 올라가기 정말 어려웠지만 어찌어찌 완등하고 잘 하강해서 내려왔다. 해산하고 하산할 때는 각 학교끼리 내려가는 것이 아닌 다 같이 하산하고 간단하게 뒤풀이 시간까지 가져 더욱더 친해졌던 것 같다.

2번째 일정 종주하기 전에 저번 동계에서 식단표를 학감님이 짜듯이 나도 한번 짜보고 장비 배분 각종 식량까지 배분해 보았다. 최대한 우리 조가 짐 하나라도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1조 카톡방에 공지했다. 종주하는 날 확실히 동계를 갔다 와서 그런가 할 만했다. 지연이 누나와 하경이가 많이 쳐지는 거 같아 계속 뒤에서 파이팅 파이팅 하면서 응원하며 걸었다. 그렇게 종주하고 밤이 되자 각 조끼리 둥글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작년 등산학교에 비해 더욱더 빨리 친해지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거 같아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비박을 하고 인수가 빠르게 아침 식사 준비를 해 우리 조가 제일 정리가 빨라서 좋았다. 하지만 쌀이 너무 많이 남아 내가 식량 배분을 좀 잘못된 거 같아 조금 아쉬운 생각이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다음에는 식량 부분에 더 신경을 쓸 것 같다. 릿지를 하는데 확실히 나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1조가 제일 늦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조원끼리는 더욱더 끈끈해졌고 단대에 돌아간다면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동래 인공암벽에서 주마, 암벽, 응급처치를 했다. 암벽 실력은 확실히 작년에 비해 많이 는 것 같다. 작년에는 후등으로도 완등 못 했지만, 올해에는 선등으로 완등하니 기분이 좋았

다. 응급처치 cpr을 배웠는데 군대에서 하도 cpr을 많이 해서 나에겐 더욱더 친숙하게 다가왔다. 마지막 주마를 하고 내려와서 바로 수료식 준비한다고 정신없었다. 하지만 입교식 사회보다 수료식 때는 확실히 더 깔끔하게 한 거 같아 기분이 좋았다. 마지막 단체 사진 찍는데 조금 시원섭섭했다. 역시 나이 다르고 성별이 달라도 등산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더 친해지고 배우고 끈끈한 시간을 갖게 돼서 역시 산악부에 잘 들어왔다고 생각하였다.

앞으로도 이런 사적인 산행할 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고 배웠던 것들을 잘 복습해서 후배들에게 잘 가르쳐줘야겠다. 사진 찍고 국밥까지 먹고 하니 선배님들도 우리 후배들을 위해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이번 등산학교도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재밌었고 값진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각 단대끼리 이런 교류 관계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 부산대 23 이현탁

교내 동아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른 학교 등산부와의 만남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등산학교 활동이 4월 1일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 사정으로 4번의 활동 중 처음과 마지막 활동에만 참여했습니다. 비록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박2일 여정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을 사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등산지/암벽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 즐겁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됩니다. 등산학교 일정과 그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차\_준행암

준행암은 이전 동아리 활동으로 한 번 경험해 본 곳이었습니다. 그때 세 코스 중 꽤 난해한 편인 왼쪽 코스 등반에 성공했던 지라 이번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호기롭게 시도한 가운데 코스는 얼마 못 가 저에게 아픔을 선사했습니다. 중간 하등의 아쉬움을 넘어서는 원초적인 발목 통증... 발목 통증을 참고 완등하는 친구들의 참을성이 대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다음 방문 때는 이겨보겠습니다.

### 4일 차\_동래 외벽

저에게는 등산학교의 의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향후 등반을 위한 기초를 다진 아주 짹짹 채웠던 하루, 그리고 사실상 다른 학교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어색함 없이 나누기 시작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처음 해본 선등이 특히 제가 부족함을 느끼게 한지라 생생합니다. 보기만 해도 어려웠던 선등은, 역시 힘들었습니다. 체감상 5m도 위로 오르지 못하고 도중에 떨어졌습니다. 카라비너를 걸기 위해서는 한쪽 손으로만 틈을 잡고 버텨낼 힘이 필요했는데 저에겐 역부족이었습니다. 직전 방학 때 침대와 한 몸이었던 나날들을 후회하며, 학교 시험 이후 헬스장에 갈 추진력을 얻은 듯합니다. 선등 외에도 주마와 CPR 교육 또한 기억에 남습니다. 나름 순조롭게 위로 올라갔던 주마는 내려올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상에서 연습할 때는 잘되었던 장비 해제가 막상 위로 올라가 매달려 있을 때는 잘되지 않았습

니다. 무사히 내려올 수 있게 해준 부원에게 감사합니다. 선등과 주마의 경우 어려움을 느껴 기억에 남았다면, CPR 교육은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산악부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직접 도움 주시는 모습을 보며 후에 나 또한 사회인으로서 산악부에 이바지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등산학교 활동은 함께 웃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동아리에서 느끼기 힘든 산악부만의 네트워크를 볼 수 있어 더욱 그에 애정이 들었습니다. 멋진 추억을 남기게 해준 OB 선배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BFC 파이팅~

## 경성대 22 오채영

안녕하십니까? 경성대학교 22학번 오채영입니다. 입부 1년 만에 처음으로 등산학교에 참가 후 참가기를 남깁니다. 저는 산이 좋아 산악부에 들어왔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지만, 산악 활동을 혼자 하기엔 지식과 경험이 매우 부족했었고 그런 저에게 등산학교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선 산악에 대한 저의 마음가짐 자체를 달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등산학교 참가 이전 저는 기본적인 장비 패키징부터 어려워했습니다. 잠금 비너, 확보줄, 자일, 퀵드로, 어센더 등 각 장비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학교 활동을 할 때 선배님들께서 챙겨주시니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등산학교를 하며 언제까지고 챙김만 받는 사람이 되는 것보단 나 스스로 할 줄 알고 또 나중에 선배님들처럼 후배 산악인을 챙겨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장비 이름부터 익히려고 노력했고 이제는 등반 필수 장비 정도는 척척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등산학교를 통해 협동과 열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연맹 활동이기 때문에 익숙한 얼굴 들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3주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엔 대화하는 것도 어색하고 특히 산악과 관련하여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등반하고 응원에 힘을 얻으며 산악인으로서의 한 걸음을 더 걷게 되었습니다. 등반할 때면 등반자와 확보자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으며 협동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자체 동아리 활동과 연맹 활동에 자주 참여하여 실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등산학교, 정말 즐거웠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 부산대 21 씨리

5월에 했던 춘계 등산학교는 올해 3월 말로 앞당겨졌다. 각 대학 산악부의 신입생 모집을 마친 직후인데 신입 부원들이 등산학교에서 기본기를 배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다. 1차 신입 부원 모집에서 등산학교에 대해 알려주고 참여 여부를 미리 조사해서 그런지 무려 9명이 신청했다. 등산학교 첫 교육 전날이었던 토요일에 덕천외벽에서 활동이 겹쳐 경성대, 부경대, 동의

대, 동아대 산악부가 다 모였다. 동계 이후로 이렇게 한자리에서 보니 반기웠다.

### 3/19 일요일, 준행암

범어사에서 모여 준행암으로 이동했다. 재경이가 대동령기 준비한다고 자일을 자진해서 챙기고 중량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했다. 아 개회식을 할 때 백자 선서를 하게 되었다. 외웠지만 혹시나 버벅덜까봐 일단 펼쳤다. 회장님과 아이컨택을 유지하면서 낭독했다. 아무튼 준행암에 도착하고 재학생과 신입생은 따로 교육받았다. 학감님께 까베스탕 대신 쓸 수 있는 프로하스카 매듭으로 이중 확보와 같은 백업 시스템, 나무 확보물에 자일 묶어 자기 확보, 멀티 피치 시 후등자 확보 보는 법을 배웠다. 같은 시각 신입생들은 동아대 현세 오빠에게 다양한 매듭을 배웠다. 현세 오빠 혼자 신입생들을 다 교육하기엔 벅찬 감이 있었지만 도우러 가지 않았다...

점심으로 연맹에서 준비한 김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잠깐의 휴식은 끝나고 또 이퀄라 이징(균등 연결법) 을 배웠다. 이후 재학생들이 슬랩을 등반하고 후등자확보를 해보았다. 신입생들은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지루해하는 찰나에 등반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몇몇은 중간까지 올라가고 하강했다. 그렇게 모든 교육을 마치니 오후 4시 반이었나, 하산하고 내려오는 길에 필수 코스로 석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하산 중에 지혜랑 점심때 먹었던 레전드 김밥에 관해 얘기하던 중 부경대 성환이가 새 김밥을 꺼냈다. 짬처리할 생각으로 꺼냈다 했지만 내겐 갑자기 찾아온 행복이었다. ㅋㅋㅋ 김밥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 입씩 나눠주니 금방 동이 났다. 너무 맛있었다!

### 3/25, 26 양산에서 무명릿지 초입까지 등산, 무명릿지 등반

신입생들의 불참 소식이 하나둘 올라올 때마다 아쉬움에 고개를 떨궜다. 가면 참 재밌을텐데,, 우리 3조에는 6명 중 4명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 식량과 장비 분배를 그에 맞게 계획했다. 하지만 출발 전날 경성대 채영이가 장염에 걸려 불참하고 동아대 현범 오빠는 개인 사정으로 토요일 저녁에 합류하기로 바꿨다. 이로써 언밸런스한 장비 분배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동계에서 내 몸무게의 절반도 들어봤는데 어떻게든 될 거라는 생각과 그래도 분배의 필요성을 느껴 토요일 아침에 분배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우영 오빠의 배낭을 보고는 가스과 버너, 쌀을 넘기지 못했다. 그저 행동식과 발열식을 건넸다. 침낭과 어택가방 등이 대룡대룡하는 우영 오빠의 배낭을 보고 그냥 내가 들기로 했다. 어떻게든 되겠지,, 목욕 저녁 부실에서 인수가 쿠팡에서 시킨 핫앤쿨을 보고 우리 조에 마침 와우 회원이 있어 따라 시켰다. 참 잘한 선택이었다. 등산 시 소모되는 에너지와 무명릿지에서 지체되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든든한 점심이 필요했다. 인수가 고마워.

양산역에서 모두가 다 도착하고 마을버스 타고 이동한 후 등산이 시작되었다. 선배고 뭐고 힘들어서 헉헉했다. 금방 열이 올라 얼굴이 뜨거웠다. 그래도 동계처럼 한 발 한 발이 후들대는 정도가 아니라서 어떻게든 걸었다. 역시 시작이 힘들지. 능선을 타니 조금 편해졌다. 열심히 걸어서 고당봉에 도착하니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다. 재경이랑 수완이가 등산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힘든 등산을 할 때면 탄산음료, 포카리, 비타민 음료가 생각난다. 그래서 하산 후에 마실 음

료수를 생각하며 걷는 편이다. 항상 챙겨야지 챙겨야지 하지만 막상 패킹할 때 까먹기 일쑤다. 근데 이번 워킹에서 성환이가 사 온 파워에이드, 인수가 챙겨온 포카리, 재경이의 복숭아 탄산 음료까지 모두 마실 수 있어서 신기하고 고마웠다. 에너지가 다시 충전되었다. 고당봉 이후부터는 할 만했다.

오후 4시쯤에 무명릿지 초입 근처에서 배낭을 풀고 신입생들에게 후등자확보법과 하강 교육을 위해 무명릿지로 향했다. 4주짜리인 등산학교를 3주로 압축하니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었고 뻑뻑하게 교육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시려는 학감님이셨다. 그 후 저녁을 준비했다. 3조에 학감님과 현세 오빠가 같이 먹는 걸로 되었다. 동계 경험 되살려 밥을 했다. 현범 오빠가 고기를 구워주었다. 밥에 온 신경이 집중되었다. 밥 600g에 물을 1.1배로 넣었다. 강한 불로 시작해서 보글보글 끓이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추고 끓는 소리가 사라지면 약 불에서 하다가 뜸들었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런지 늘어붙지 않고 다행히 잘 된 것 같다. (자랑할 생각으로 인수한테 갔는데 인수의 완벽하게 잘 지어진 밥을 먹고 따봉만 주고 돌아왔다) 동계에 다녀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 순간이었다. 저녁으로 고기와 어묵탕으로 푸짐하게 먹었다. 그래서 현세 오빠랑 성민이가 사 온 치킨을 먹으러 가지 않았다. 배불러~ 대신 현범 오빠와 우영 오빠랑 등반에 대해서 신나게 떠들었다. 점점 추워져서 매트리스를 깔고 침낭을 폈다. 드디어 첫 비박! 설됐다. 기모 옷, 경량 패딩 입을 상태에서 침낭에 들어가니 따뜻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눈을 뜨면 하늘이 보이는 침대! 아침에 일어나 어묵과 라면, 어제 남았던 밥까지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 우리 조에 동아대 박은경 친구가 합류했다. 출발 순서로 두 번째. 출발할 때 비가 살짝 내렸지만 금방 그쳤다. 키크르를 회수하며 올라갔다. 동의대 박준형 선배가 5.10b 째이었던 직벽 구간을 한번 해보면 좋다고 하셔서 현범 오빠에게 말했는데 오빠가 가뿐히 올라갔다. 이 직벽을 처음으로 뚫는데 밸런스와 힘이 필요했다! 항상 오른쪽 크랙으로 우회해서 이번 무명릿지가 그래서 특별히 재밌고 즐거웠다. 은경이가 직벽 구간을 못 하겠다고 해서 하강하고 오른쪽으로 우회했다. 현범 오빠가 암각을 이용해서 확보하고 잠카에 하프 클로브 히치로 후등자 확보를 한 게 인상적이었다. 몸자 확보만 봐왔어서 그렇다. 하지만 현범 오빠가 자기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손을 놓칠 경우 추락할 수 있어 지켜보는 입장에서 불안해서 자꾸 오빠에게 자기 확보 안 걸어도 되냐고 물었다. 뽀 바위에서 은경이의 달달달 떨어지는 다리를 보니 웃음이 나오면서도 응원을 멈추지 않았다. 할 수 있다, 은경아! 뽀바위를 가뿐히 넘고 오버행 하강까지 완료하고 나니 현범 오빠가 힐링 등반이었다고 말했다. 내게도 힐링 등반이었다. 이번 1박 2일을 통해 현범 오빠와 우영 오빠랑 조금 더 친해진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먼저 하산하고 정자에서 발열식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하강 전 넓은 암반에서 플래카드를 펼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보이길래 우리 등산학교 팀인 줄 알지만, 다른 등산학교 팀이었다. 무명릿지 쪽으로 이동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마지막 조를 기다렸다. 하산하지 않고 릿지꾼들의 길로 첫 피치까지 내려온 마지막 조를 만났다. 하나둘씩 하강하고 부산외대로 바로 하산했다. 하산 중에 비가 굵게 내려 젖었다.. 택시기사님한테 거부를 당하고 부산외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다. 고기랑한방울에서 오비 선배님들의 귀한 찬조로 감사히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실에 연패킹하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이번 1

박 2일로 신입 부원들뿐만 아니라 타 대학 산악부와의 친해지고 첫 비박 경험과 힐링 등반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 4/1 토요일, 동래 외벽

9시 집합시간으로 넉넉하게 부실에 도착하고 택시를 타고 동래 외벽으로 이동했다. 새벽부터 일출보러 무명릿지에 갔다 온 현세 오빠와 재경이, 예지도 왔다. 각 조마다 로테이션을 돌아 교육을 받았다. 오전에 동중선배님이 오셨는데 우리 때문에 왔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 선배님 최고입니다! 등반과 확보, 균등 연결법, 주마링, 응급처치 교육으로 쉬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춘해보건대 선배님들께서 실전처럼 연습시키셨다. 119에 전화 연결하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유익했다. 수료식까지 다 마치고 나니 피로가 왔다. 신입 부원들이 이 많은 교육을 다 기억 못 할지라도 좋은 기억과 추억은 고이 간직했으면 좋겠다. 재학생들이 신입생을 봐주는 이번 등산학교는 내가 신입이었을 때 갔던 등산학교의 방식이나 스타일이랑 달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등산학교는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했다.

### 경성대 22 양바다

**1주 차** 동계학교 이후 오랜만의 연맹 교육 활동에 참여했다. 1주 차는 금정산 준행암에서 슬랩 등반과 기본적인 매듭법 등을 교육받았다. 8자 매듭법은 너무 익숙한 매듭법이었지만, 자주 매듭을 완성하고 끝부분이 많이 남아 움매듭을 하곤 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길이를 정확히 맞추는 법을 배워 좋았다. 또,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8자 매듭을 가르쳐주셨는데 오히려 내가 원래 하는 방법보다 쉬워서 나도 다른 부원들에게 알려줄 때는 이 방법으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매듭 이외에 하강도 알려주셨는데, 원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하강도 무게 중심을 정확히 어디에 쥐야 하는지 등을 배워 좀 더 쉽게 하강할 수 있게 되었다.

간단한 교육을 마치고, 슬랩 등반을 처음으로 해보았다. 실내 암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잘하는 편이지만, 자연 암벽에서는 늘 그 실력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자연 암벽에서도 제법 잘 탈 수 있어 좋았다. 크랙 사이에 발을 끼워 놓고, 살짝 돌려 가며 일어서고, 손을 크랙 사이에 넣고 당기며 일어나는 동작들이 재밌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른 루트로 는 올라가 보지는 못해 아쉬웠지만, 한 곳이라도 완등을 해봐서 다행이었다. 다음에는 경성대끼리도 한번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간에 점심으로 야외에서 김밥을 먹은 것도 정말 맛있었고, 다른 학교와 한 조가 되어 같이 얘기도 나누고, 등산과 등반도 하며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겨 정말 좋았다. 산악부의 매력을 정말 잘 느낄 수 있었던 1주 차였다.

**2주 차** 2주 차는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종주 훈련과 비박 및 무명릿지 등반이었다. 종주는 동계학교에서 2박 3일을, 그것도 비가 오는 날에 한 경험이 있어 크게 힘든 것 없이 마쳤다. 양산에서 시작해 고당봉을 찍고 무명릿지 시작점 근처 비박지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확실히 익숙한 길이라서 그런지 조금 덜 힘든 것 같았다. 그래도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다 같이 같은 길을

향해 간다는 일이 참 기분이 좋았다. 중간중간 우리끼리 떠들기도 하고, 밥도 먹고, 아주 친해 질 수 있었던 산행이었다.

비박지에 도착하고, 곧바로 무명릿지 시작점에 가서 다음날 있을 릿지 등반을 대비한 하강기 설치 및 빌레이 보는 법을 배웠다. 동래 인공암벽장이나 기존 자연 암벽에서는 항상 아래에서 빌레이를 봤는데, 처음으로 위에서 빌레이를 보는 게 낯설어서 조금 걱정됐지만, 그래도 강사님들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릿지 등반엔 자일을 잘 사리는 것이 중요하니 자일 사리는 법도 잘 알려주셔서 기본부터 배울 수 있어 좋았다.

비박지에서는 선배님들이 준비해 주신 고기와 라면, 직접 지은 밥을 해 먹으며 조원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었고, 다른 조와도 함께 모여 앉아 서로 통성명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즐거운 밤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곳에서 잠까지 자니 정말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았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어두운 산이면 별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많이 보이지 않은 게 아쉬웠다. 다음에는 별빛 아래에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친해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아침을 간단히 하고 릿지 등반에 나섰다. 릿지 등반은 난생처음이라 잘 할 수 있을까 긴장되기도 했고,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몸이 뻣뻣해지는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조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오르면 될지도 알려주시고, 다른 조원들도 많이 충고도 해주고 기다려 주어서 무사히 등반을 진행할 수 있었다.

릿지 등반은 준행암 같은 곳과 달리 고정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고, 하강기를 설치하고, 자일을 사리는 작업의 반복이라 더 힘들었고, 계속 높은 곳을 올라가는지 보니 두려움도 점점 커져서 솔직히 좀 많이 무서웠다. 특히 뽕바위에서는 스스로 한심할 정도로 겁이 많이 나서 하네스에 줄까지 연결한 채로 뛰었다. 마지막 하강할 때도 높이가 높이는지 보니 짧은 거리였지만 긴장도 되고 무서웠다. 다시 돌아가는 길에서야 재밌었다는 기분도 들었고, 다음에는 우리 학교끼리 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그전까지 더 등반 실력을 기르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다.

일정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는 갑자기 비가 내려 동계학교 때의 생각도 났고, 역시 종주 마무리에는 비가 빠질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들 풀이 말이 아니었지만, 다 같이 고생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 오히려 좋았던 것 같기도 했다.

**3주 차** 3주 차는 익숙한 동래 인공암벽장에서 주마링, 응급처치, 등반 등의 교육을 받았다. 날씨가 정말 좋아서 밖에 있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았고, 2주 차와 달리 일정도 여유로워 좀 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 좋았다. 처음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다이내믹을 이용한 확보 지점 설치를 배웠는데, 줄로만 안전하게 확보 지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응급처치는 춘해보건대 선배님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실제 상황처럼 119에 전화하는 상황을 가정해 심폐소생술을 여러 상황에서 진행하였다. 군대에서나 학교에서 많이 배운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배울 수 있어 좋았다. 등반의 경우는 자주 오는 곳이다 보니 금방 완등하고 내려왔다. 주마링은 동계 이후로 오랜만에 해보는 것이라 기대가 많이 됐는데, 오랜만에 한지 보니 설치하는 법도 살짝 헛갈렸고, 올라가는 게 어색했다. 하지만 강사님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조금 연습해 보니 금방 잘할 수 있어 뿌듯했다.

날씨도 좋고, 다 같이 앉아서 밥도 같이 먹고, 교육도 듣고 하니 다른 학교 부원들과도 친해져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봄의 등산학교뿐 아니라, 여름에도 가을에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학감님과 강사님들, 또 학생산악연맹을 후원해 주신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부산대 22 백인수

### 3/19일 일요일 준행암 시스템, 등반, 하강, 매듭법 교육

첫 등산학교 일정은 준행암에서 진행했다. 저번 주에 준행암 등반을 했기에 부원들이 그때 하지 못했던 루트를 등반해보거나 배우지 못했던 기본적인 등반지식을 배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기에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다. 집결지인 범어사에 8시 30분까지 가야 했기에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전날에 부족한 매듭 연습용 자일을 만들고 다시 한번 장비를 점검했기에 어느 정도의 피로가 있었지만, 아침에 눈이 번쩍 떠졌다.

범어사에 도착하고 단체 티와 헬멧 스티커를 받았다. 단체티셔츠가 생각보다 평범하고 예뻐서 참 마음에 들었다. 티셔츠로 갈아입고 입교식을 진행했다. 재학생 회장인 경성대 박건우가 진행하고 재학생 부회장인 싸리가 백자 선서를 했다. 싸리에게 백자 선서를 암기해서 멋있게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암기를 했는데 백자 선서를 읽으면서 진행했다.

수료식이 끝나고 각자 짐을 챙겨서 등반지인 준행암으로 등산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길이 경사가 있고 험해서 평소 등산을 잘하지 않는 부원들은 뒤쳐지는 게 보였다. 하지만 동계를 다녀온 나와 싸리는 잘 걸었다. 쪽 등산에서 북문에 도착해 잠시 쉬고 다시 출발해 준행암에 도착했다. 많은 인원이 준행암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뭔가 신기했다. 재학생은 학감님에게 교육받고 신입생을 동아대 현세 형에게 교육받았다. 신입생들은 주로 등반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매듭법(8자, 되감기 8자 등등)을 배우는 것 같았다. 재학생은 학감님에게 산행 대장이 갖춰야 할 지식과 태도를 주로 배웠다. 또한 확보 지점이 없을 때 확보 지점을 만드는 법과 이퀄라이징교육과 상단 확보와 같은 시스템을 배웠다. 단기간에 많은 정보를 배우게 되어 머리가 지끈했지만, 보람찬 시간이었다.

오전 중에는 이러한 이론적인 교육을 받았고 오후에는 등반을 진행했다. 교육받는 시간이 길어져 모두가 등반하긴 했지만, 다소 열정적인 부원인 하경이와 종빈이는 더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이야기했다.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하지만,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보람찼기에 만족스러운 첫 등산학교가 마무리되었다.

### 3/25일 토요일 부산 금정산 일대 종주

이때는 몇몇 부원들이 불참석해서 7명이 진행을 했다. 아쉬웠던 마음도 있었지만, 준비물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했고 그만큼 신경을 쓰고 준비했어야 하는 물품이 많아졌기에 오히려 편했

던 점도 있었다. 그래도 많이 갔으면 다들 친해지고 배우는 점도 많았을 거라서 아쉬운 점이 제일 크다!

아침 8시까지 양산역에 도착해야 했기에 꽤 아침에 일찍 만나기로 했지만, 나는 늦잠을 자버려서 따로 출발했다. 다행히도 짐을 전부 패키징해 놓았고 택시를 타서 많이 늦지는 않았다... 가는 길에 부경대 성환이와 부경대 유진이를 만났다. 서로가 지각인 걸 알아서 웃음이 나왔다. 도착했는데 몇몇 부원들이 늦게 왔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다음부터 늦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싶었다. 양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등산을 출발하기 전 준비를 하고 출발했다. 처음 올라가는 경로가 경사가 있고 다들 짐이 무거우니 힘들어 보이는 부원이 있었다. 하지만 이동해서 올라가야 하기에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며 길을 걸어갔다.

고당봉까지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올라갔을 때 경치가 너무 좋았고 부원들끼리 사진도 찍고 하니 즐거웠다. 고당봉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내려가 무명릿지로 이동했다. 약간의 시간이 있어 무명릿지 초입부에 가서 신입생이 주가 된 교육이 약간 있었다. 생각보다 추웠다. 막영지로 복귀해서 밥을 준비했다. 이전에 대선,배재영 형에게 밥을 맛있게 하는 비법을 배웠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후식나 밥이 타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밥이 너무 잘되어서 만족스러웠다. 입맛이 다소 까다로운 정수 씨도 맛있다고 한 걸 보니 잘되긴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기를 건우가 구웠는데 약간 태워서 동아대 부원분이라 투닥투닥했다. 우리는 2조를 합쳐서 밥을 준비했는데, 고기와 부대찌개와 밥과 라면이 있어서 생각보다 푸짐했다. 특히나 밥이 맛있었고 하경이가 가져온 김치가 야무졌다. 매트릭스 위에 도란도란 앉아서 밥을 먹고, 어둑어둑해졌다. 그러자 술이 하나둘씩 나왔다. 맥주 소주 막걸리... 다들 술이 고됐나 보다. 이때 건우랑 주짓수를 배운 동아대 부원이 투닥투닥 싸웠는데 보는 재미가 있었다.

8시쯤 되니 배가 고됐는데, 그때 현세 형이 주문받았다. 굽네치킨과 소주를 다들 주문했는데 성민이와 현세 형은 바쁜 길을 떠났다. 생각보다 거리가 있는 데에도 우리를 위해서 내려가서 장을 보고, 치킨도 주문해 오셨다. 현세 형과 성민이의 팍과 노력이 담겨서 그런지 치킨이 너무나 맛있었다. 굽네치킨이 지방이 적고 다소 건강한 치킨이라고 생각해 부담 없이 계속 먹었다. 술자리 특징인지는 모르지만 안주인 치킨이 남았다. 나를 포함한 굽주린 부원들은 남은 치킨을 없애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 학교 유진이와 정수 씨랑 이야기했는데 다들 암전해 보이지만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치킨을 다 먹고 나의 식기들을 정리한 다음 비박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내가 챙겨온 큰 매트릭스에 다들 술을 마시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다른 학교에서 들고 온 텐트에서 잘 사람을 현세 형이 찾았다. 아무도 자려고 하지 않자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해 드리니 바로 자면 된다고 해서 안심했다. 한편으로는 비박을 하는 정수형과 종빈이가 신경이 쓰여 텐트에 자리가 남으니 들어가서 자도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밖에서 잔다고 했다. 주섬주섬 텐트에 들어가 잘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낯선 공간이라 그런지 중간중간 깨긴 했지만 잘 잤다.

### 3/26일 일요일 무명릿지

아침에 일어나 빠르게 아침 준비를 했다. 차근차근 정리하며 준비해 빠르게 출발할 준비를 마쳤지만, 무명릿지 등반순서는 마지막이라서 기다렸다. 앞 조들이 가는 걸 기다리며 아래에서

상단 확보를 연습했다. 우리 조가 마지막으로 출발하게 되었지만 1피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조의 강사였던 학감님이 이것저것 알려주시려고 해서 지체가 되었다. 우리 뒤에 온 다른 등반그룹도 있어서 시간이 엄청나게 지체되었고, 우리 조는 우회하게 되었다. 사실 선두와 마지막에서 확보 지점을 만들거나 상단 확보를 하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나에게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 배운 점도 많아서 좋았지만, 신입 부원이 하경이와 종빈이에게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때의 경험으로 다들 더 잘하기 위해 열정을 다지며 특히나 종빈이는 매일 부실에 와서 운동하거나 모르는 점을 물어보고 새로운 암벽화를 사는 등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회하다가 하강 지점으로 갔고, 거기에는 지성 선배님이 계셔서 아주 반가웠다. 같은 조가 되어서 등반했으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많이 배웠을 것이라서 아쉬웠지만 다음 기회도 있으니 그때 더 배우자고 마음을 먹었다. 우리는 하강하고도 시간이 지체되어서 원래 돌아가는 길이 아닌 우회로로 돌아갔다. 마치 탐험하는 것 같았는데 길이 험해서 다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마지막 하강을 앞두고 아래에 성환이 성민이 싸리와 멀리서 인사를 나누었는데, 참 반가웠다.

마무리하고 오비 선배님들의 지원금을 받아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다들 얼굴이 힘 들어 보였지만, 좀 더 끈끈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 참 좋았다.

#### 4/1일 토요일 동래 외벽 주마링, 선등, 이퀄라이징, 응급처치법 교육

8시 10분에 만나서 이동하기로 했지만, 눈을 뜨니 8시라서 따로 씻지 못하고 바로 부실로 출발했다. 이때 머리가 상당히 이상했는지 몇몇 사람들이 몇 시까지 잤냐고 장난을 쳤다.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고 우리 1조는 리드클라이밍 교육을 받았다. 파란색 홀드 루트를 올라갔는데, 아래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 괜스레 긴장되었다. 다행히 큰 실수 없이 마무리하고 이후에 조원들도 등반을 시작했다. 다들 잘하는 걸 보니 뿌듯하면서 좋았다. 이후 점심을 먹고 이퀄라이징 교육을 받고 응급처치법을 교육받았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법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구급대원분과 간호사 선배님들에게 교육받으니 정말 유익했다. 이후에 주마링을 하고 어느덧 수료식이 다가왔다. 수료식은 조린이 정말 기억에 남았다. 한국어가 힘들었을 텐데 계속 연습하고 실전에서는 멋있게 백자 선서를 완수한 모습이 감동스러웠다.

부산대학교는 이번 등산학교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 참가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으면 부산대학교라는 말을 다른 학교가 할 정도였다. 걱정하는 인원도 있었고 나도 걱정했다.

많은 인원의 등반과 등산을 준비하는 걸 도와주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했기에 바쁘기도 했다. 그렇지만 참 즐거웠고 보람찼다. 모르던 다른 학교 인원과 친해지고 아직은 어색했던 부원들과도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스스로 등산학교를 잘 마칠 수 있겠느냐는 의문과 불안이 들었지만, 잘 완수한 것 같아서 행복했다. 그리고 신입 부원들과 재학생들이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게 보여서 좋았다.

## 동의대 21 김도현

작년 5월쯤 나는 동의대 산악부 활동을 한 지 1달 정도 만에 선배들의 권유로 등산학교가 뭔지 몰랐지만 참가하게 되었다. 그때 여러 친구와 선배들도 사귀고, 등반 관련 기초 기술들도 많이 배웠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산악부 활동 후 등산학교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 지난번의 추억에 끌려 한 번 더 참여하게 되었다. 작년에는 그냥 처음 배우는 수료생의 입장이었지만, 올해는 조장은 아니어도 부조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되어 그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낯익은 얼굴들도 많이 보여서 반가웠고, 작년에 나와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던 경성대 건우 형이 연맹 회장이 되었다는 소식에 신기하고 대견했다.

이어서 첫 주차 때는 집결지가 범어서 주차장이었는데 집에서 거리도 먼데다가 아침 일찍 가야 해서 아침을 급하게 편의점에서 사서 차에서 먹는 바람에 냄새가 심하게 났었다. 그리고 좀 있다가 학감님과 다른 등산학교 참가자들이 우르르 주차장에 몰려왔다. 그 후 각자 등산학교 티셔츠를 입고, 헬멧에는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을 했다. 원래 입교식은 따로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입교식을 진행했다. 그 후 배낭을 메고 준행암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내가 항상 가던 길과 달라서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조원들과 인사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니 금방 준행암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조장과 부조장은 다른 조원들과 따로 심화 기술들을 강습받으며 공부하였다. 다른 조원들은 작년에 했던 기초훈련과 마찬가지로 8자 매듭과 같은 매듭들을 연습하고 있었다. 작년에는 그렇게 어려웠던 매듭법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냥 지어버릴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함을 느꼈다. 강습이 끝난 후 우리는 준행암 먼저 올라가서 줄을 깔고, 다른 초보 수료생을 위나 아래서 봐 주면서 등반시켰다. 어찌 시간을 맞춰 등반을 끝낸 후 사진도 찍고, 서로 가는 길에 맞게 해산하였다.

그리고 2주 차 등반은 1박 2일 비박인데, 제일 힘들지만 재미있어서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사정이 안 되어서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 때는 동래 인공암벽장을 갔다. 거기서 이퀄라이징도 배우고, 주마도 배웠다. 그리고 응급처치법에서 각자 상황극도 했는데 조원들 몇몇이 개그 욕심이 있어서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다. 그렇게 모든 강의를 다 배우고, 다 같이 모여 수료식을 하였다. 참여한 모두에게는 카라비너와 수료증을 주었고, 개근을 한 사람들에게는 예쁜 가방을 주었다. 나도 2주 차 때 갈 수 있었으면 개근상도 받았을 거란 아쉬움이 남았다.

그 후 사진을 찍고 다 같이 뒤풀이 장소로 돼지국밥집으로 향하였다. 마침 내가 차가 있어서 우리 조는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내가 포함된 테이블은 술을 안 마시는 테이블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술을 마시는 테이블이어서 그냥 앉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신기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일이 있어서 먼저 가게 되었다. 이번에도 등산학교에 참가했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서 즐기고 싶다.

## 부산대 23 고유진

산악부에서의 첫 활동인 등산학교를 수료했다. 등산학교를 지원한 이유는 산악부에 들어오기 전 백패킹을 꿈꾸고 있었는데 등산학교에서는 산에서 1박도 할 수 있고, 등반에 꼭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했다. 등산학교 시작 날, 그것이 나의 첫 산악부 활동이었는데, 처음 뵈는 분들과 모르는 용어들 사이에 쉽지 않았다. 가방을 패킹할 때도 하강기가 뭔지, 확보줄이 뭔지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크게 헤맬뻔했는데 조린 선배의 도움으로 잘 챙겨서 첫 준행암 등반을 갔던 것 같다.

등산학교 전체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무명릿지 한 날인 것 같다. 금정산 등산을 여러 번 왔다 갔지만,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등반을 하고 계셨다. 무명릿지는 정말 재미있었다. 원래 탁 트인 풍경이 좋아 높은 곳을 좋아하는데 무명릿지를 등반하는 내내 탁 트인 전경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등반하다 만난 분께서 가을에 오면 전경이 너무 예쁘다고 하셨는데, 무명의 가을이 궁금해졌다. 릿지등반 코스 중에 내가 하기엔 아직 어려워서 우회한 직벽 등반코스(?)가 있었는데, 직벽 등반코스도 성공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릿지등반 내내 길을 찾아가는 선배들이 너무 멋있었다. 길을 찾아가는 선배들이 신기해서 산악부 몇 년 하셨냐고 여쭙봤더니 물어본 분들 거의 1~2년 정도 활동했다고 하셨다. 나는 다들 5년씩 한 사람들인 줄 알았다. 나도 1년 후에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겼고,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 등반 내내 선배들이 너무 든든해서 무서울 틈이 없었던 것 같다.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시고, 자일도 잘 잡아주셔서 나는 할 게 없었다. 등반 후에 자일 사리는 걸 배웠는데 은근 쉽지 않았다. 등반 때 몇 번이나 자일 사리시는 걸 반복하셨는데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다는 생각에 죄송했고 감사했다. 나도 얼른 빨리 배워서 혼자 잘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왔더니 손이랑 무릎이 엉망이었다. 무릎엔 멍이 여럿 들었고, 손은 상처가 많았다. 언제 다쳤는지도 몰랐는데 열심히 했나 보다. 훈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선배들의 손에 비해서는 깔끔한 손이었다.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다.

마지막 일정은 동래 외벽에 다녀왔다. 오토빌레이?라고 자동으로 잡아주는 줄이 있었는데, 사실 그 줄이 처음에 의심했다. 하지만 힘이 빠지니까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떨어졌다. 거기서 내가 근력이 아주 부족한 사람임을 느꼈다. 근력 향상과 다이어트가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몸도 무겁고 힘이 부족했다. 얼른 다이어트해야지! 주마링도 배웠는데 자세를 많이 다듬어야 할 것 같다. 옆에서 빠른 속도로 주마링 하시는 선배가 너무 멋있었다. 열심히 따라 올라갔는데 나의 속도의 2배는 되시는듯했다. 마지막까지 다 새롭고 재밌었다!

산악부에 안 들어왔으면 평생 못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경험을 등산학교에서 했는데 너무 기억에 남고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것 같아서 좋았다. 초보자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고 쉽지 않은데, 무엇이라도 알려주려고 하시는 강사님들과 선배님들께 너무 감사했고 나도 빨리 배워서 혼자서 해내고 싶어졌다. 학감님의 말씀 한마디가 전부 후배들을 야기시는 게 느껴졌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다치지 않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수료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의 산악부 활동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등산학교였던 것 같다.

## B.F.C 23 B.S.A.A Fun Climbing School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동계반) 보고서



2024년 1월 26일 ~ 2월 1일(6박 7일)

## 1. 등반개요

- 1) 명 칭 : B.F.C 23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동계반)
- 2) 대상지 : 영남알프스 일원/ 얼음골
- 3) 일 시 : 2024년 1월 26일 ~ 2월 1일(6박 7일)
- 4) 목 적
  - ① 단결·인내·안전을 통한 바람직한 대학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 ② 빙벽등반에 대한 올바른 등반지식과 기술을 연마
  - ③ 적설 등반을 통해 흰 산에 대한 열망 및 대학 산악부원으로서의 자긍심 공유
  - ④ OB·YB 합동 등반을 통한 학산 선후배 간의 기술 교류

## 2. 참가자 명단

### 2-2. 임원 및 강사 명단

직위	이름	연락처
교장	박민호	010-9556-8038
학감	하태웅	010-9637-8848
강사	김지성	010-3579-3392
강사	김재연	010-2440-9126
기획이사	김병진	010-7227-2678
촬영	박준범	010-5123-6466

### 2-1. 교육생 명단

순번	학교	학번	이름	성별	혈액형	연락처	상의사이즈
1	경성대	19	박건우	남	B	010-4576-4843	100
2	경성대	21	박성준	남	O	010-3885-6246	100
3	경성대	23	장효정	여	A	010-3557-8340	95
4	경성대	23	정연우	남	O	010-8145-9087	95
5	경성대	21	김민주	여	A	010-5663-0026	100
6	부경대	22	김지윤	여	AB	010-3153-3373	95
7	부경대	23	나유진	여	A	010-7101-3329	95
8	부산대	20	고유진	여	O	010-8228-9586	100
9	부산대	22	백인수	남	B	010-2883-0435	100
10	부산대	18	김재영	남	O	010-9047-2187	105
11	동과대	19	노형곤	남	B	010-8652-8340	100
12	동아대	19	김정현	남	O	010-5447-1403	105
13	동아대	20	신정호	남	O	010-6332-0635	105
14	동아대	23	장여경	여	B	010-8750-3694	95

### 3. 운행보고

순번	날짜 (요일)	대상지	주간 교육(0600 ~ 16:00)	야간 교육 (19:00 ~ 21:00)	막영지
1	1/26(금)	영남알프스	하중 훈련(통도사-영축산-신불산)		영남알프스
2	1/27(토)	영남알프스	하중 훈련(간월산-배내봉-배내고개)		영남알프스
3	1/28(일)	영남알프스	하중 훈련(배내고개-B.C)	얼음골	얼음골 종점펜션
4	1/29(월)	얼음골	기초교육(장비 설명, 장비 착용, 튜닝)	얼음골	얼음골 종점펜션
5	1/30(화)	얼음골	I.C 훈련	이론 교육	얼음골 종점펜션
6	1/31(수)	얼음골	I.C 훈련	이론 교육	얼음골 종점펜션
7	2/1(목)	얼음골	선녀폭-수료식		시례정가든

### 4. 장비보고

공 동 장 비				개 인 장 비			
구분	품 명	수 량	비 고	구분	품 명	수 량	비 고
막영	텐트	4	5인용	막영	침낭	1	동계용
	그라운드시트	4			침낭커버	1	
	팩	다수			매트리스	1	
	텐트 실내등	4			배낭	1	70L이상
	눈삽	4			배낭커버	1	
	노끈	1롤			어택배낭	1	30L전후
취사	가스버너	10개	가스	등반 및 운행	이중화	1	
	코펠	4세트			크랩폰	1	빙벽용
	방풍판	10개			아이스엑스	2	바일
	프라이팬	2			일반 등산화	1	
	칼	5			헤드랜턴#3	1	여분건전지
	가위	2			수통 및 수통커버#2	1	1리터
	수낭	4	팩트병 가능		스패츠	1	
	가위	2			안전벨트 등 #1	1	
	가스	다수			헬멧	1	
	DUCK TAPE	다수			설상용 피켈	1	바일로 대체가능
등반구	자일	2동	90미터	스틱	1	선택	
	자일	3동	60미터	수저	1세트		
	슬링(테이프)	10개	120cm	자외선차단제	1		
	슬링(테이프)	10개	90cm	장갑	2		
	아이스스크류	20개		슬리퍼	1		

	퀵드로우	30개			컵	1	시에라
기타	의료구	다수		의류	세면도구	1세트	
	수선구	다수			방수옷 상하	1	오버트라우저
	라이터	다수			오리털파카 상	1	우모복
	휴지	다수			파일 재킷	1	
	물티슈	다수			긴팔티	2	
	마대자루	다수	쓰레기처리		긴바지	2	
	비닐봉투	다수			속옷	2	
	단대부기	각1			내의	1	히트텍
	학산기	2			양말	3	
	플랭카드	2	대1, 중1		모자	1	비니
					바라클라바	1	
					고글	1	선글라스
			이중화케이스	1			

#1. 안전벨트 등: 안전벨트, 하강기, 데이지체인, 카라비너(안전2개, 일반2개).

라운드슬링 5mm 10미터, 피피1개

#2. 수통은 낱수수통같이 주둥이가 넓은 것으로 하고 물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온커버(기성품)를 구매해도 되고 일반 택배용 보온재를 대고 테이프로 감아서 보온해도 됨

#3. 헤드랜턴 건전지는 1회 교환할 수 있는 건전지 휴대 요망

총평 - 학감의 원정으로 인해 준비기간이 짧아 준비가 미흡했다. 재학생들의 빙벽화가 없어 벨리다보니 사이즈가 안 맞는 게 많았다. 크램폰을 미리 조정해서 가져왔으면 한다.

김재연 강사- 종주를 하지 말고 빙벽반을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중급이상의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생각한다. 바일을 최신형으로 준비하기보다 샤를 모제의 퀴크형으로 바로 찍을 수 있는 형태가 교육에 더 적합할 것 같다.

## 5. 식량보고

식 단 표				
날짜	아침	점심	저녁	비고
1/26(금)	매식(8)	즉석밥(8)	미역국(8)	
1/27(토)	호박죽(8)	즉석밥(8)	미역국(8)	
1/28(일)	단팥죽(8)	즉석밥(8)	김치찌개(15)	
1/29(월)	떡국(15)	떡라면(15)	된장찌개(15)	
1/30(화)	떡국(15)	떡라면(15)	김치찌개(15)	
1/31(수)	떡국(15)	떡라면(15)	된장찌개(15)	
2/1(목)	떡국(15)	매식		수료식
밀반찬	김치, 콩자반, 쥐포, 젓갈 등			
행동식 및 간식	연양갱, 에너지바, 사탕, 꿀, 육포, 포도당, 소시지, 커피, 차 등			

## 6. 의료보고

구 분	품 명	수 량	비 고
해열진통제	아스피린	10정	
	타이레놀	20정	종합감기
소화기용	정로환	10정	소화제
	로이디펜	10정	지사제
기타	아쉬그로버	입술포진 진정제	1개
	레모나	2팩	비타민
외상용	스프레이 소염진통제	1	
	후시딘	1	
	메디폼	1	
	소독거즈	다수	
	압박붕대	1	
	반창고	1	
	파스	3	
	일회용밴드		
	핀셋	1	
	가위	1	
	동상연고	1	

## 7. 회계 보고

### 7-1. 수입내역

수 입			
구분	항목	금액	비고
회비	교육생 참가비	1,220,000	8명*100,000, 6*70,000
찬조금	박민호회장	800,000	
	부산연맹지원금	500,000	
	이동본고문	100,000	
	정민규고문	100,000	
	윤계욱(동과92)	100,000	
	정인숙부회장	200,000	
	조벽래(동대88)	200,000	
	신호진고문	100,000	
	정지택고문	300,000	

	김규태(부대82)	100,000	
	전상은(교대85)	100,000	
	부산대산악회	200,000	
	성기진동아대회장	500,000	
	하태웅부회장	100,000	
합 계		4,620,000	

### 7-2 지출내역

지 출		
항목	금액	비고
펜션사용료	700,000	얼음골 중점펜션
교육생 단체티	551,000	짬업
현수막	23,500	
오리고기	56,280	
보험	27,200	종주+빙벽
보험	12,600	빙벽
시상품	340,000	카라비너, 버프
즉석밥, 가스	125,000	
식량	289,610	코스트코
식량	220,960	트레이더스
시외버스	19,600	노포동-통도사
매식	43,300	통도사 터미널
강사비	300,000	3명
다회용 그릇	9,000	
식대	250,000	수료식
식대지원	500,000	성기진동아대회장(시례정)
식품구매	300,000	박민호회장(돼지국밥)
이체수수료	500	펜션사용료관련
합 계		3,768,050

## 8. 등산학교 참가기

### 부산대 23 고유진

동계 등산학교에 왜 참가했냐고 묻는다면 영남 알프스에 가고 싶다는 마음과 동시에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라고 하겠다. 작년 동계를 다녀온 산악부원들로부터 동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다. 아주 힘들지만 그만큼 진한 추억으로 남는 듯 보였다, 그래서 동계가 궁금했다. 내가 이번에 가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 같았다. 또 내년에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이 기회였고, 가야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가기 전 나는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다. 앞에서 말했듯, 동계를 갔다 온 산악부원들로부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겁을 먹었었다. 그래서 유튜브와 블로그를 많이 찾아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을 찾아보거나 복장을 신경 썼다. 나는 가벼운 당일 산행만 주로 해보았고 그렇기에 제대로 된 복장 하나 없었다. 이번을 계기로 복장에 대해 많이 찾아보았다. 베이스 레이어, 미들 레이어, 프로텍션 레이어 철저히 지켜서 입었다. 확실히 신경 써서 입었더니 체온조절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위생에도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나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옷도 꽤 챙겼다. 챙긴 옷이 꽤 많아 무거웠는데 첫날 저녁 바람이 크게 불고 추웠는데 넉넉히 온 옷들 덕분에 잘 버텼다. 복장은 정말 후회 없이 잘 준비했던 것 같다. 복장뿐만이 아니라 운동도 꽤 했다. 하체 운동 비중을 많이 두고 웨이트를 하고 몇 주간은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했다. 전날에는 컨디션을 위해 식단을 신경 썼고, 잠도 충분히 자기 위해 신경 썼다. 이렇듯 나는 겁을 먹은 채 각오하고 동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듯 준비를 꽤 했지만, 종주를 쉽게 해낸 것 같지는 않다. 사실 귀찮다는 것을 핑계로 하중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냥 가벼운 몸으로 운동했고, 종주 동안 무거운 배낭 무게를 버틸만한 체력은 만들어지지 않은 듯했다. 사실 러닝 위주의 고강도 유산소성 운동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많은 욕심에 준비물이 많았던 것 같다. 편하기 위한 준비물을 늘릴 게 아니라 배낭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향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종주는 시작

30분이 제일 힘든 것 같다. 그 이후는 좀 몸이 적응해서 나는 갈수록 힘이 났던 것 같다.

빙벽은 정말 새로웠다. 첫날 아이젠 낄짱을 했다. 강사님들께서 아이젠 낄짱의 중요성을 계속 해서 알려주셨다. 집에서 장비 체크할 때 빙벽 화가 이정도면 맞는 거로 생각했었는데, 프론트를 배우고 해봤더니, 나에게서는 매우 큰 신발이었다. 발에서 뒤축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흔들렸다. 그래서 빙벽화 끈을 엄청 타이트하게 묶고, 발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려고 계속해서 다시 묶었다. 있는 힘껏 조였더니, 조금 나아졌다. 그렇게 첫날은 프론트를 배우고 바일 짚기를 연습하며 낮은 벽에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빙벽 둘째 날은 제일 기억에 남는 날이다. 암가마불 폭포에서 했던 등반은 정말 재밌었다, 밑에서는 안 보여 몰랐는데 등반하며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던 빙벽이 펼쳐졌다. 신기했다. 등반하며 전날 배운 프론트를 짚는 게 아닌 편한 발 자리를 찾아서 밟고 올라가고 있던 나를 지성 선배님께서 지적하셨다. 내 발을 잘 못 믿겠고 편한 발 자리만 찾던 나를 정확하게 보셨던 것 같다. 그리고 불가마 빙벽 위쪽 직벽 코스가 정말 재밌었다. 시간만 더 있었으면 여러 번 해보고 하강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여 아쉬웠다. 그리고 떨어지는 낙석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암가마불 빙벽은 마무리해야 했다.

셋째 날은 암가마불 폭포는 낙석으로 인해 가기 어려울 듯 보였고, 낙석이 덜한 곳에서 선배들이 깔아준 줄에서 또 한 번 빙벽을 타게 되었다. 암가마불 폭포 구간보다는 짧았지만 그래도 빙벽 무브를 연습하기에 딱 좋은 벽이라고 느껴졌다. 아직 뒤축이 많이 높아 보였고, 발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배운 자세를 해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셋째 날 빙벽까지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번 동계를 통해 남을 도와주는 부원들을 보면서 자극이 많이 되었다. 나도 언젠간 챙김만 받는 것이 아닌 후배들을 도와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 내 할 일은 정확하게 하고 공용적인 일까지 도울 수 있는 여유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선배들로부터 많이 배웠다. 나는 기회가 되어 동계에 다시 참가하게 된다면, 올해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다.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물건과 없어도 되는 물건을 가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음식이 나에게 잘 맞아 소화에 문제가 없고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는지도 알 것 같다. 빙벽도 어떤 것이 부족한지 알고 신경 써서 자세를 다듬는다면, 더욱 자신감과 흥미가 생길 것 같다. 아마 이 동계는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다. 친구들과도 아주 친해졌고, 등반과 워킹에 대한 더 큰 자극이 되는 기회였다.

### 동아대 23 장여경

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었다. 그리고 또 눈과 얼음을 보며 겨울을 즐기고 싶은 어찌면 가벼운 마음으로 종주와 빙벽 등반 둘 다 신청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준비해야 하는 것들과 알아야 할 지식이 많았고 가벼운 마음과 달리 묵직하고 단단한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함을 알고 조금은 부담되는 마음이 생겼다 가장 늦게 신청한 나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던지라 그 일주일을 정말 바쁘고 걱정된 마음으로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와 같은 동아대에서 같이 가는 선배 2분이 있으셔서 정말 편하게 부족함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던 일주일이었다. 등산 장비가 하나도 없는 나는 동아리에서, 지인들에게서, 엄마·아빠에게서, 이것저것 물건들을 받고 매우 큰 소비도 하며 등산 장비가 비싼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돈을 들이며 사야 하나 싶었지만 모든 게 처음이고 어설픈 나에게 준비물이라도 든든하게 챙겨야 했기에 가벼워진 지갑만큼이나 내 마음은 든든해졌다.



첫날, 가방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놀랐다. 양산에 도착하여 학감님께서 사주시는 매식을 감사히 먹고 등산 출발점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5분 정도 걸었을까? 숨이 차도록 힘이 들었다. 머리가 멍하고 핑 돌았다.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휘청대며 걸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어하는 날 보고 더 놀라서 마인드 컨트롤이 어려웠던 것 같다 출발지부터 오르막길을 오르던 30분 정도는 지옥이었다 솔직하게 후회하는 감정이 더 컸다. 내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챈 성준이가 사람들과 나눠서 나의 물 4L를 대신 들어주었다 그 덕분에 그 이후의 산행은 정말 괜찮아졌다 4kg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괜찮아졌다 그러자 좀 신이 났던 것 같다 후회하는 감정들도 사그라들었다. 가는 길에 가파르며 진흙으로 된 길을 오래도록 걸어갔는데 워낙 미끄러운 탓에 나는 앞으로 미끄러져 넘어졌다 다행히도 안전하게 넘어진지라 하하 웃으며 웃을 털었다. 그리고 정호, 정현 선배님들을 도움으로 아이젠도 신고 재정비하여 미끄러운 길을 잘 올라갈 수 있었다. 이제 차차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더 신이 났다 어느 정도 올라와서 하얀 눈밭에 발열식을 먹었다 처음 만들어 먹는 발열식이 너무 신기하고 맛있어서 신났던 기억이 난다. 겨울 산 풍경 이곳저곳을 눈과 사진에 담기도 하고 눈싸움도 하면서 잠깐이나마 즐겁게 휴식하였다.

밥을 다 먹고 조금 올라가자 영축산에 도착하였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할 정도로 정상의 풍경은 아름다웠는데 눈에 너무 담고 싶던 하얀 산이 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성취감과 행복감이 내 몸을 감싸던 순간이었다 한껏 정상의 풍경을 다 감상하고 난 후 신발재로 몸을 옮겼다. 너무 풍경이 아름다운 탓일까? 아까의 나와 달리 산을 날아다니며 걸어 다녔다 그냥 눈길 이 너무 좋아 힘든지도 모른 채 무거운 짐도 잊은 채 룰루랄라 행복했다. 신발재에 도착하니 더 행복했다 뭉친 다리도 풀고 눈밭에 누워보기도 하며 눈오리도 만들었다 춤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노을이 질 때쯤 텐트를 치기 시작했는데 텐트를 고정하기가 어려워 애를 많이 먹었다. 지식이 없는 나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걱정과 달리 너무 안락한 텐트를 잘 쳐줘서 감사한 마음이었다 또 날씨가 너무 추운지라 가스 화력도 낮아 음식을 해 먹기에 어려웠지만 능숙하게 밥도 만들고 오리고기도 구워 먹고 마시멜로도 먹으면서 안락하고 행복한 식사 시간이었다 그리고 옷을 꺼입은 채 침낭 속에 들어서 바로 잠들었다.

둘째 날, 해가 뜨기 전 얼른 식사를 마치고 텐트를 접었다. 그리고 일출을 보며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와 힘들었다. 몸이 뭉쳐서인지 꽤 숨이 찼다. 간월재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마치 가을 같아 눈에 담아두려 하였다. 그리고 간월재에 화장실이 있어서 정말 반가웠고 겨울에 미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멋쩍은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같이 과자, 라면, 달걀을 먹으며 배도 마음도 든든하게 간월재에서 쉬었다. 그리고 산의 능선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며 등산하였다. 가끔은 눈썰매도 타며 꽤 재미있게 등산하였다 첫날과 달리 등산이 꽤 즐거웠는데 짐이 줄어서인지 몸이 풀려서인지 더 즐겁게 등산하였다 드디어 배내고개에 도착하였다 정말 안정감이 들었다 아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잘 하산한 우리가 기특하고, 감사했다 솔직하게 내가 민폐가 될까봐 정말이 많았다. 하지만 옆에서 너무 잘 도와주고 챙겨준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잘 하산하였다 이 자리를 빌려 같이 종주하며 큰 도움을 주신 7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셋째 날, 숙소에 오게 되었고 따뜻한 물에 샤워하는데 마음도 몸도 다 풀리며 나도 모르게 미소 지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낮잠을 자고 빙벽 장비를 정비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

고 저녁엔 돼지국밥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야간에 산에 올라갔다 얼어버린 폭포도 구경하고 아름다운 별빛도 구경하고 나름 행복했다.



넷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등산하였다 빙벽 등반을 해야 하는데 처음인지라 다들 장비 착용하는 것조차 어색하고 힘들어했다 겨우 장비를 착용하고 빙판길에 올라서는데 그것조차 겁이나 아이젠~ 팡팡~! 을 외치며 빙판길을 걷는 연습부터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겁먹을 게 아닌데 걷기조차 어려워했던 우리의 모습이 귀엽기도 하다 그렇게 빙판길을 열심히 걷고 등반할 때 발을 어떻게 사용하는 짧게나마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 우리 동아대 OB 회장님께서 백숙을 사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잘 먹었다.

다섯째 날, 가장 재밌는 코스를 했던 날이다. 나는 오전에 짐을 모아둔 곳 옆에 빙벽에서 주마를 잡고 발로 올라가는 연습을 했다 이때 연습을 한 후 오후에는, 엄청나게 긴 코스를 주마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오전에 연습해서 그런지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올라가는 길에 꽤 길어서 그리고 긴장되었다 그때 내 심장 소리랑 숨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릴 정도로 집중해서 올라갔다 아주 많이 재밌었다 올라가는 첫 번째 코스를 지나고 나면 피켈을 이용하며 올라가는 직각 빙벽이 있는데 나는 팔에 힘이 없는 건지 피켈을 찍을 때마다 헤드가 흔들려서 피켈을 믿고 올라가기가 두려웠다. 그래서 얼마 올라가진 못했고 뒤에서 남 하는 거나 구경했다 그리고 주마로 올라가던 게 너무



재밌어서 만족하고 있었다!

여섯째 날, 비가 왔던지라 그리고 낙석이 심한 곳도 있어서 그런 곳을 제외하고 한정된 곳에서 피켈을 이용하여 빙벽 등반을 하였다. 피켈이 어렵고 무서운 나는 이날 제대로 등반하기보단 겁이 나서 구경했다 이번 기회에 평소에 운동해야겠구나 마음먹었던 날이다.

일곱 번째 날, 길 것 같았던 일주일도 벌써 끝이 났다. 집에 빨리 가고 싶었기도 했지만, 웬지 모르고 마음이 아렸던 것 같다 아쉽고 아쉬운 감정이 마음을 가득 메웠던 것 같다 OB 선배님들과 맛있는 수제비를 먹고 수료식을 하였다 받은 카라비너는 너무나 좋아서 좋았다.



덕분에 이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어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내 자신이 해내는 것을 보고 기특하고 보람찼다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어 용기 낼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어 고개 숙여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또한 부족한 나를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 동료분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을 하고 싶다.

### 경성대 23 정연우

한 번씩 형들이 “아 동계를 안 가면 산악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번 동계등산학교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는 동계등산학교에 종주와 빙벽을 같이하지 않고 빙벽반만 참여하게 되었다. 첫 빙벽인 만큼 설렘 반 불안감 반이었다.

빙벽반 첫날부터 야간산행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등산은 자주 하지 않고 스포츠 클라이밍만 했던 터라 첫 야간산행이 꽤 힘들었다. 빙벽 어프로치까지 도착해서 빙벽을 보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웅장하고 멋있었다. 첫날에는 어프로치에 장비들만 놔두고 내려왔다.

2일 차부터 빙벽 기본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빙벽화를 신고 아이젠을 착용한 다음 걷는 법을 배웠는데 통칭 ‘아이젠 깡깡’을 했다. 처음에는 급구한 빙벽화였다 아이젠 사이즈도 약간 커서 어색했지만, 걷는 것은 적응되니 잘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프론티포인팅이라는 기술도 배우게 되었다.

3일 차, 4일 차에는 빙벽을 타게 되었는데 송도 해벽, 대륙암과는 다른 쾌감을 느끼게 되었다. 첫 동계에는 처음이라 그런지 어리바리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 동계 때는 민폐도 덜 끼치고 더욱더 많은 기술들을 배우고 등반을 해보고 싶습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동계를 기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동아대 23 김정현

항상 가고 싶었던 동계 등산학교를 이번에 기회가 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2년 하계등산학교에 갔을 때 처음 등반을 접하게 되어 꾸준히 등반을 해왔고 종주와 빙벽 등반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침 동계 등산학교는 두 가지 경험을 모두 해볼 기회였고 부풀어 오른 마음을 품고 동계등산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종주는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15kg가량 짐을 들고 종주를 했는데 처음으로 많은 짐을 들고 운행해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겨울에 텐트에서 자는 경험도 처음이었는데 낭만 있고 좋았습니다.

종주 이후 숙소에 도착하고 하루 동안 휴식일과 이론교육을 마친 후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빙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젠을 차고 걷는 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실습을 시작했고 바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얼음이 부서지기도 하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 뿌듯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동계에서 배운 빙벽 기술들을 꼭 다음 기회에 써먹고 경험을 늘려 등반 기술을 향상하게 시켜 후배들에게도 알려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계에서 처음 해보는 경험을 많이 했고 앞으로 등반과 등산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는데 동계 등산학교 때는 항상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며 일주일 동안 수면 패턴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O.B 선배님들과 학감님 강사님들 그리고 등산학교에 같이한 친구들 모두 많이 도움 되었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 부산대 18 김재영

2023.1.27 (토)

아침 7시 15분 집에서 부경대 부실로 출발했다. 도착 후 텐트, 코펠, 가스, 버너 등 이것저것 넣으니 80리터 배낭이 딱 차는건 한순간이다. 패키징을 한창하고 있는 와중 재연 행님께서 부경대 부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 차가 작아서 짐을 패키징하지 않고 차곡차곡 카고백에 채워 넣으라고 하셨다. 카고백에 이것저것 채워 넣고 차 위에 올린 후 자일로 까베스팡 매듭으로 묶어 고정했다. 역시 산악부에서 배우는 것들은 실생활에 유용함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나머지 짐들은 트렁크와 뒷좌석에 꼭꼭 눌러 담으니 어떻게 사람이 타고 갈 자리는 생겼다. 중간 휴게소에서 짐이 잘 묶여있는지 확인했는데 다행히도 멀쩡했다.

도착 후 가지산 온천 앞에서 매식한 후 얼음골 안으로 들어갔다. 주차하고 각자 배낭에 짐을 패키징한 후 출발하였다. 오래간만에 무거운 짐을 드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도 가마불까지 이동하는 것이라 산책하러 가는 느낌으로 행복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어프로치 약 25분)

숫가마불에 도착했는데 한 달 전 봤던 것보다 더 두껍게 얼어있었다. 하지만 시간대가 오후 3~4시 정도여서 얼음의 상태는 살짝 녹아있었다. 숫가마불 앞에 있는 좋은 터에 자리를 잡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다른 등반팀이 와서 등반을 시작했다.

우리는 가마불보다 더 안쪽에 있는 곳에서 빙벽 교육에 들어갔다. 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쿵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람이 추락한 것이다! 대략 15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추락했는데 아래 2개 스크류가 터져서 땅을 친 것이었다. 추락한 지점에 견고히 박혀있는 두 바일로 보아 발이 터졌으리라 예상된다. 곧이어 119 구조대분들이 오시고 들것에 실어 옮기셨다.



의미 부여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 훈련하는 첫날 이런 사고를 눈앞에서 접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상황이 종료되고 마저 남은 훈련을 끝내 일찍 하루를 마쳤다.

### 2023.1.28 (일)

오전에 잠깐 훈련하고 숙소로 내려왔다. 사실상 동계 인원 모두가 처음 합류하는 날이었다. 숙소엔 중주(?)하고 온 친구들이 누워서 쉬고 있었다. 처음 중/장거리 워킹을 하고 온 사람도 있으니 다들 분명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혼자서 모두를 이끌고 다녀온 성준이가



한층 더 성숙해 보인다. 곧이어 학감님도 오시고 행님께서 챙겨오신 식량과 장비를 정리한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다 보니 빙벽반도 인수 어머니 차량을 통해 도착했다. 회장님께서 가져오신 돼지국밥을 먹고 난 뒤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에 대해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예상했는데 갑자기 등반하러 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야간 훈련인 것이다! 역시 재연 행님은 예측할 수 없는 분이구나 생각했다. 다 같이 달밤 체조 후 발걸음을 옮겼다. 뭔가 방금 먹은 국밥이 소화도 되고 참 좋았다. 살짝 탄 이야기긴 하지만 요새 밥 먹고 산책하는 게 그렇게 좋다.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니 다들 식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자.

등반지 도착 후 재연 행님은 조를 나누고 조장을 결정하게 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등반을 준비하는 와중 앞에서 건우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건우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으며 등반 준비를 한다. 난 지성 행님을 따라 연습장의 상단을 등반하고 내려왔다. 훈련은 길지 않았다. 두어 차례 등반 후 하강하고 다들 철수했다.

### 2023.1.29 (월) - 2023.1.31 (수)

숫가마폭 앞에서 아이젠 짱짱 훈련을 하였다. 아이젠 짱짱은 기초 중의 기초이다. 나도 복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훈련에 참여했다. 그 사람 다음으로 프론트 훈련을 하였다. 주먹을 쥐고 경사가 있는 부분을 프론트로 찍으며 오르내리기 훈련이다. 이미 발이 만들어져 있다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쉽지 않다. 하지만 등반하다 보면 그런 부분까지 잘 디벼야 할 때가 오고 그 걸 위한 연습이다. 지성 행님께서 강사로서 열심히 가르쳐주셨는데 항상 볼 때마다 후배를 생각하는 마음이 넓으시고 경험으로부터 축적되어 온 지식의 양은 언제나 존경스럽다.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다. 실제로 실력 또한 겸비하셔서 정말 귀감이 된다. 기초 훈련이 잘되는 인원들은 암가마폭 등반을 향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비슷한 루틴의 훈련이었다.



### 2023.2.1 (목)

형곤이, 성준이와 함께 셋이 오전 6시 15분 등반지로 출발했다. 우리는 다 녹아서 등반할 수 없게 된 암가마불 폭포를 보며 허탈해했다. 그래도 기왕 온 김에 선녀폭을 가보고 싶다는 형곤이의 의견으로 우리는 배낭을 빙결지에 두고 선녀폭으로 올랐다. 선녀폭은 고도가 있어서 그런지 녹긴 했어도 형태가 남아있었다. ‘아 장비 들고

올걸'이라고 말하는 찰나 재연 행님께서 우리의 등반을 보러 올라오신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하산하여 짐을 챙겨 다시 선녀폭을 등반하러 올라갔다. 우린 선녀폭이 아닌 그 옆에 있는 짧은 폭포를 올랐다. 먼저 성준이, 형곤이가 동시에 등반하고 내가 이중 확보를 보았다. 등반 열정이 더 있는 형곤이가 조금 더 어려운 루트에 붙었고 쉬운 루트에 붙은 성준이는 거침없이 올랐다.

형곤이가 중턱에서 고전할 때쯤 성준이는 탑을 짚었다. 형곤이도 중간부터는 옆으로 이동하여 성준이가 올랐던 루트를 따라 올라 완등했다. 둘 다 생각해 보면 빙벽 등반을 접한 지 며칠 만에 선 선등인데 너무 잘해서 놀라기도 했고 그 공포감을 이겨낸 것에 대해 그리고 그 실력에 대해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난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을 상기하며 어떻게 올라갈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 누군가가 볼 땐 그리 거창하지 않을 순 있지만 나에게 있어선 오르지 못해본 난이도의 빙벽을 제대로 도전하는 것이어서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차근차근 크릭스 지점(고드름 지대)까지 연습이라 생각하고 빠르게 스크류를 박았다. 얼음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촘촘히 박는 것은 중요해 보였다. 안전 측면에서도, 심리적 측면에서도. 고드름 앞에 서자 두려움에 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진다. 그래도 차분히 동작을 완성한다. 바일의 뒤쪽 면으로 썩은 얼음을 걷어낸다. 바일을 계속해서 휘두르고 있으니, 팔에 흐르는 피가 점차 줄어드는 것 같다.

내가 딛고 있는 발조차 썩 믿음직하지 못하다. 발은 제대로 밟고 있지만 얼음이 부서질 것만 같았다. 그래도 떨어질 순 없어 최대한 코어 힘을 준 상태로 스크류를 돌린다. 마지막 2m 정도 남은 구간에서 난 필사적으로 바일을 짚으려고 팔을 휘두른다. 힘이 많이 빠져있어서 바일이 제대로 박히지 않고 퍽퍽 쓰러진다. 집중력을 끌어올려 제대로 박으려 한다. 나도 모르는 힘이 불끈 솟아오른다. 생존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일까. 마지막 평평한 지대에서까지 집중력을 유지한다. 오차게로 확실한 발판을 만든다. 내가 방금 어떤 등반을 한 것인가 생각과 함께 나에게 대한 대견함에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

하강할 때 스크류를 회수하면서 실실 웃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오래간만의 짜릿함이었다. 장비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리하며 내가 완등했다는 사실을 곱씹는다. 나의 콤포트존이 오늘

넓어졌음에 틀림없다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성준이와 형곤이에게 자일의 정을 느낀다.

이번 훈련을 피드백해 본다면 식량을 조금 더 영양 있게 구성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난 식량 사전의는 시 알바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미 다 결정되었다고 들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다. 물론 의견을 제시 못 한 나의 잘못이지만 다음번 기회가 된다면 식량에 단백질을 조금 더 추가하는 식단을 짜면 좋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였다. 물론 힘을 내는 에너지원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탄단지 비율을 갖춘 식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좋기 때문이다. 심지어 숙소에서 지내기 때문에 동물 단백질도 갖출 수가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동계 등반을 신청하는 모든 인원을 모두 수용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동계 등반을 스포츠 클라이밍과 같이 쉽게 입문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다. 장비적 측면에서도 거금이 들어가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스포츠 클라이밍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대로 한다면 그 위험성은 줄어든다) 적어도 기본적인 체력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강사님께서 쏟을 수 있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집중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모두가 가고 싶다고 참여하게 되면 그 노력이 분산되어 진심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고 적합한 인원을 동계 훈련에 투입하는 것이 좋을 거라 판단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다면 자신만의 등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빙벽 등반을 가르쳐주신 강사님들이 여러 사람 계셨는데 스타일이 제각각이라는 걸 느꼈다.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다르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같다. 결국 안정된 시스템 속에서 편안하게 오르는 것. 그래서 등반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비단 등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사람이 생각하면 철학이 생기고 그것이 곧 자신의 색을 만든다. 색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만의 매력이 드러나는데 이는 자칫 사회에서 호불호가 갈리긴 쉽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충실하고 윤희로운 것이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다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선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존중받기 위해선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만의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 산악부 탐방



# 경성대학교

안녕하십니까!

22년도에 경성대 부장을 맡았던 19학번 박건우입니다.

저희학교 산악부 소개를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경성대학교 산악부는 실내 클라이밍, 산행과 워킹, 외벽등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 들어올 신입생들과

재밋게 활동할 예정입니다.



### 동아리방 입구입니다.

경성대학교 제1학생회관 41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에 턱걸이 철봉이 있어 언제든지 동아리방에 와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광경입니다. 주로 저 테이블에 공강 시간에 수다를 떨거나 식사하거나 보드게임으로 게임을 합니다. 부원들끼리 공강 시간에 수다를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지각할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을 열고 바로 오른쪽에는 소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워서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등반 관련 책이나 선배님들이 남기고 간 전공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게임으로 부원들과 신나게 게임을 합니다.



여기는 장비를 모아두는 곳입니다.

왼쪽에는 헬멧, 카라비너, 하네스, 암벽화, 자일 등 각종 등반 장비가 있고, 오른쪽에는 가스, 버너 같은 야영 장비를 두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텐트 배낭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부실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온갖 낙서들과 부원들의 인생네컷 사진들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 2022년 행사별 주요사진

B.F.C 22 하계 등산학교



2022 콜핑과 함께하는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



영호남 합동등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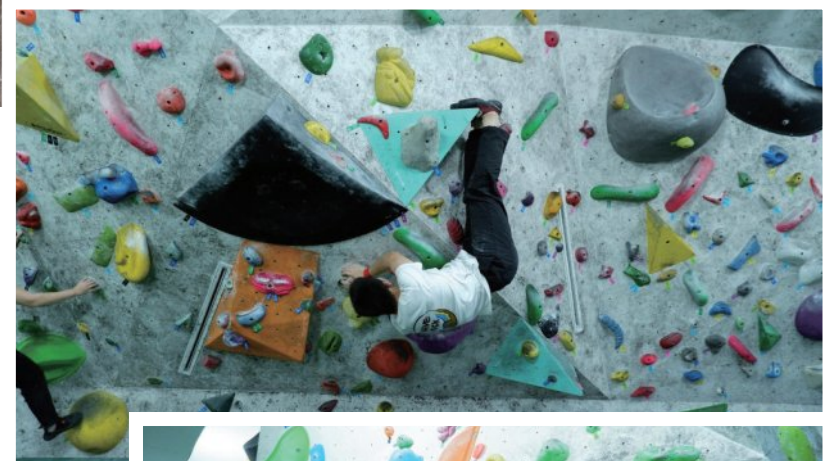
제54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제50회 연맹제



볼더링 페스티벌



B.F.C 22 동계 등산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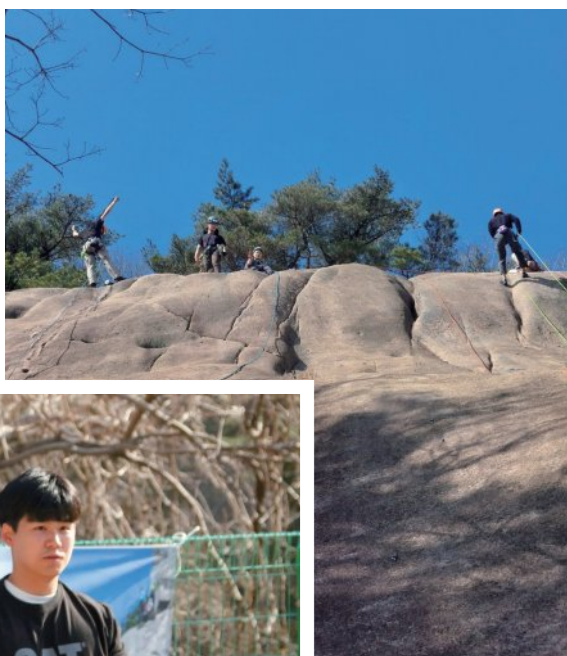


## 2023년 행사별 주요사진

### 제56차 정기총회



B.F.C 23 하계 등산학교



B.F.C 23 하계 등산학교



영호남 합동등반



부산산악문화축제 산악영화제



제55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Y.B 추계 합동등반





Y.B 추계 합동등반

단체 회장단 간담회



제51회 연맹제



B.F.C 23 동계 등산학교



## 단대별 활동 소개

1. 동아대학교
2. 부산대학교
3. 인제대학교
4. 동의대학교
5. 경성대학교
6. 한국해양대학교
7. 부산교육대학교
8. 부경대학교



## 1. 동아대학교

무주스키장 설상 훈련

1. 일자 : 2023년 3월 18, 19일 (토·일) :
2. 대상산 : 무주 스키장
3. 참석자 : 19 이호선 21 이수지
4. 산행기록 : 무주 슬로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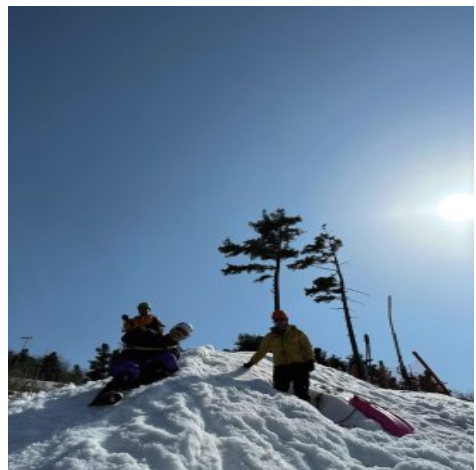
오늘은 시즌이 끝나 폐장한 무주 스키장에서 벽래선배님과 수지와 설상 훈련을 했다. 17일 신입생 환영 등반을 마치고 바로 무주로 출발해 새벽에 도착하였다. 도착하니 벽래선배님과 차진철 선배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다음날 들고 갈 짐을 패킹하고 얼른 잠자리에 들었다.

일어나서 벽래선배님과 슬로프를 올라가며 설산에서 사용되는 스텝들을 단기간 배우며 천천히 올라갔다.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계속 미끄러지고 한 발 한 발이 힘들었는데 배우며 걸음에 적응해 보니 점점 수월해졌고 마침내 슬로프 꼭대기에 도착했다. 도착해서 텐

트를 치고 본격적인 설상 훈련을 하였다. 활락제동과 확보점 만들기, 설산에서의 자일 운영법 등 짧은 시간이지만 속성과외로 배웠다. 배우면서도 시간이 너무 짧아 많이 아쉬웠다.



하지만 선배님께서 너무 재밌게 가르쳐주시고 평소에 하던 암벽과 달리 알피니즘에 대해 배우니 너무 좋았다. 설상 훈련을 한번 해보니 다음에는 더 길게 하러 가고 싶어졌다.



### 황령산, 금정산 등반

1. 일자 : 2023년 10월 7, 8 (토, 일)
2. 대상산 : 황령산, 금정산
3. 참석자 : 18 조현세 19 이호선 21 신정호  
여정윤 이수지 (영남대) 문기빈 외 6명
4. 산행기록 : 황령산 등산 및 금정산 야영  
무명릿지 - 부채암

중간고사를 마치고 가을을 맞이해 어떤 산을 갈지 고민하던 중 이번에는 도심에 있는 황령산과 금련산을 다녀오기로 계획을 잡았다. 부산 시민이라면 한 번쯤 가봤을 만한 황령산, 금련산을 다녀온다고 하니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높지 않고 쉬운 루트라 부원들의 참여 또한 많았다. 10명의 재학생이 참여해 모처럼 시끌시끌한 산행이 될 거로 생각했다.

10.7 오전 10시 금련산역에 모두 집결했다. 출발하기 전 마침 재학생 회장님의 생일이 겹쳐 선물 증정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상치 못한 깜짝 축하로 회장님은 좋아했고 준비한 우리 또한 기뻐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출발했다. 개인적으로 황령산은 차를 타고 항상 올라갔기에 걸어서 등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걸어서 올라간다고 하니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간 풍경을 천천히 눈으로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기

대되었다. 역에서부터 십여 분 걷다 보니 등산로 입구가 보였다. 다들 소풍 나온 아이들과 같이 하하 호호 웃으며 산행을 시작했다.

입구에서 조금 걸으니 운동 기구들이 보였다. 각종 운동 기구 중 철봉을 보더니 남자부원들 사이에서 턱걸이 내기를 하자는 말이 나왔다. 턱걸이도 일반적인 턱걸이가 아닌 워런 '다우약' 이니 배낭을 메고 내기를 했다. 각자 턱걸이 개수를 세고 제일 적게 한 사람이 하산 뒤 커피를 사는 걸로 했다. 한 명씩 차례차례 진행하고 나의 차례가 되었다. 난 열심히 해보았지만 결국 몇 개 하지 못했고 꼴찌가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태양이가 나랑 개수가 같아 혼자만 커피를 사지 않았다. 한편의 턱걸이 소동이 끝나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조금 걷다 보니 임도가 나와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20분쯤 걸은 후 금련산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왔다. 갈림길에서 방향을 틀어 금련산을 향해 갔다. 잠시 뒤 금련산 정상에 나왔다. 정상에 도착하고 나니 다들 당황스러운 기색이었다. 왜냐하면 금련산 정상은 일반적인 정상석이 아닌 '금련산'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만이 여기가 정상인 것을 알려 주었다. 그래도 정상에 왔으니 다우약 부기와 함께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잠깐의 숨을 돌리고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황령산을 향해 걸어갔다.





다시 임도로 내려와 30분 정도 걸으니 황령산 전망대에 도착했다. 황령산 전망대는 늘 차량을 이용해 왔었는데 걸어서 올라오니 색다른 경험이었다. 전망대에서 잠시 풍경을 본 뒤 근처에 있는 봉수대로 자리를 옮겼다. 봉수대 앞 벤치에 다 같이 모여 앉아 휴식을 가졌다. 모두 부산 도심 풍경을 보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재밌는 시간을 즐겼다. 짧은 휴식 후 우리는 서면 방향으로 하산하였다. 내려가는 길 또한 편한 루트였고 다들 부담 없이 내려올 수 있었다. 금방 하산을 마친 뒤 다 같이 점심 식사했다. 메뉴는 오리 불고기였다. 다들 산행을 마쳐서 배고픈 상태라 맛있게 잘 먹었다. 급하게 잡은 식당치고 맛도 괜찮아 행복한 식사 시간이었다. 식사 후 아까 턱걸이 내기에서 진 인원들이 커피를 부원들에게 돌려줬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내기는 내기니 기분 좋게 비용을 냈다. 커피를 마시며 모두 즐

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까지 기분이 좋아졌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깜짝 내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지겨운 산행이 끝나고 아콩카과 원정대대원들만 따로 남게 되었다.

사실 아콩카과 원정대대원들은 황령산 산행 뒤 OB 팀 훈련에 합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래서 무거운 중량을 황령산에서부터 메고 운행했었다. 황령산 일정이 끝난 뒤 바로 온천지역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금정산성 동문으로 갔다. OB 팀과 일정을 맞춘다고 최대한 빠르게 이동했다. 동문에서부터 야영지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이동해서 갔다. 야영지에 도착하니 이미 선배님들은 도착해 텐트를 피칭해 놓으셨다. YB 팀도 짐을 풀고 해가 지기 전에 텐트를 피칭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텐트 설치를 완료한 뒤 야간 무명릿지 등반을 가기 위해 다 같이 하네스를 비롯한

장비를 착용했다. 소위 ‘야바위’라고 불리는 야간 등반은 재학생끼리 가기에 위험성도 크고 무리가 있어 할 기회가 없었다. 이번에는 선배님들과 함께 할 기회가 생겨 재학생들은 처음으로 야간 등반에 도전할 수 있었다.

등반을 하니 시야 확보가 잘 안된다는 점이 힘들었다. 손발 위치를 확인해 가며 부지런히 등반했다. 재학생이 올라가는 모습이 걱정스러웠는지 조벽래 선배님은 밑에서 계속 랜턴 빛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신경 써주셨다. 너무



야영지를 떠나 무명릿지 앞에 서니 긴장이 되었다. 야간 등반은 처음인지라 긴장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시작 전 장비 점검을 하고 조를 나누고 등반은 시작되었다. 시작하자마자 가늘게 오던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굵어지면 등반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려는 찰나 빗줄기는 다시 가늘어져 등반을 계속할 수 있었다. 선배님들의 선등을 시작으로 재학생들은 한둘씩 올라갔다. 등반하면서 확보, 백업, 등반 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선배님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평소 등반을 하며 익혔던 내용들이지만 선배님 앞에 있으니, 긴장도 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있어 열심히 들었다. 야간

감사한 장면이었다. 확보 지점에 올라와서도 선배님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 주셨다. 야간 등반이니 사소한 실수도 나오고 다들 정신이 없었지만,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질책이 우리의 정신을 잡아주었다.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모두 무사히 1피치를 올라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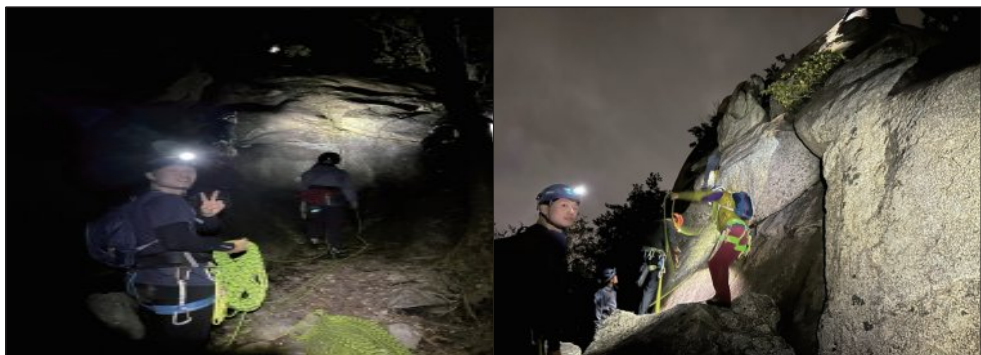
야간 등반이다 보니 우회를 많이 하게 되었다. 우회로는 1피치보다는 쉽게 등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야바위인 만큼 유의하며 진행했다. 헤드랜턴 빛에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등반했다. 조금씩 주의를 하면서 움직여 안전하게 모두 올라왔다. 소나무 길을 앞두고 대기



를 하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이 부니 체온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으 춥다”라는 말을 내뱉었는데 선배님은 바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다. 추워지기 전에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하셨다. 배낭에 있는 옷을 입으니 확실히 차이가 크게 났다. ‘진작 입을걸’이라는 후회와 함께 ‘지금이라도 입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나무길 또한 선배님이 선등하셨다. 야간이라 시야 확보도 쉽지 않은데 선등하는 모습을 보여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후 재학생들은 후등으로 올라갔다. 난 캠과 킥드로우 회수도 하면서 등반했다. 킥드로우 회수는 많이 했지만 캠 회수는 거의 해보지 않아 긴장은 났지만 생각보다 캠 회수는 어렵지 않았다. 잠깐의 시간이 지난 뒤 중간 확보 지점에 모두 서게 되었다. 중간 확보 지점은 따로 앵커 볼트가 없어 확보물을 슬링

으로 설치해야 했다. 선배님이 슬링으로 비위에 확보물을 설치해 주셔서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다. 좁은 시야로 등반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도전이었다. 킥과 캠 회수를 하며 끝까지 부지런히 등반했다.

마지막 피치를 앞두고 확보물이 없는 지점이 있어 선배님들은 캠과 슬링으로 확보 지점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해주셨다. 무명릿지에서 등반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다. 우리가 무명릿지에서 배울 것은 안전한 확보 지점의 설치, 등반 시스템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이것을 반복하며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다. 최종 하강지에 도착해선 선배님들은 하강의 과정, 백업 등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고 재학생들은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하강까지 안전하게 완료했다.





이처럼 야간 등반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릿지등반에 익숙지 않던 우리를 야간 등반을 하며 교육을 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하고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야간 등반을 마치고 OB, YB 팀은 늦은 저녁을 함께 먹었다. 저녁 메뉴는 삼겹살, 라면, 전투식량이었다. 모두 허기가 졌는지 식사를 맛있게 먹었다. 나 역시 배가 고파 선배님들이 구워주시는 고기를 허겁지겁 먹으면서 배를 채웠다. 특히 등반 후에 먹은 삼겹살은 정말로 꿀맛이었다. 폭풍 같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깨끗이 주변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였다. 다음날 일정도 뻑뻑하게 있어서 어서 잠들어야만 했다. 텐트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렇게 금정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텐트 철수 후 아침 식사를 했다. 식사 뒤 선배님들은 우리 재학생들에게 필수 등산 기초에 대해 알려 주는 시간을 가졌다. 산행계획, 운행(배낭 패킹, 옷 입기, 끈기), 암벽등반 등 여러 기초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 많은 내용이 도움이 되었지만, 그중 가장 유용했던 것은 배낭 패킹이었다. 선배님들이 알려 주신 패킹은 우리가 이전까지 했던 방식과 큰 차이가 있었다. 패킹을 잘해야 같은 배낭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왔다. 또한 등반 교육 중 구호와 매듭을 배운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교육 뒤 OB, YB 팀은 부채암으로 향했다. 부채암은 개인적으로 처음 가는 곳이라 긴장되기도 했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 어느새 걷





다 보니 부채암 앞에 도착하여 배낭을 풀고 암장구를 착용했다. 선배님들은 금방 준비하여 등반을 시작하셨다. 크랙 등반을 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며 대단하면서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먼저 올라간 곳은 기존 A이었다. 후등으로 올라갔지만, 긴장되면서 기존에 했던 등반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가 선배님들이 계시는 테라스에서 확보했다. 위에서도 선배님들은 재학생들을 한 명씩 챙겨주시면서 등반하셨다. 내 다음은 호선 선배였다. 호선 선배는 선등으로 올라왔다. 나는 테라스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선배의 팔과 다리가 떨리는 모습이 보였다. 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순간 호선 선배는 추락하고 말았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깜짝 놀랐다. 몇 분이 지나고 선배의 상태를 봤는데 크게 다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하의가 다 찢어졌고 많이 놀란 상태였다. 다른 선배님들은 호선 선배 다친 곳을 치료해 주시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다. 나도 어서 내려와 선배의 모습을 봤는데 예상치 못한 추락에 당황하고 불안한 모습이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잠시 뒤 괜찮아하는 걸 보니 마음이 놓였다.

재학생들은 기존 A뿐만 아니라 번개길, 억

지길, 우정 B 등 여러 루트를 올랐다. 크랙 사이에 손을 넣는 재미를 처음 접한 나는 처음에는 애를 먹었으나 점점 시도할수록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았다. 그러면서 크랙 등반은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도 같이 들게 되었다. 선배님들의 등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는 것과 갈 길이 멀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3~4시간을 등반한 후, 금정산에서 1박 2일은 끝이 났다. 선배님들과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르침을 받았고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없기에 선배님들은 재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 주려 하셨다. 앞으로도 OB, YB가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여러 세대가 다 함께 어울리는 '다우악'이 자랑스럽게 느끼며 마무리한다.

### 가덕도 해벽

1. 일자 : 2023년 11월 1일 (수)
2. 대상산 : 가덕도 해벽
3. 참석자 : 19 이호선 21 신정호 22 김정현 외 16명
4. 산행기록 : 동아리 부실- 가덕도 해벽



문득 해벽의 풍경을 보여주고 해벽 등반을 함께하자고 한다. 보내준 경치가 아름다워서 가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없었다. 호선 선배가 시험도 끝났고 개교기념일이라 학교도 쉬니다 같이 가덕도에 해벽 등반하러 가자고 한 것이었다.

가기 전날엔 시간이 되는 몇몇만 모여 간략한 설명을 들었고, 당일에는 동아리방에 다들 모여 필요한 물품을 각자의 가방에 담아 출발했다. 함께하는 사람이 19명이나 되기에 차를 나누어 타는 것을 시작으로 가덕도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동방에서 가덕도까지의 시간 동안 같은 차를 탄 사람들과 수다를 떨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어 인사를 말하며 차츰 친해졌다. 차로 한참을 갔지만 해벽까지는 못 가고, 근처 도로변에 차를 두고 짐들과 함께 짧은 산행을 해야 했다. 자일 등 등반에 필요한 장비부터 식수, 점심까지 각자의 등에 나누어 담아서 산행이 평소보다 힘들었다. 짧은 산행이지만 경사가 험한 구간도 있었고 길목에 있는 로프를 잡고 내려가야 하는 구간도 있었다. 먼저 내려간 사람이 다음 사람이 안전하게 내려오게 보주며 길을 가서 안전을 갖춘 채로 해벽으로 향했다.

올랐던 산길을 벗어나 문득 나무가 사라지고 바위들이 보였다. 가려져 있던 바다가 보이고 앞 소리에 묻혔던 파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반짝이는 바다를 멍하니 보고 있으니 고됨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설렘을 안고 얼른 바다에 도착했고, 한참을 바라보다 가져왔던 짐들을 풀었다. 해벽에 오를 준비를 끝마친 후에 먼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선등으로 줄을 걸어주었다. 제한된 안전장치를 뒤로한 채 자신을 믿으며 오르는 모습이 듬직해 보였다.



비교적 안전한 후등이었지만 해벽에 오르는 건 처음이라 긴장을 한 나머지 주머니에 핸드폰을 빼지 않은 채로 벽에 올랐다. 만약 주머니에서 빠졌다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던 일이라, 다음번에 오를 때는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임했다.

첫 번째로 올랐던 벽면은 잡을 게 많아 어렵지 않게 완등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올랐던 벽은 바다를 바닥으로 하고 있어 벽이 매우 미끄러웠다. 두 손 모두 하얗게 칠하고 벽에 올랐어도 계속 미끄러져 조금은 불안했다. 역시나 중간 정도 올랐을 때 추락했는데, 만약 선등이었다면 아찔했을 순간이, 줄을 잡아주던 동료의 든든한 덕에 다치지 않았고 이후 완등까지 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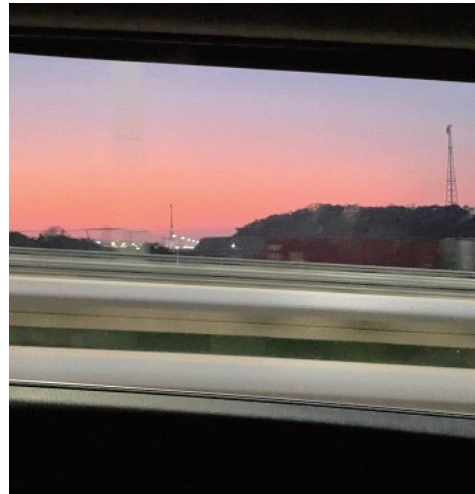
매번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걸 더 주저하게 된다. 밑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놓친다면 그대로 추락할 수 있어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동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의지하는 마음도 커진다. 오래 함께하지 않아도 금방 친해지는 이유가 이런 곳에 있지 않을까.

줄을 서며 기다릴 때는 뒤를 돌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할 틈이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 파도 소리 가득한 곳에 오니 차분해졌다. 동아리에 들어 일상을 벗어나는 좋은 기회를 자주 얻게 되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쯤 호선 선배를 필두로 사람들이 라면과 김밥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다. 전날에 어떤 라면을 가져갈지 이야기했지만 호선 선배가 원하는 거로 결정이 났다. 과일이나 간식 등 가져온 게 많은 걸 보고 회장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고민하고 챙겨주고 있구나를 느꼈다. 다 끓여진 냄비를 돌 위에 올려두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냄비 하나에 웅기종기 모여 속닥속닥 이야기하니 소풍 온 듯 즐거워졌다.

소화할 겸 주위를 돌아보다 멀지 않은 바위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보였다. 알고 보니 인당 만 원이면 해벽까지 배로 오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가까이 가서 많이 잡았는지 물어보니, 웃으시며 별로 없다고 하셨다.



벽을 오르고 내리며 하늘이 붉어질 때까지 웃으며 놀았다. 뜨는 해보다 지는 해가 더 아름다운 건, 그날의 하루가 담겨있기에 그렇다. 너무 어두워지면 돌아가는 길이 위험해지기

에 아름답게 지는 해를 뒤로하고 가져왔던 짐들을 챙겨 출발했다. 온종일 즐겁게 지내서 그런지 같은 길이지만 원만해진 산길을 올랐다.

동아리방에 가져갔던 짐들을 제자리에 넣음을 끝으로 해벽 일정은 끝이 났다. 하지만 못다 한 이야기가 많아 뒤풀이를 위해 자리를 옮겨 시간을 더 보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시간 속에 친해지고 편해졌지만, 어느새 안녕을 말해야 할 때가 되었다.

기다릴 땐 웃어주고 오를 때는 응원해 주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밝으므로 가득해지는 하루였다. 호선 선배를 포함한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많은 걸 느끼기도 했다. 한 가지에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열심히 한다는 것. 먼저 가 있기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바라보게 되어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날이다.

### 영남알프스

1. 일자 : 2023년 11월 11, 12 (토, 일)
2. 대상산 : 영남알프스
3. 참석자 : 18 조현세 19 이호선 21 신정호 여정윤 23 이재영 김도영 황태양 서우람
4. 산행기록 : 배내고개- 배내봉- 간월산- 간월재- 신불산- 신불재- 건암사 동아대학교

다 같이 울산으로 케이티엑스를 타고 출발합니다. 신입 부원들은 1박 2일 산행이 처음인 점을 고려하여 모두 회장님과 앉아서 가

방을 정리합니다.

무거운 짐이지만 신입생들이 불편한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짐을 들고 출발합니다.



배내고개에서 출발 전 다 같이 한 컷 찰칵합니다. (<>)

배내봉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계단의 연속이라 다들 처음부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배낭을 메고 처음으로 등산을 한 저에게는 '무거운 것을 매고 허벅지를 단련시키는 것이 진정한 등산인 건가!' 하며 뒤쳐지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시작이었습니다.





배내봉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첫 목적지였던 배내봉에 도착해서  
 더 힘내보자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11월 11이었던 당일  
 신정호 선배님께서 스نس 있게 빼빼로를 모두  
 에게 돌렸습니다. 살면서 먹어본 빼빼로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인당 하나씩 나눠주시면  
 서 달달하게 당을 채웠습니다.



간월산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간월산 뒤로 줄이 많아 저희만의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봉우리에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간월재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침부터 일찍이 모이고 긴장한 탓에 아침 밥도 못 먹고 온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잠시 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간월재에 도착한 것이 기뻐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는 지친 몸을 따뜻한 햇볕에 녹이고 다시금 출발할 준비를 하고 출발하였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서로 싸 온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사진에는 지친 기색이 뚜렷하지만, 상태는 어떤지 걸어보니 어떤지 대화하고,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먹었습니다.





신불산에 도착한 사진입니다.



마지막 베이스캠프 신불재로 향합니다!



신불재에 도착하여 사전에 만나기로 한 영남대학교 탐험대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산에서 다른 학교 부원들을 만나 재미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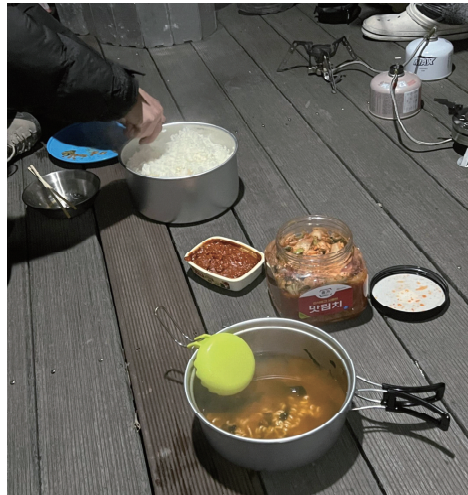
함께 야영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밤을 새워 얘기를 나눴습니다.



베이스캠프에 도착해서 쉬다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살면서 텐트를 처음 쳐보는 저에게는 이런 것들을 푹푹딱딱 해내는 선배들이 멋져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일몰입니다.



꼬들꼬들한 밥과 라면 그리고 작은 프라이팬에 구운 삼겹살까지 완벽한 저녁이었습니다.



선배들이 무언가를 하는 동안 멀뚱멀뚱 쳐다보고, 도와주고 싶어서 안절부절못하였던 신입 부원들이었습니다.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합니다.

11/12일



산의 밤은 어둡고 깊었습니다.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것이 처음이었던 저는 새로운 감정들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밤새 부는 바람에 잠을 잘 수 있을까 걱정이었지만 피곤했던 몸 덕분에 잠에 잘 들었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빵과 수프를 먹었습니다.



신불재에서 다시금 정리하고 건암사로 내려갔고, 그렇게 12시쯤 1박2일 일정을 끝냈습니다. 다 같이 산을 오르고 저녁을 먹고 주변을 보는 게 즐거웠던 저는 앞으로도 다우악 활동을 이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신입 부원이었던 저는 기존부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젠가 능숙한 기존부원이 되는 날에는 신입 부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1박2일이었습니다.

## 2. 부산대학교

### 2022년도



#### <3월 12일> 준행암

2022년도 1학기 첫 산행은 준행암이다. 준행암은 슬랩 형태의 자연 암벽으로 미끄러지는 듯한 짜릿함이 있고, 비교적 신입생이 수월하게 갈 수 있어 신입생 환영 등반으로 자주 가는 곳이다.

#### 18김재영

“다들 안전하고 재밌게 잘 다녀온 거 같아서 이번 학기 첫 산행으로 꽤 만족스러웠다.”



#### <3월 20일> 덕천외벽 인공암벽장

젊은 OB와 함께 신입생들에게 빌레이 교육을 하며 즐거운 시간이었다. 높이와 각도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지만 정작 붙으면 올라간다는 생각만 드는 장소이다.

#### 21씨리

“신입 같지 않은 신입 부원들, 벽에 계속 붙어보는 모습이 대단했다.”



#### <3월 27일> 송도 해변

송도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이다. 등반지와 바다와 만나는 지형이라 더욱 텐 장비를 벗고 입수하기도 한다. 다양한 난이도의 루트가 많아서 매 학기 가는 곳이다.

#### 22정영호

“완등하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등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월 2일〉 황령산

야경이 유명한 황령산이지만 낮에 보는 빛깔도 정말 아름답다.

다들 편안한 복장으로 나들이 간다는 생각으로 즐거운 워킹을 했다. 부산에 예쁜 산이 많다는 게 정말 복인 거 같다.

21이의지

“이렇게 산악부에 대한 애정이 커집니다.”



〈4월 23일 ~ 24일〉 영남알프스 워킹

무거운 짐을 메고 힘든 산행이지만, 저녁에 먹은 오리고기와 볶음밥의 맛이 잊히지 않는다. 힘든 만큼 서로 정이 들고 마음이 통한다. 아름다운 경치가 장관을 이루는 워킹이었다.

22정영호

“힘들을 이겨내는 것 또한 내 즐거움”

〈2022년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

부산학생산악연맹에서는 매년 1학기 즉 봄에 등산학교를 진행한다. 새 학기인 만큼 신입생들이 많고 다양한 학교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크고 뜻깊은 행사이다.

〈5월 1일〉 준행암



〈5월 8일〉 무명릿지

매듭법과 확보법을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다. 그리고 첫 주차인 만큼 서로가 어색하지만, 차근차근 친해지는 주차였다.

18김재영

“나는 등반이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5월 21일〉 동래 인공암벽장

릿지는 암벽등반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근데 많은 인원이 가니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나 강사나 모두가 힘겨운 하루였지만 다들 즐거운 날이었다.

12강동중

“나는 대학에서 남은 게 거의 산악부밖에 없다고 할 만큼 너무 좋은 사람들과 취미를 얻었다.”



강사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교육해 주셔서 많은 배움이 있었다. 마지막 날이라 이십지만 다들 이때의 추억을 마음속에 가지고 또 산에서 봤으면 좋을 것 같다.

### 22박수완

“박수완 각성 무조건 올라가줄게ㅇㅇ.”

### 8월 12일~18일 하계장기 등반



### <8월 13일> 공룡능선

새벽 2시부터 출발해 저녁 5시까지 등산을 했다... 20명이 넘는 인원이 힘든 코스를 등산한다는 게 뜻깊었다.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너무나 이쁜 설악산의 풍경에 가슴이 시린 느낌이다.

### 22박수완

“이번 산행 중에는 힘들다고 말하지 말기가 목표이다.”



### <8월 14일> 4인의 우정길

다소 늦은 출발로 인해 밤이 다가오고 나서 야 하강을 마쳤다. 모두가 긴장하고, 인원도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뒤를 보았을 때 펼쳐진 풍경에 힘든 기억은 사라진다. 하강을 완료하고 큰비가 내려서 하산길도 위험천만했지만, 이게 훈련이라는 생각에 이겨낸 우리들이 대견해진다.

### 21씨리

“등반을 가고 싶어 하는 내 자신이 조금 신기하다.”



### <8월 16일> 별을 따는 소년들

갑작스레 상승한 난이도로 인해 부원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무서워했던 등반이었다.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고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땀 뚫린 광경에서 오는 공포감과 성취감이 공존하는 등반이었다.

**21도민식**

“아직도 설악에서 어프로치 길을 걷던 순간, 릿지를 오르던 순간들이 꿈만 같다.”



〈8월 17일〉 국립등산학교 / 산악박물관 우천으로 인해 속초에 있는 국립등산학교에 갔다. 실내, 실외 암벽장을 이용할 수 있고, 산악박물관도 있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이라는게 아쉽다.

**18김재영**

“마지막 힘든 하계 훈련까지 따라와 준 모두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9월24일~25일〉54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매년 열리는 대회에 3인 1조로 여대부 1팀, 남대부 1팀이 참가했다. 부산학생산악연맹에서 교육을 착실히 받고 열심히 준비해 남대부가 대학부 우승을 할 수 있었다. 응급조치법부터 시작에서 거의 등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평가받는데, 정말 대단하다.

**18김재영**

“시상대에 올라서서 메달을 받고 크디큰 우승기를 휘날리니 모두가 우리의 우승을 축하해주었다.”



〈10월 22일〉 무명릿지

OB 선배님들과 함께 무명릿지를 등반했다. 다소 부족했던 등반지식에 대해서 배우고 궁금했던 점을 채울 수 있는 순간이었다. 릿지가 처음이라 힘든 부원도 있었지만, 다들 즐겁게 등반했다.

**22문성필**

“이번 릿지등반은 등산과 클라이밍의 매력이 합쳐진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같다.”



〈11월 4일~5일〉 영남알프스

모든 부원이 기대하는 영남알프스 등산이다. 가을의 산은 더욱이 아름답고 선선한 날씨에 등산하기에 좋다. 힘들기도 하지만 또 가고 싶은 산이다.

**21도민식**

“부원들에게 아주 좋은, 축복 같은 기억을 남겨준 것 같아 기쁘다.”



〈11월 11일~12일〉 부산 종주

저녁에 승학산부터 구덕산, 엄광산, 백양산, 금정산을 종주하는 활동이다. 산행이 쪽 이어져 지쳐가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함께하는 동료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22구재경**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준 부산대 산악부와 종주 계획을 짰 민식오빠, 그리고 옆에서 같이

걷고 힘내준 성필이와 조린에게 넘 고맙다.



〈11월 20일〉 문수암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문수암으로 등반을 간 날이다. 등반 고수가 아니어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난이도의 루트가 많아 다들 보람차게 등반했다. 이번 학기 마지막 등반이라 아쉽지만, 또 다음에 보길 바란다.

**21이의지**

“선배님들이 다 너무 좋아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평생 취미가 되게끔 노력해 보고 싶다.”

〈2022년 부산학생산악연맹 동계등산학교〉



〈1월 13일~15일〉 영남알프스 종주  
동계 훈련의 시작 날이다. 그렇지만 비가 많이 내린다. 무거워지는 몸과, 질척이는 흙에 힘들다. 하지만 이 또한 돌아켜 보니 큰 추억이다. 텐트 안에서 소감을 이야기하고, 일찍 일어나 출발하고 2박 3일 동안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리워지는 추억이 되었다.

**21씨리**

“나도 멋진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동계였다.”



〈1월 15일~18일〉 빙벽훈련

아쉽게 빙벽이 얼어있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든 훈련 장소를 찾아서 빙벽 등반의 기초를 배웠다. 이외에도 주마령, 믹스클라이밍등을 배워 우려했던 것보다는 보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저녁까지 훈련하고 숙소로 돌아와 따뜻한 밥을 먹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순간의 광경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쉬운 점은 모두 사라지고 추억만이 남았다.

“이제 동계가 끝이라 생각하니 내려가는 길에 아쉬움이 컸다. 그만큼 도와와 함께 한 시간이 즐거웠고 소중한해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



〈1월 18일〉 수료식

사진을 보니 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동계등산학교 동안 배운 점이 너무나 많고, 소중한 인연도 쌓았다. 돌아가는 길이 이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22백인수**

“즐거웠던 추억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 때 나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2023년도**

〈2023년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



〈3월 25~26일〉 고당봉, 무명릿지

고당봉 등산 후 야영을 한 날이다. 많은 학교의 산악부원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알코올에 취한 날이다. 그날을 생각하면 웃음만 자꾸 나온다.

다음날 무명릿지는 다소 힘들었지만 힘들도 돌이켜 보니 추억이다.

### 22백인수

“다들 얼굴이 힘들어 보였지만, 좀 더 끈끈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 참 좋았다.”



### <4월 1일> 동래 외벽 인공암벽장

동래 외벽 인공암벽장에서 매듭법, 리드클라이밍, 구급법, 확보 지점 설치법, 주마링 등 다양한 기술들을 알차게 배운 날이다. 등산학교의 마지막 날이라 이쉽지만, 다음이 또 있다고 믿고, 추억을 간직한 채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 23이지혜

“이번 등산학교를 준비해 주신 학감님, 선배님들, 회장님께 진정으로 감사했다.”



### <5월 20~21일> 지리산

새벽부터 출발해서 지리산 등산을 하고 다음 날에는 계곡에서 물놀이한다. 열심히 등산하고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한잔 기울인다. 계곡의 물은 차갑지만, 모두가 즐겁게 입수한다.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 하니 덩달아 기뻐지는 활동이다.

### 21제원석

“그래도 언제나 그랬듯 정상에 도달할 때의 쾌감은 잊지 못했다.”



### <5월 27일> 무명릿지

하계장기 등반을 대비한 훈련 날이다. 03 윤정민 선배와 함안 상데미암릿지 등반을 했다. 크랙, 디에드로 형태의 암벽을 등반하고, 자일을 연결하여 하강하는 법을 배웠다. 무더운 여름이라 모두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즐거움만 남는다.

**23윤종빈**

“너무 감사했고 다음에도 또 볼 수 있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8월 5일〉 상데미암릿지

첫 등반의 여운이 가기도 전에 다음 등반을 출발했다. 어프로치는 4인의 우정길과 거의 똑같지만,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다소 촉박해 점심을 못 먹은 일도 있지만 그만큼 저녁이 맛있어진다. 각자가 준비한 실력을 보여준 날이었다.

21씨리 “설악산 덕분에 새로운 경험, 풍경이 주는 감동, 부산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한 아름 안고 왔습니다. 설악산 다시 보니 참 멋지다.”

**8월 16~22일 하계장기 등반**



〈8/17〉 4인의 우정길

동의대학교 산악부와 합동 등반을 한 날이다. 놀라운 등반 실력과 기술을 가진 동의대 산악부와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이었다. 늘 산악부와 함께하면 배우는 점이 가득하고 즐거움도 가득하다.

**23윤종빈**

“다 파이팅 있는 사람들이어서 많이 배우고 경험한 시간이었다.”



〈8/18〉 별을 따는 소년들

밤이 남아있는 새벽부터 일어나 어둑어둑할 때 등반이 완료되었다. 하계장기 등반 중 첫 활동 첫 등반이라 모두가 긴장했다. 힘든 어프로치와 높은 고도감에 무서웠지만 그때의 눈앞에 펼쳐진 그림과 같은 경치는 아직도 생생하다.

**23김태우**

“어프로치가 그날의 크릭스일 것이다.”



〈8/19〉 유선대 그리움 돌

가벼운 마음으로 위킹을 갔지만 생각보다 힘들었다. 흔들바위도 힘을 합쳐 흔들어 보고, 꿀벌 집 아이스크림도 먹으며 내일이면 부산으로 돌아가 쉴 수 있다는 기대와 마지막 날의 아쉬움이 공존한다.

22김예지

“울산바위 .. 쉽다고 했는데 정상 너무 힘들었다.”



〈8/21〉 울산바위 위킹

3일 연속등반이라는 강행군 중 마지막 등반지다. 지치고 힘들지만 다 같이 이겨낸 날이다. 뒤 조 등반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내려오니 모두가 웃고 있었다. 힘들었지만 술을 기울이며 나누었던 이야기와

등반지에서의 기억은 보물이 되어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버렸다.

22백인수

“그때 들었던 웃음소리와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본 웃는 표정과 단란했던 광경은 잊지 못한다. 이때 보람을 느꼈다.”



〈9월 17일〉 추계합동 등반

부산에 있는 대학산악부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합동 등반을 진행했다. 리드클라이밍이 가능한 실내 암벽장에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대학산악부만이 느낄 수 있는 청춘의 시간이었다.

23김호서 “산악부에 들어오길 잘했다.”



〈10월 7일〉 송도 해변

신입생에겐 첫 해변이라 경치를 즐길 수 있고, 재학생은 열심히 운동한 보람을 느끼는 송도 해변은 언제나 가도 즐겁다.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해가 떠있는 동안은 역시나 더워 바다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등반을 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진다는 게 느껴진다.

**23박준재**

“나부터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겸손하고 열심히 배워야겠지.”



〈11월 11일〉 승학암 등반

매년 가을에 있는 행사지만 언제나 가도 즐겁다. 이번은 고당봉 등산 이후 장전에 있는 학교에서 축구를 진행했다. 고기도 먹고 뒤풀이까지 짝 찬 하루였다. 두 학교의 YB, OB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정말 좋고, 뜻깊은 행사인 것 같다.



〈10월 29일〉 동대부대협동산행

동아대학교 산악부가 매년 정성을 다해 관리하는 승학암으로 등반을 갔다. 처음 가는 곳이라 길을 잠시 헤매기도 했지만, 잘 도착했다. 쉬기 좋은 공간도 많고, 등반 난이도도 다양해서 먼 길을 온 보람이 있는 등반이었다.

**23박준재**

“등반 도중에 본 낙동강과 바다는 절경이었다.”



〈11월 18일〉 아리랑릿지

신기하게 눈이 내린 날이다. 아리랑릿지로 가는 길에 눈이 쌓여 있고, 바람도 많이 불어 추위가 심했다. 아리랑릿지는 어프로치가 힘들기로 유명해 힘들었지만, 등반은 잘 완수했다. 끝나고 따뜻한 곳에서 밥을 먹는데 언 손뿐만 아니라 마음도 녹아내리는 순간이다.

**21문정현**

“하지만 머 어찌겠는가  
이미 지나간 일  
다음에 잘하면 된다!”



〈11월 25일〉 무명릿지

경상대학교 산악부와 함께 무명릿지를 등반했다. 등반 후 경상대 산악부 덕분에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이후에 술도 마셨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많은 배품을 받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건 산악부라서 가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23김태우**

“아마 산악부 들어와서 가장 많이 성장한 기간이 아닐지 싶어 내 나름대로도 뿌듯했다.”



〈12월 22일〉 세미나

89김지성 선배님과 함께 세미나를 가졌다. 등반지식과 훈련법부터 훌륭한 인생을 사는 법까지 좋은 시간이었다. 이후에는 고기 먹고 술을 마시는데, 2023년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니 기분이 너무나 좋다.

**1월 26일 ~ 2월 1일**

**2023년 부산학생산악연맹 동계등산학교**



〈1/26~28〉영남알프스 종주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 배내봉을 2박 3일에 걸쳐 종주를 진행했다. 날씨가 정말 좋아 종주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 경치가 좋아 멋진 사진을 많이 남겼다. 텐트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모두가 함께했기에 즐겁게 이겨낼 수 있었다.

**23고유진**

“아마 이 동계는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다.”

〈1/28~2/1〉 빙벽훈련

아이젠 착용법부터 시작해서, 프론트 포인트, 바일 사용법, 스크루 설치법까지 다양한 빙벽 등반지식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받고, 숙소에서는 각자 경험을 공유하고 장



비를 점검하여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렇지만 빙벽 등반이라는 뜻깊은 경험은 너무나 재미있었다. 수료식을 했을 땐 아주 많이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 22백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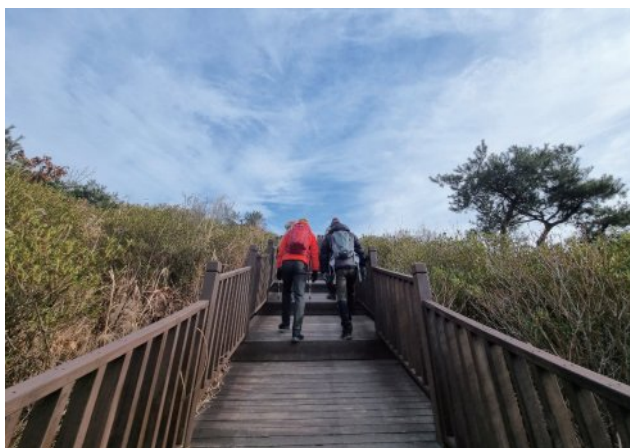
“이번 훈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 〈글을 마치며...〉

2년간 부산대 산악부의 활동, 참여한 활동들을 요약했습니다. 다소 선비 같은(?) 문체로 작성했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에 있는 대사는 실제로 부원들이 후기에 남긴 말입니다. 청춘과 낭만이 가득한 산악부의 존재에 감사하며 글을 마칩니다.

### 3. 인제대학교

2022년 12월 17일 신어산



2023년 10월 15일 문수산

#### 4. 동의대학교

2022년 3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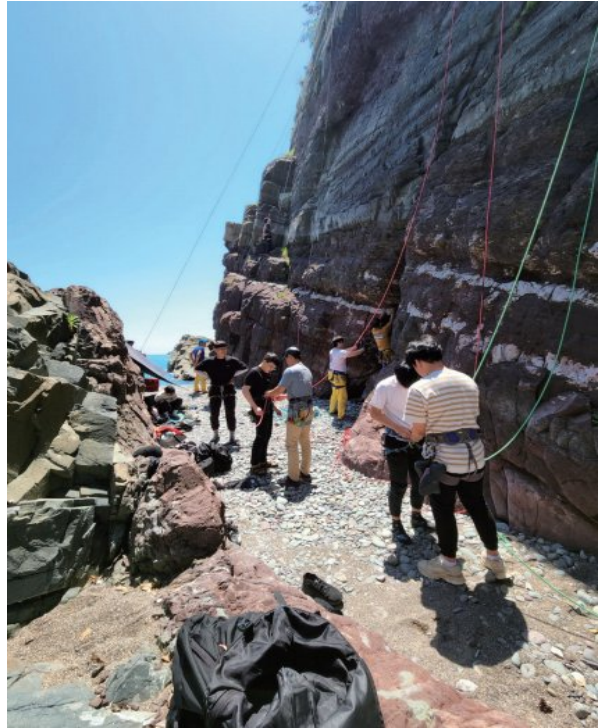
동래 외벽 (코로나 이후 첫 활동)

정기운동 (동의대 암장)



2022년 4월 25일

황령산 전망대



2022년 5월 5일

동의대 & 동아대 합동 송도 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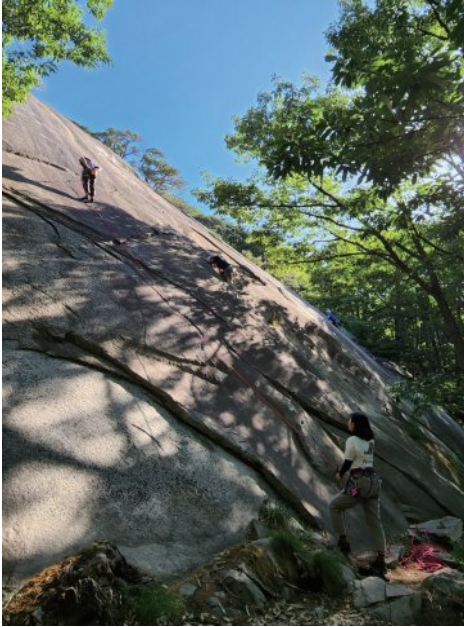


22년 5월 13일

대구암벽



2022년 5월 29일  
신입생환영회 밀양 얼음골(1박 2일)



2022년 6월 26일  
쓰리랑릿지



2022년 6월 4일  
무명릿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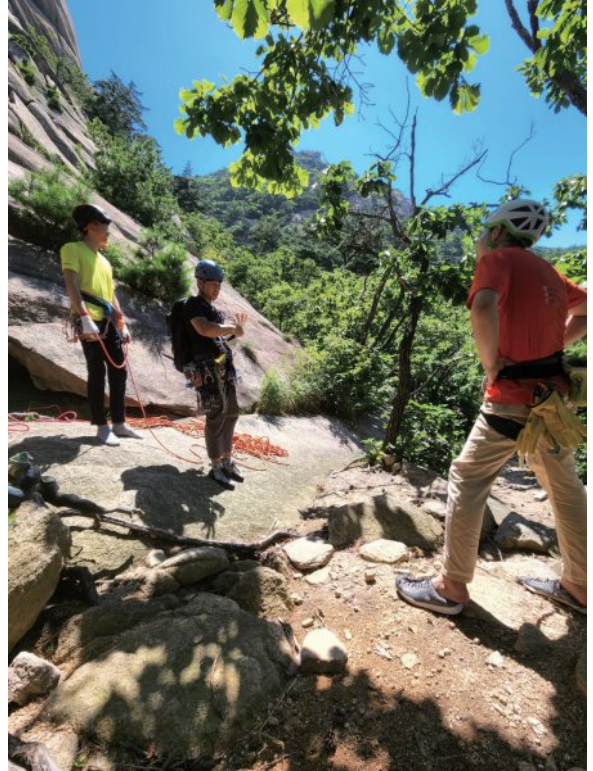
2022년 6월 29일  
송도 해변 - 상어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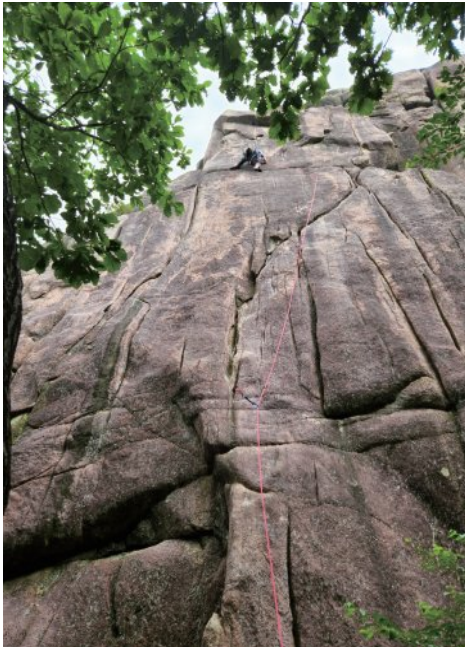
2022년 7월 5일  
대륙암



2022년 7월 30일  
동의대 & 울산대 북한산 원효봉



2022년 7월 25일  
부채바위



2022년 8월 10일 ~ 8월 15일  
설악산 하계 등반





2022년 9월 17일  
함안 상데미안

2022년 8월 31일  
부채바위(1박 2일)





2022년 9월 25일  
대통령기 등산대회

2022년 11월 2일  
락오디세이 볼더링



2022년 11월 5일  
경성대 & 동의대 무명릿지



2023년 5월 9일  
동래 외벽



2022년 11월 20일  
동의대 & 경성대 대륙암



2023년 8월 5일 ~ 8월 8일

대둔산 하계 등반(내가 낸 데, 마천대 정상)



2023년 8월 18일 ~ 8월 28일  
동의대 일본 원정  
(오가와야마, 사륜센, 지산 정상)





2023년 11월 5일 창립 등반(1박 2일)



## 5. 경성대학교

2022년

3월 27일 황령산 워킹



5월 5일  
금정산 워킹



5월 17일  
광안동 웨이브락 실내 클라이밍



7월 14일 동래 인공암벽장  
부산대, 교대, 동의대, 부경대, 춘해보건대



6월 26일  
서면 웨이브락 실내 클라이밍



7월 30일  
부경대 경성대 황령산 야간 합동산행





9월 15일  
동아리 박람회



8월 21일  
산악프로그램 덕천인공암벽장



9월 25일  
금정산 위킹





10월 29일  
동래 인공암벽장 등반



11월 5일  
동의대 경성대 합동 무명릿지



2023년  
2월 28일 동래 인공암벽장 등반



부산대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합동  
3월 3일  
각 단대 부장 모임 덕천인공암벽 등반



3월 9일  
웨이브락 실내 클라이밍 서면점



3월 5일  
황령산 위킹



3월 21일  
동아리 박람회



3월 25일  
금정산 워킹



3월 31일  
동래 인공암벽 등반



4월 4일 경성대, 부산대, 동의대, 부경대  
황령산 합동 등반



5월 2일 부산대, 동아대, 경성대  
동래 인공암벽장 합동 등반



5월 3일  
동래 인공암벽장 등반



9월 22일  
황령산 위키키



5월 9일  
송도 해변 등반



10월 5일 이기대 워킹



11월 23일 동아대, 동의대, 경성대  
오테 실내 클라이밍 합동 등반



## 6. 한국해양대학교

2022년 05월 01일  
부산 금정산 산행 (강혁준 외 7명)



2023년 05월 29일  
부산 주지봉 (양민근 외 5명)



2022년 11월 27일  
부산 웨이브락 서면 (김민규 외 6명)



2023년 05월 30일  
부산 백양산(오지영 외 7명)



2023년 06월 10일

부산 봉래산(차민규 외 10명)



2023년 10월 14일

부산 금정산 (박단빈 외 3명)



2023년 10월 28일  
부산 장산 (박단빈 외 2명)



2023년 11월 06일  
부산 금정산 (OB & YB 정기 산행)



## 7. 부산교육대학교

### 3/4 황령산 위킹

〈운행〉

9:30 등산시작 > 9:54 갈림길(봉수대 방향)  
> 10:00 질 > 10:18 황령산 주차장 >  
10:30 정상 도착 > 11:05 점심식사 후 하산  
> 11:23 사자봉 > 12:10 경성대 > 13:08  
교대 도착

〈참가부원〉

류희준, 황연호, 백영구, 강해람, 서승연, 김  
혜윤, 최나연, 김민우



### 3/8 동아리 홍보의 날

동아리방 암벽 등반 체험,  
등산 장비 사용법 학습,  
동아리방과 동아리 활동 탐색 및 홍보



♥ 환영합니다 ♥

### 3/25 금정산 무명릿지

트롤리안 브릿지 기술 습득 및 훈련

〈참가부원〉

OB : 이동본, 박종화, 서동엽, 김현우

YB : 권용하, 류희준, 정유라(이상 21), 이동  
재(이상 22), 김태은, 김유동, 이상하, 김혜윤,  
배다현, 임채은(이상 23)



### 4/2 승학산 암장

〈운행〉

9:00 동방 집결 > 10:00 당리역 반도보라  
아파트 도착 > 11:30 암장 도착 > 16:00  
등반 종료 > 16:30 하산 후 귀가  
와이비가 기획한 첫 자연암벽이다.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왔고 모두가 즐거워했다.

〈참가부원〉

류희준, 권용하, 정유라, 이대희, 조유빈, 이  
정민, 박정은, 이민예, 서민주, 문미경



5/20~5/21 영남알프스 구간종주

<운행>

07:30 교대-석남사 > 09:30 석남사 출발 >  
 10:30 상운산 > 12:00 가지산 > 16:00 능  
 동산 > 17:00 배내고개(1박) > 21:00 취침  
 > 03:00 기상 > 04:30 배내봉 > 06:30 간  
 월산 > 07:30 신불산 > 09:00 영축산 >  
 11:00 통도사  
 > 11:30 보광중학교 > 14:00 교대도착

<참가부원>

김소중, 권용하, 박상훈, 류희준, 임이사, 이  
 채은, 김동규, 남궁선, 이상하, 문미경



6/2 동래 실외 인공암벽

<운행>

10:00 동방집결

10:30 동래암장 등반

16:00 등반종료, 해산

<참가부원>

권용하, 배영준, 김지성, 조유빈, 임이사, 이  
 대희, 문미경, 김태은, 임채은, 전다인, 장미  
 양



7/29~7/31 YB하계 지리산 성중종주

<운행>

(7/29 토요일)

12:55 동방에서 출발

14:30 사상에서 버스타고 출발

17:45 화엄 탐방 안내소 도착

(7/30 일요일)

06:50 성삼재 휴게소에서 출발

07:25 노고단 대피소 도착, 휴식

07:30 출발

07:47 노고단 고개 도착, 휴식

07:50 출발

08:45 피아골 삼거리 도착, 휴식

08:50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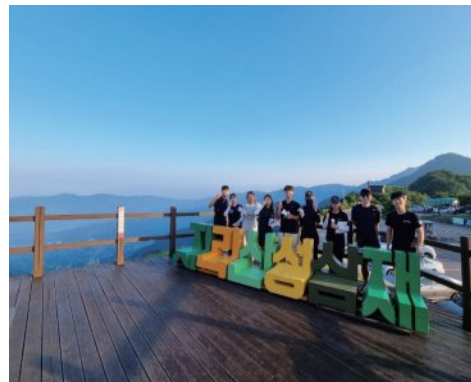
09:00 임걸령 샘 도착, 휴식  
 09:05 출발  
 10:10 삼도봉 도착, 휴식  
 10:20 출발  
 11:20 토끼봉 도착, 휴식  
 11:35 출발  
 13:05 연하천대피소 도착, 점심식사  
 13:45 출발  
 15:05 벽소령대피소 도착, 휴식  
 15:30 출발  
 18:00 칠선봉 도착, 휴식  
 18:05 출발  
 19:15 세석대피소 도착

(7/31 월요일)

05:40 세석대피소에서 출발  
 07:35 장터목대피소 도착, 휴식  
 11:20 칼바위삼거리 도착, 휴식  
 (11:40 천왕봉 팀 합류)  
 12:00 출발  
 12:30 중산리 도착

<참가부원>

23 문미경, 23 임채은, 23 전다인, 22 우승재, 21 김소중, 21 정유라, 21 류희준, 21조 유빈, OB 배효일



9/3 금정산 종주

<참가부원>

OB : 박종화 이동본 김석수

YB : 류희준, 김소중, 권용하, 임채은, 전다인, 문미경

8:51 계석마을 삼거리 출발 (오른쪽길) >

9:46 계단길 도착 장군봉향해출발 > 10:35

다방봉 > 10:50 쉬는시간 > 11:35 727봉 도착 > 11:58 장군봉 도착 > 12:11 웅달샘 (점심) > 12:27 출발 > 1:14 고당봉 > 1:43 북문도착 > 2:11 원효봉 > 2:53 동문 > 3:25 대륙봉 > 3:59 2망루 > 4:24 데크길 시작 > 5:22 (마라 40349038) 나무 엄청 많은 곳 > 5:29 찬물샘 > 5:55 철룡사



### 10/14~10/15 영남알프스

<운영>

8:06 노포 > 9:12 통도사 > 9:45 지산마을 출발 > 11:25 취서산장, 점심식사 > 11:50 출발 > 12:45 영축산 정상 > 13:00 출발 > 14:00 신불재 > 14:30 신불산 정상 > 14:50 간월재 가던 중 복귀 > 15:10 신불산 정상 > 15:30 신불재 > 18:00 비 내리기 시작 > 19:00 저녁식사 > 6:50 기상 > 08:10 신불재에서 하산 시작 > 10:05 건암사 > 11:40 통도사 터미널 도착 후 점심식사 > 14:50 교대

<참가부원>

문미경(대장), 류희준, 권용하, 이정민, (이하 23학번)임재은, 전다인, 홍영진, 장미양, 배다현, 이시현, 김주송

### 10/17 덕천 실외 인공암벽

<운영>

18:00 동아리방 집결 장비 패킹  
18:10 출발  
19:00 도착 후 등반  
21:00 등반종료

<참가부원>

류희준, 조현채, 시동훈, 김유동



11/5 금정산

〈참가부원〉

OB : 김석수, 박종화, 김현우

YB : 임채은, 조아현, 김혜윤, 강해람, 류희준, 배다현, 이정우

〈운행〉

범어사 매표소 입구(10시) → 청련암 → 고당봉 → 북문탐방센터(연맹제) → 중식 → 하산 (OB-범어사, 재학생-산성마을)



11/19 볼더링페스티벌 (포고 클라이밍)

일년간 갈고닦은 클라이밍 실력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개인 역량에 따른 시상도 진행. 클라이밍 독려 활동이었음.

〈운행〉

10:00 포고 클라이밍 집결 > 10:30 규칙 설

명 및 준비 운동 > 10:30~13:10 클라이밍 > 10:10~13:30 시상 > 13:30 점심식사, 뒤 풀이

〈참가부원〉

류희준, 정유라, 조유빈, 정현아, 배영준, 조현재, 성신우, 이대희, 최일웅, 이수진, 강민지, 김창현, 강서하, 시동훈, 이정우, 윤서인, 김혜윤, 전서진, 전다인



11/25~11/26 수도산, 가야산 종주

〈운행〉

4:00 기상 > 4:50 식사 후 출발 > 5:10 수도암 > 6:17 수도산 정상 > 7:56 송곡령 > 8:49 단지봉 > 9:36 휴식 > 10:22 두리봉 7km > 10:54 용두암봉(점심) > 11:27 출발 > 11:43 목동령 > 12:30 성만재 > 12:54 독용분맥 분기점 > 13:26 불기령 > 13:56 두리봉 > 14:27 휴식 상암봉 전 > 15:23 상암봉 앞 > 16:10 길 잘못들 > 17:00 상왕봉 > 18:30 해인사 도착 > 19:06 해인사 버스터미널 도착

〈참가부원〉

임채은, 류희준, 이민규



4/13 동래 실외 인공암벽  
클라이밍 연습  
매듭법, 빌레이, 하강연습 등



3/13, 3/31, 4/7 락오디세이 암장  
클라이밍 연습 및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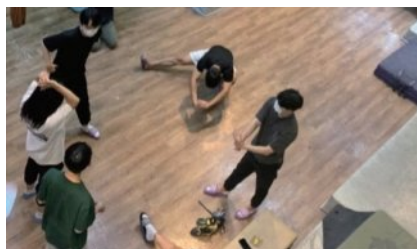
4/17, 4/25, 5/4, 5/12, 5/22  
락오디세이 암장  
클라이밍 연습 및 훈련



9/8 락오디세이 암장  
클라이밍 연습 및 훈련



9/13, 9/18, 9/27, 10/6, 10/27, 11/7,  
11/29 락오디세이 암장  
클라이밍 연습 및 훈련



## 8. 부경대학교

2022년

2022.09.24 금정산 워킹  
고당봉등반



2022.09.28 송도 암남공원  
거북암 등반



2022.10.01 동래 인공 암벽장  
등반 및 빌레이 교육



2022.10.08. 서울대\*부경대 연합등반  
송도 거북암, 금정산 고당봉 등반



2022.10.09 금정산 워킹  
고당봉등반



2022.11.05 덕천 임공암벽장.  
등반 및 교육



2022.11.04 클럽스파이더 부산역점  
클라이밍 훈련 및 강습



2022.11.06 부산학생산악연맹제  
범어사-고당봉등반 및 연맹제 참석

2022.11.13 부산학생산악연맹  
불더링 페스티벌 참가



2022.11.27 가덕도 해변등반



2022.11.26 장산 신입생 환영등반  
O.B Y.B 합동산행



2022.12.02 클럽스파이더 사상점  
등반 및 빌레이 연습



## 2023년

### 상반기활동실적

3/1 가덕도 해변등반

3/11 승학산~엄광산 등산

3/18 덕천 인공암벽장 등반훈련

3/19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  
금정산 준행암 등반

3/25~3/26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  
금정산 등산, 비박 및 릿지 등반

4/2 황령산 빛꽃구경 등산  
부산대와 합동 등산

4/12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  
동래 인공암벽장 등반교육, 주마링, 응급  
구조, 수료식.

4/19 남천 웨이브락 실내암벽 훈련

5/20 송도 해변등반

5/27 고 서성호 10주기 추모산행



2023.09.09. 클럽스파이더

부경대, 부산대, 동아대, 부산교대 합동훈련



2023.09.17 동래 인공암벽장 등반



2023.09.23 사상 소재 공원에서 캠핑



2023.11.05. 부산학생산악연맹제 참가  
범어사-고당봉-북문



2023.10.07 금정산 대륙암 등반



2023.11.18. 영남알프스  
천황산, 재약산 1박 2일 산행



2023.10.14. 고 서성호, 김창호 추모 합동  
산행, 금정산 동문~청와장



2022.11.25.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워킹 및 할매바위 등반 O.B Y.B 합동산행



## 이사회회의 개최

### 1.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 밀양삼대국밥

- 단대회장단 모임
-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 부산 산악문화축제 산악영화제
- 60킬로 극복 등행 대회
- 연맹제



### 2.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 밀양삼대국밥

- 재학생 추계합동 등반
- 서성호 추모 산행
- 동아대 남극 빈슨 매시프 & 아콩카과 원정대 발대식
- 짜리 치료 계획

### 3. 2023년 12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밀양삼대국밥

- 연맹제
- 차기 회장 공고
- 동계 등산학교



4.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밀양삼대국밥

- 동계 등산학교
- 특별 공로상

5.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밀양삼대국밥 ( 결산이사회 )

- 금정 산맥
- 차기 집행부
- 정기총회



## “ 감사합니다. ”

부산대학교 산악부원 짜리(21학번)가 대통령기 등산대회 훈련 도중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한 짜리의 부상에 많은 회원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박민호 회장 500,000  
부산광역시산악연맹 500,000  
부산대학교 산악회 1,000,000  
부산교대산악회 1,000,000  
부경대 산악회 300,000  
정지택 고문 500,000  
한정협 부경대회장 200,000  
정인숙 부회장 200,000  
하태웅 부회장 300,000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많은 회원이 도움을 주셔서 수술도 잘 되었고 회복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금정 산맥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경남정보대학교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제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금정 산맥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2023 동아대학교 아콩카과 원정대

## 편집장의 글

### 인제대학교 88 하태웅

2017년 봄, 정민규 고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10년 전 연맹 기획이사를 끝으로 소극적으로만 연맹행사에 참석하면서 먹고사는 문제에 몰입하고 있는 나를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사 편찬위원으로 참석하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창호 회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변방에 있던 인제대 출신의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최해곤, 황순철, 신호진, 정민규, 정지택 고문님, 박민호 회장님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러 연맹 선배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언젠가는 연맹에 봉사하는 것으로 갚으려고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그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일 년 반 동안 정금이 선배님과 박준범 후배와는 마지막까지 50년사 편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게 인연이 되어 학산 부회장의 중책을 맡아 6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였고 2020년 학산도 멈춰서는 듯 하여 혼란스러웠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많이 고민한 후 당시 조광제 회장께 건의하여 학산의 전통적인 행사를 하나둘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선배님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흔쾌히 도와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많은 학교 재학생이 어울릴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합동 등반을 할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이 모든 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금정산맥은 저에게는 두 번째 작품입니다. 재작년 금정산맥을 발간할 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년간 행사할 때마다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저장하여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해외 원정과 업무로 인해 생각만큼 자료가 취합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원고를 보내주신 8,000미터 14좌 완등자인 김재수 대장과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자인 조벽래 회원의 특별기고는 재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쉽 없이 달려온 6년을 뒤로 하고 이제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학산을 떠나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침 둘째가 산악부에 임회했습니다. 둘째가 산악부에 잘 적응하도록 조언도 하고 같이 자일도 뒹꼈습니다.

금정산에서 우리 부녀를 보시거든 차 한잔하시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발행 : 2024년 4월 11일  
발행처 : 부산학생산악연맹  
발행인 : 박민호  
편집인 : 하태웅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215호  
전화 : 070-8680-8815  
이메일 : bsaa@bsaa.kr  
홈페이지 : <http://bsaa.kr>